

전략연구 2014-09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경철 · 강수현

발간사

역사적으로 백제지역에 속했던 충남지역은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공주(옛 지명 熊津)와 부여는 북방민족의 문화를 잘 계승해 일본으로 전파했으며, 당진(唐津)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었고 서산과 태안지역은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이다. 백제의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와 교류를 하며 쇠락했던 백제를 부흥시키기도 했다. 부여에서 발견돼 백제의 자존심을 되찾게 한 금동대향로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지만 중국의 향로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패망한 이후 충남도지역과 중국 간의 교류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중국으로부터 천주교 등 기독교사상이 내포지역으로 들어와 일찍 개화사상이 싹트기도 했지만 이후 이어진 일제의 침탈과 뒤따른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교류는 거의 단절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류와 교역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충남도 또한 중국과의 교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충남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전지지가 조성돼 대기업 등 많은 기업이 대중국 수출을 주도했다. 현재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47%로 우리나라 전체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26%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높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적 교류 못지않게 충남도는 중국의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으며 올해 20주년을 맞고 있다. 또한 산둥성을 비롯 8개 성급 지역과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 15개 시군 또한 중국의 각급 시·협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통상 교류에 비해 공공 및 민간교류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중국과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G2를 넘어 G1을 향해 나아가는 중국의 부상 에 충남도가 적극 대응하고 경제통상 교류를 넘어 인문과 문화 등 민간영역으로 교류의 양과 폭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짧은 연구기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충남도가 지자체 가운데 명실상부하게 대중국 교류협력 분야의 연구에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6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필요성과 목적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파워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40년이 되면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전세계 교역량과 구매력지수에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력에서도 중국은 이미 아세안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BRICS 국가들과 아프리카국가들, 남미와 유럽 국가들과도 외교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존도도 높아가고 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충남도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외적인 측면이다. 최근 국제질서가 기존 미국 중심의 일극체계에서 중국, EU 등으로 다극화되는 한편,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세방화: Glocalization)되고 세계경제권이 지역단위로 블록화되면서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원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외교의 한계로 인해 지방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대내적인 측면이다. 충남도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소외를 받아왔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성되고 있고 충남도 자체적으로도 균형발전과 환황해경제권을 겨냥해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도내 전반에 큰 변화와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충남도의 대중국 경제통상이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충남도는 최근 도의 발전축을 중국을 겨냥해 서해안 쪽으로 이동시키는 “서해안비전”을 제시하고 서해안 항만건설 확대와 환황해권을 포괄하는 물류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남도 환황해권 물류기지의 핵심은 대중국 교류이다.

이 때문에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정부 간 교류협력에 기반해 충남도의 역사·지리·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대중국 교류협력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한국과 중국 간 교류협력 속에서 충남도의 위상을 설정한다. 둘째, 중국의 부상이 충남도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충남도와 각 시군별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넷째,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 수준과 태도 그리고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파악해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충남도 차원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1) 선행연구와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우리나라 대중국 교류협력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과 자료를 분석했다. 특히, 충남도와 위상이 비슷한 타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과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의 핵심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 가운데 최근 대중국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한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출간된 대중국 교류협력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기본정책 방향과 실행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경제통상과 교류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위상을 살펴봤다. 또한, 2013년 한중 양국 지도자의 회담 이후 최근 한중 간 교류협력이 경제통상에서 인문사회 분야로 변화하는 정책기조를 주목하고 이러한 정책변화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2) 기본 여건 및 의견 분석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을 세밀히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 15개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추진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 15개 시군의 국제(중국) 교류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국 교류협력을 비교적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중국교류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조사와 FGI조사를 통해 대중국 교류의 성과와 추진상의 어려움 그리고 향후 각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외교정책이 중앙정부 외교정책에서 신공공외교 또는 지방공공외교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앞서 충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성인 남녀 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의 주요 내용은, 1)중국 관련 개인적 경험 및 인식 실태, 2)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실태, 3)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이었다. 조사결과를 간략히 보면, 충남도민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0.5%이고 없다는 비율은 22.1%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충남도민의 81.8%는 대중국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가 38%로 가장 높고, 지자체 차원의 방문교류가 18%,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체육교류가 8%, 공공기관의 파견교육 및 연구가 7% 순으로 나타났다.

3)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

이상과 같은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충남도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황해권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의 내포신도시 위상 제고, 지역별 특성화된 교류협력 거점 기지 마련 등이 제시됐다. 둘째, 충남도와 각 시군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의 정보 공유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교류협력 체결 시 충남도와 각 시군 간 연계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셋째,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대중국 이해 교육 강화와 자발적 참여의 중국 관련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제시했다. 넷째, 대중국 교류협력의 허브 기능 강화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충남도청 내 대중국 교류협력 분야 역량 강화, 각 시군에 대중국 교류전담자 배치, 대중국 연구 기능의 강화, 대학과 민간단체의 교류활동 증진, 충남도 중국사무소의 기능 강화와 확대 개편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금년이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이고 양 지역이 이를 위해 10월에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향후 충남도와 허베이성 각 교류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크게 항일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 ‘3농’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 ‘백제의 뿌리’를 찾는 교류협력사업 등을 제시했다.

2. 정책적 제언

1) 대중국 교류협력에서의 충남도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

중국의 부상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는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교류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중국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각기 대중국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안의 중심 위치에 있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충남도는 최근 경제통상 분야에서만 급격한 성장추세를 보일 뿐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에서의 충남도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환황해권 발전을 위한 서해안지역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다. 2001년에 진행됐던 <서해안 포럼>과 2003년부터 진행해오다 중단된 <황해권 시도지사협회>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 내포신도시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이다. 내포지역은 우리나라 대중국

역사문화 교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이를 상징할만한 상징사업과 새로운 기반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교류협력 거점 기지 마련이다. 충남도는 북부 수출산업기지와 서부 서해안 항만물류기지 등 지역별 특성화된 대중국 교류기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2) 충남도와 각 시군 간 협력체계의 구축

충남도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1곳, 우호협력 8곳을 체결하고 있으며, 15개 시군은 자매결연 10곳과 우호협력 16곳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자체의 여건 변화로 각 지자체의 대중국 자매 및 우호협력 체결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충남도와 각 시군의 협력적으로 연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중국 교류협력의 정보 공유와 논의를 위한 공동 ‘협의체’의 운영이다. ‘협의체’에는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국 전문가와 공공 및 민간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 둘째, 교류협력 협정 체결과 실행 시 충남도와 각 시군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충남도는 충남도대로, 시군 지자체는 시군 지자체대로 자매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교류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충남도가 큰 틀에서 교류협력의 발판을 놓고 산하 시군 지자체가 참여한다면 교류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와 미래전략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세계무역 총량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으며 올해는 구매력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구 중심의 이념과 제도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서구와 중국으로 양분되는 균형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세기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에 대중국 수출비중이 47%이고 향후 중국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중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대중국 이해 교육의 강화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교육의 프로그램 가운데 중국 관련 강좌를 확대해 ‘슈퍼파워’로 부상하는 현대중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각종 강좌와 연수 등을 통해 중국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충남도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련 학습동아리를 운영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4) 대중국 교류협력의 허브 기능 강화

충남도에는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을 총괄하는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 국제교류팀이 있고 각 시군 지자체에는 대부분 기획감사실 내 국제교류팀이 있다. 또한 도 출연기관이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등에서 중국 연구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서산시 유림협의회와 부여의 청년포럼에서 교류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도내 대학기관 중에서는 공주대, 단국대, 한서대, 선문대 등의 중국학과와 경제통상학과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대중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문 간 연계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충남도청 내 대중국 교류협력 담당 분야 인력 및 역량의 강화이다. 기존의 국제교류팀에서 중국교류팀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둘째, 대중국 교류가 활성화된 시군 지자체 내 대중국 교류 전담자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대중국 연구 및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이다. 현재 서해안지역 시도 연구원에 대중국 전담 연구분석가 신설내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남발전연구원 내 중국 전담연구부서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과 민간단체의 교류활동 증진이다. 첫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중개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중국사무소 기능 강화 및 확대 개편이다. 현재 충남도 상하이사무소가 있지만 향후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면 베이징 혹은 홍콩 등에 중국사무소를 확대 개편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충남도-허베이성 간 특성화된 교류협력 강화

금년도는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따라서 양 지역은 금년 10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1994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양 지역은 여러 교류활동을 추진해 왔지만 그간의 교류활동은 성년이 되기 이전의 활동이었다면 앞으로의 교류협력 활동은 성년 이후의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원숙하고 깊이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 충남도와 허베이성은 지리적 위치와 역사, 농업과 환경 등의 방법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항일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이다. 충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을 배출한 지역이고 허베이성은 중공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협력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근거지이다. 따라서 항일투쟁을 주제로 한 교류협력사업은 양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의가 있다. 둘째, ‘3농’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다. 중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3농’문제이고 충남도정의 제1 목표는 ‘3농혁신’이다. 양 지역이 관심사는 다르겠지만 이 주제를 통해 교류협력을 한다면 양 지역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교류협력 사업이다. 중국에서도 허베이성은 수질환경이 좋지 않으며 대기오염이 특히 심한 지역이다. 충남도 역시 많은 화력발전소의 확대 등으로 환경문제가 중요 현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리에 관한 교류협력은 양 지역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곰토텐’을 주제로 한 한중일 간 교류이다. 허베이성을 비롯 중국의 북방지역과 충남도와 일본의 구마모토현은 각각 곰을 조상신으로 삼고 있다. 3국의 지방정부가 ‘곰토텐’을 소재로 한 역사교류는 단지 옛 날 것의 복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7
4. 연구의 흐름	9

제2장 선행연구 및 한중 교류협력의 현황	10
------------------------------	----

1. 선행연구 분석	10
1) 전반적인 교류협력 분야	10
2) 경제 교류협력 분야	11
3) 관광 및 문화산업 교류협력 분야	12
4) 지역-국가-국가 간 교류협력 분야	13
2.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추진 성과	14
1)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14
2) 지자체별 주요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현황	17
3. 주요 지자체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 성과	20
1)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 현황	20
2) 인천광역시-톈진시(天津市) 자매결연 20주년 추진 현황	22
4. 지방정부 국제교류와 새로운 변화	24
1)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추진 과정 및 유형	24
2) 공공외교 등장과 지방정부의 대응	25
3) 최근 한중 간 교류협력의 변화 추세	27

제3장 충남도 및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분석	30
-------------------------------------	----

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분석	30
1)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31
2) 인적 교류사업 현황	33

3) 통상교류 현황	35
2. 충남도 각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43
1) 시군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43
2) 대중국 교류협력의 인식 실태	49
3)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비전	53
3. 주요 시·군 지자체 대중국 교류 현황 및 개선 방향	58
1) 천안시	58
2) 당진시	60
3) 서산시	63
4) 논산시	66
4. 소결	70

제4장 충남도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및 태도 74

1. 조사의 개요	74
1) 충남도민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및 태도조사 배경	74
2) 조사 대상 현황	75
2. 주요 조사 결과	76
1) 중국관련 개인적 경험 및 인식 실태	76
2)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실태	80
3)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비전	83
3. 요약 및 시사점	86

제5장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88

1. 대중국 교류협력의 대내외 여건 변화	88
2.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89
1) 대중국 교류협력에서의 충남도 정체성 제고	89
2) 충남도와 각 시군 간 협력체계의 구축	92
3)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95
4) 대중국 교류협력 허브 기능 강화	96
3. 충남도-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방향	101
1) 허베이성의 개황	101
2)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교류 현황	103
3) 자매결연 20주년기념 기본 시책 방향	104

제6장 결 론 및 정책 제언	112
1. 요약 및 결론	112
2. 정책적 제언	114
1) 대중국 교류협력에서의 충남도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	114
2) 충남도와 각 시군 간 협력체계의 구축	114
3)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115
4) 대중국 교류협력의 허브 기능 강화	116
5) 충남도-허베이성 간 특성화된 교류협력 강화	116
참고문헌	118
부 록	121

〈표 차례〉

[표 2-1] 한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국지방교류 현황	15
[표 2-2] 기간별 한국 중국 지방정부간 교류현황	16
[표 2-3] 경기도의 대중국 지역별 교류협력사업	20
[표 2-4] 경기도 대중국 교류협력 로드맵	21
[표 2-5]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유형	25
[표 2-6] 국제교류의 변화 흐름	27
[표 2-7]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	28
[표 3-1] 충남도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현황	31
[표 3-2] 충남도의 대중국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32
[표 3-3]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지역 교류활동 현황	33
[표 3-4] 충남도 K2H 연수사업 현황	34
[표 3-5] 충남도 공무원 해외교류단체 연수 현황	35
[표 3-6] 2013년도 광역자치별 수출금액	36
[표 3-7] 2013년도 기초자치별 수출금액	37
[표 3-8] 충남도의 수출 현황 및 비중	38
[표 3-9] 연도별 충남 대중국 수출입 비중	40
[표 3-10] 충남의 지역별 교역현황(2013)	41
[표 3-11] 충남의 5대 수출품 변화 동향(2003-2013)	42
[표 3-12] 시군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43
[표 3-13] 지자체 차원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현황	46
[표 3-14] 지자체 지원 및 중재로 인한 민간단체 교류 협력 현황	47
[표 3-15] 중국교류협력 전담 인력 현황	48
[표 3-16] 지자체별 대표적인 정책 반영 사례 요약	50
[표 3-17]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주요 성과	51
[표 3-18] 대중국 교류 협력 업무 인력 충당 방법	52
[표 3-19] 대중국 교류 시 확대 될 분야와 이유	54
[표 3-20]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 요약	57
[표 3-21] 최근 중국, 한국, 논산 유교문화의 변화 기류	68
[표 4-1] 충남도민 대상 설문조사 일반 현황	75
[표 5-1] 허베이성 각급도시 GDP 및 1인당 GDP 현황(2013)	102
[표 5-2] 충남도-허베이성 간 교류 현황(2013년 말 기준)	103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9
[그림 2-1] 각 시도별 대중국 교류 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19
[그림 2-2]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추이	28
[그림 3-1] 전국 광역자치별 수출 현황(2013)	36
[그림 3-2] 충남의 주요 수출국 변화 동향	39
[그림 3-4] 충남 전체 교역액 대비 대중국 교역액 비교	40
[그림 3-5] 충남 지역별 교역 비중	42
[그림 3-6]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44
[그림 3-7] 중국교류협력에 대한 관심 이유	44
[그림 3-8]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차원의 초청 및 방문 현황	45
[그림 3-9] 중국교류협력 추진 시 도움 받는 기관	48
[그림 3-10] 중국 부상이 미치는 영향	49
[그림 3-11] 중국 부상 정책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49
[그림 3-12] 대중국 교류 협력 업무 시 가장 큰 애로사항	50
[그림 3-13] 대중국 교류협력 성과에 대한 인식	51
[그림 3-14] 대중국 교류협력의 투입 인력과 예산 현황 인식도	52
[그림 3-15] 향후 중국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53
[그림 3-16]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계획 및 전망	53
[그림 3-17] 대중국 교류 시 확대 될 분야	54
[그림 3-18] 대중국 교류 시 필요 분야 필요한 부분	55
[그림 3-19] 대중국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55
[그림 3-20] 협의체 구성시 운영 주체	56
[그림 3-21] 서산시 대산항과 산동성 룡청시 룡옌항의 직선거리도	64
[그림 4-1] 중국 방문 경험 여부	76
[그림 4-2] 중국 방문 목적	76
[그림 4-3] 중국에 대한 관심 정도	76
[그림 4-4] 중국에 대한 관심 이유	77
[그림 4-5] 중국 관심 분야	77
[그림 4-6] 중국어 학습 여부	77
[그림 4-7]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의지	78
[그림 4-8] 중국의 경제부상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78
[그림 4-9]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	78
[그림 4-10] 중국에 관한 이해와 정보습득 방법	79
[그림 4-11]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여부	79

[그림 4-12]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하는 분야	79
[그림 4-13]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	80
[그림 4-14]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충남도와 타시도 비교 인식도	80
[그림 4-15]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강점	80
[그림 4-16]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약점	81
[그림 4-17]	충남도의 대중국협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여부	81
[그림 4-18]	대중국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82
[그림 4-19]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전망	82
[그림 4-20]	향후 중국이 충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83
[그림 4-21]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83
[그림 4-22]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할 분야	83
[그림 4-23]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	84
[그림 4-24]	대중국 교류협력 시 중국 지역 선호도	84
[그림 4-25]	대중국 교류협력 거점 기지 구축시 가장 우선시 될 분야	85
[그림 4-26]	충남도 국제교류협력 전담기관 설치 동의 여부	85
[그림 4-27]	국제교류협력 기관 설치시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85
[그림 5-1]	허베이성의 개황 및 위치도	101
[그림 5-2]	허베이성 주요 항일 유적지	105
[그림 5-3]	허베이성 한단시 황베이평촌의 4인 열사의 묘지	107
[그림 5-4]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3농'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 방향의 예	108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이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 차원이든 지방정부 차원이든 우리가 중국과 왜 교류해야 하고 중국과의 교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의 외교전략 전문가인 마틴 자크(Martin Jacques)는 그의 저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 하면』이라는 책에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유럽인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를 빨리 받아들여야 하며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포겔(Robert W. Fogel)은 그의 논문 「2040, 중국이 다시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에서 2040년에는 중국의 1인당 평균수입은 85,000달러로 유럽연합과 일본보다 높으며 전세계 GDP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예상돼 미국의 14%, 유럽연합의 5%보다 훨씬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의 교역량은 미국을 추월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구매력지수가 미국을 앞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제적 패권이 점점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에서도 이미 중국은 슈퍼파워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국제외교 정세는 중국의 등장으로 양쪽으로 재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와 FTA를 추진하며 경제 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와는 경제원조와 협력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영향을 약화시켰으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체계의 공고화를 통해 러시아, 인도, 브라질(중남미)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북핵문제와 한반도평화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충남도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외적인 측면이다. 최근 국제질서가 기존 미국 중심의 일극체계에서 중국, EU 등으로 다극화되는 한편,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세방화: Glocalization)되고 세계경제권이 지역단위로 블록화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원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외교의 한계로 인해 지방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충남도 공공외교의 목표와 전략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당연히 중국이다. 중국 경제는 201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G2로 부상했고 향후 2020년에서 2030년 사이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G1로의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G1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을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량 가운데 대중국 교역량은 약 27%(2013년 기준)로 미국, 일본의 합계보다 많다. 더욱이 현재 한국과 중국 정부 간에 추진 중인 FTA가 어떤 식으로든 타결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 중국은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과 장래 한반도의 평화통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의장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한국과 함께 경계하고 있다. 최근 독도와 위안부문제 등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부정에 대해 양국 간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을 강화해야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잘 설명될 수 있다. 충남도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소외를 받아왔다. 그러다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성되고 있고 충남도 자체적으로도 균형발전과 환황해경제권을 겨냥해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도내 전반에 큰 변화와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충남도의 대중국 경제통상이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량 비중은 전체의 46%(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의 수치인 2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충남도는 최근

도의 발전축을 중국을 겨냥해 서해안 쪽으로 이동시키는 “서해안비전”¹⁾을 제시하고 서해안 항만건설 확대와 환황해권을 포괄하는 물류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그동안 인천, 경기는 물론 전남북이 제시한 전략보다도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정책은 아직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한 교류 협력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고 ‘서해안비전’의 핵심대상지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구체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전략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정세가 급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적인 측면에서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두 정부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한중인민공동교류위원회」(2013. 11, 지방자치단체도 참여)가 구성되는 등 새로운 차원의 한중 교류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충남도는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류협력 방안의 하나인 서해안비전을 제시하고 충남도의 정책 방향을 ‘農道에서 海道’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정부 간 교류협력에 기반해 충남도의 역사·지리·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대중국 교류협력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요청되고 있다.²⁾

1) 2014년 초에 수립된 충남도 “서해안비전” 구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목표로 한다. 첫째는 경제적 측면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경제의 급부상에 대응하고, 둘째는 지속가능성 측면으로 신해양시대의 도래, 해양자원의 중요성 부각, 지구온난화, 환경과피 등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셋째는 문화적 측면으로 과거 해외문물의 교류 거점이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충남도의 새로운 국제적 교역과 문화교류 중대이다(한상욱, 2014). 이 가운데에서도 환황해권 교류 및 교역을 위한 대중국 교역의 거점지대 추진은 가장 핵심 전략이다.

2) 현재,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전남, 전북, 경남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중국 연구도 앞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한국과 중국 간 교류협력 속에서 충남도의 위상을 설정한다.

둘째, 중국의 부상이 충남도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충남도와 각 시군별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와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넷째,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 수준과 태도 그리고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파악해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충남도 차원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둘째,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현황 및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분석, 셋째, 충남도 및 각 시·군·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분석, 넷째, 충남도민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태도 및 방향 분석, 마지막으로 충남도 특색의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 등으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자치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대중국 교류협력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경험과 성과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 특히 대중국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런 다음 현재 타 지자체 연구기관의 대중국 교류협력 연구 동향 및 주요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설정한다.

(2)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류협력의 발전 과정 및 성과와 최근 동향을 간략하게 고찰한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정책과 사례를 분석해 충남도 교류협력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충남도 및 각 시·군·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분석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년 후인 1994년에 충남도는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적

으로 교류협력을 실시해왔으며 올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했다. 허베이성뿐만 아니라 산둥성, 랴오닝성, 장쑤성, 윈난성, 옌벤자치구 등 많은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해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충남도 산하 15개 시군 또한 중국의 각급 시정부 및 현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고찰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충남도민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태도 및 방향 분석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 설정에서 충남도민의 인식 실태 및 의견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대중국 교류협력이 지방정부의 지도자와 공공기관 중심이었고 대부분 통상부분에 치우친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충남도정의 최종 목표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도민들의 의견은 중요하다. 따라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민간중심의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충남도 특색의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프로그램 제시

충남지역은 옛 백제의 본토로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중국과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져왔다.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등은 해상을 통한 교류의 역사가 있고 공주와 부여는 교류와 침략의 역사가 교차했다. 홍성과 예산 출신의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으며, 논산지역은 우리나라 기호유학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서 천안과 아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반도체의 수출기지로 대중국 수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의 각 지역은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중국과 다양한 교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대중국 교류협력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대중국 연구 자료 입수 및 고찰하고 대중국 교류협력 관련 각종 통계자료 분석
- 경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등 대중국 교류협력 연구에서 앞서가고 있는 시도연구원들의 관련 보고서 입수 및 구찰
-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자료와 통계데이터 입수 및 분석

– 조사기간 : 2014년 2~4월

(2) 전문가 자문회의

-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의 활성화의 방향 및 전략수립을 위해 중국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개최
- 자문 기간 : 2014년 4월

(3) 국제교류 담당자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

- 각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국제교류(중국) 담당자와의 FGI 실시
- 조사 규모 : 총 7명(대중국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한 시군 담당자)
- 조사 시기 : 2014년 5월

(4) 설문조사

- 충남도 각 시군 국제교류 현황 및 의견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 조사 대상 : 충남도 15개 시군 국제교류(중국) 담당 공무원
- 조사 시기 : 2014년 4월
- 조사 방법 : 설문지 작성 후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후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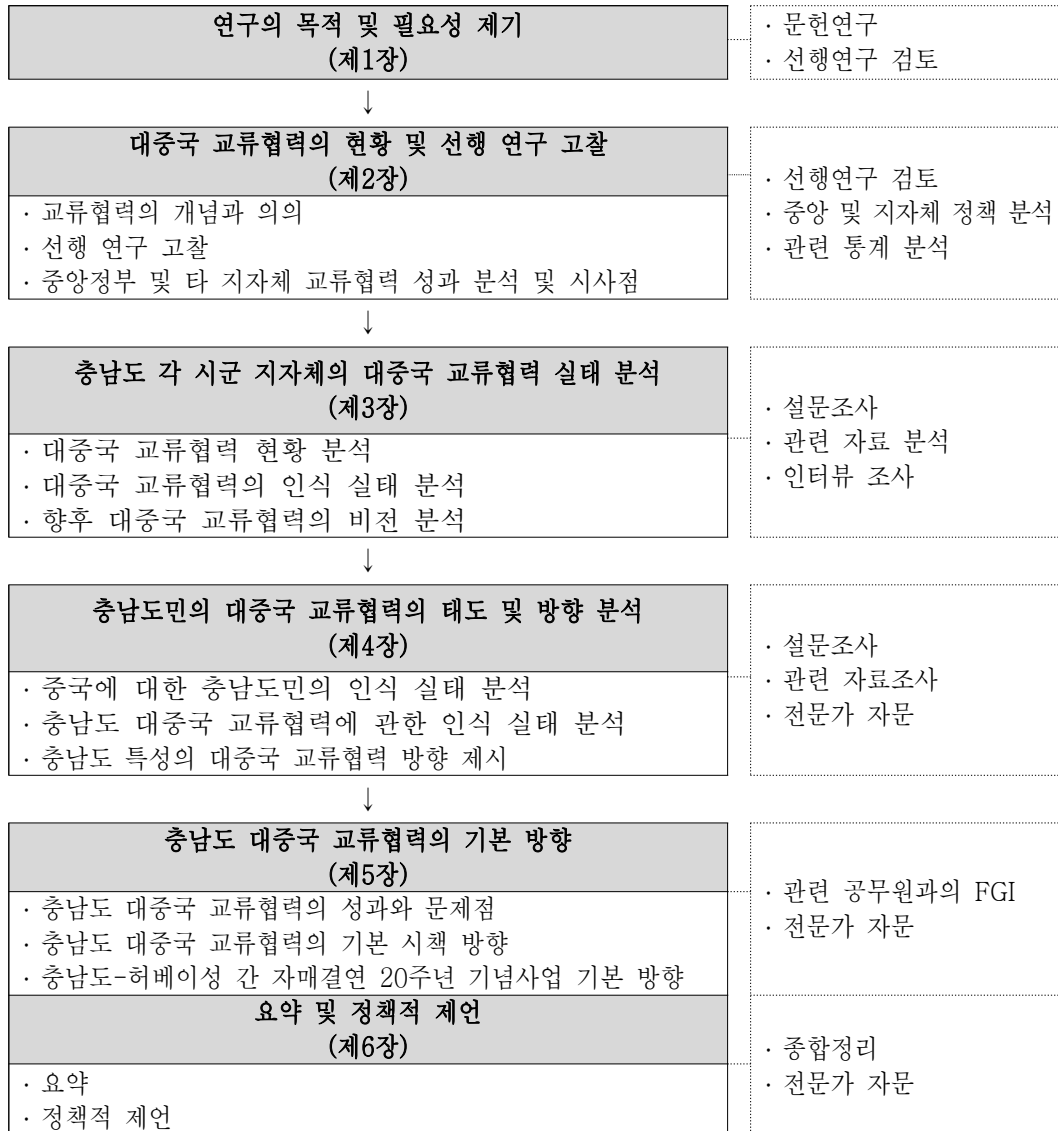
- 주요 조사 내용 : ①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② 대중국 교류협력의 인식 실태, ③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의 비전
-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도민 의견조사
 - 조사 대상 : 성인 이상의 충남도민
 - 조사 규모 : 677명(지역별 분배)
 - 조사 시기 : 2014년 5월
 - 조사 방법 : 설문지 작성 후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
 - 주요 조사 내용 : ① 중국에 대한 개인의 인식 실태, ②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실태, ③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비전, ④ 개인 현황

(5) 심층인터뷰 조사 및 회의 참석

- 충남도청 경제통상실 대중국 교류협력 담당자,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담당자와의 수시 인터뷰 및 관련 학회와 세미나 참석
 - 조사 시기 : 전 기간

4.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기부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까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선행연구 및 한중 교류협력의 현황

1. 선행연구 분석

1) 전반적인 교류협력 분야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치와 분권이 점차 확대되고 이후 개방의 시대를 맞아 지자체에서도 세계화와 국제화의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가 체결된 이후 한중 양국의 지방정부 간에 다양한 종류의 협력관계가 체결되었고 다양한 교류협력이 진행됐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중국 교류협력의 공과를 되짚어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철홍(2002)은 “한중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와 중국 광저우시 교류사례 연구”에서 두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는 시민참여형 국제교류 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역국제화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구성과 <민간교류친선협의회(가칭)>와 같은 민·관협력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는 역시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양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품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과 상품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양 도시 간 국제교류와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정보개발 축적 보급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했다. 특히, 고대부터 이루어진 양 지역 교류 역사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의 정례적 개최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기존의 경제교류 이외에 문화 예술 교류 및 체육교류,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대책이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중호 외(2011)는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방안”연구에서 경기도의 대 중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4대 전략(쌍방향 맞춤형의 실용화, 지역별 거점화, 미래지향적 다원화, 추진거버넌스의 체계화)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2) 경제 교류협력 분야

이상과 같이 큰 틀에서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역시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이 분야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조응래·이수행(2005)의 “경기도와 산둥성 간의 물류협력 방안”에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 경기도와 산둥성 간의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및 직항로의 개설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성호 외(2011)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산둥성의 역할 비교” 연구에서 경기도 광고 테크노밸리와 산둥성 남색경제구 간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및 경기도의 지역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폭적 개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국의 경우에는 토지가 국가 소유이므로 대토(代土)를 해주거나 토지사용료를 보상해 줌으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 경기도의 개발속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셋째, 중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역경제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용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중국은 부가가치세가 ‘공동세’로 편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관할 구역 내 주요 입지기업 및 시설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섯째, 산둥성의 남색경제구 건설사업의 경우에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산둥성 정부는 물론 사회과학원, 산둥대학, 중국해양대학교 등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중국 산둥성의 남색경제구 발전 계획의 특성을 분석에 경기도의 대중국 경제교류의 발전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3) 관광 및 문화산업 교류협력 분야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 못지않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분야가 관광 및 문화산업 분야이다. 하지만 초창기 관광 및 문화산업은 주로 서울 중심의 중앙정부 단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이후 2000년대를 전후로 중국 내에서 한류가 유행하면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들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지자체에서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매진했다. 이정훈 등(2005)은 “한중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교류 프로그램 구축 연구: 경기도와 산둥성을 중심으로”에서 경기도와 산둥성 간 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기존 시장 확장,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특수목적관광교류를 우선 활성화하고, 둘째, 중국인들이 선호하며, 시장 창출과 재방문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셋째, 관광교류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네트워킹,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이수행 등(2007)은 “경기도와 산둥성의 문화산업 협력방안” 연구에서 양 지역 간 문화산업 협력방안의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1) 경기-산동 문화산업 참가단 교류사업, 2) 문화산업의 문화교류 행사 사업 추진, 3) 창작리소스 공동개발 사업 지원, 4)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지원 및 교류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조창완(2007)은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방안”에서 광주전남지역 관광객 유치전략 기본방향으로 외국인(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실 인식의 전환, 민간교류와 공공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광주관광 이미지의 차별성 부각 등을 제시했다. 기타 지역 연구로는 전북지역의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김형오(2011)의 연구, 경남 지역의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김한도(2011)의 연구, 부산지역의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정우 외(2010)의 연구가 있다.

최근 관광교류협력의 연구 중에는 중국의 부유층을 타겟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부유층이 늘어나고 한류와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김홍식(2011)은 “중국 신흥부유층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연구에서 베이징 거주민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중국 관광시장에 대한 현황 및 추이 분석, 언론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 중국 신흥부유층 관광객 유치 현황 분석과 관광행태적 특성을 검토했다. 또한, 시장세분화를 통해 ‘의료관광객, 신흥부부, 골드미스, 골드실버, 나홀로족, 아웃도어 마니아’로 표적시장을 설정하

고, 경기도를 가까운 거리와 저렴한 여행상품으로 오는 여행지가 아닌 ‘근거리에 위치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고급 관광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4) 지역-국가-국가 간 교류협력 분야

최근 들어 한중 양국의 국가 및 지역 간 교류협력이 단선적 1:1의 교류협력을 넘어서 초국경, 초지역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황해권 발전을 위해서 양국은 물론 양국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다. 이는 항만과 물류 등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평화체계의 구축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상준 외(2010)는 “동북아 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연구에서 중국의 환발해권 개발은 한반도 서해안권의 산업 및 물류부문 발전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응한 우리의 산업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류측면에서는 동북3성의 철도 및 고속도로망 개발과 환보하이 및 장강삼각주의 항만개발계획 등에 대응한 우리의 물류망 구축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 동북3성지역의 개발 확대가 북한의 산업 및 인프라 개발에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중 간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초국가, 초지역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가 간 교류 중심에서 자칫 소멸될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오성동(2007)은 “한중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국가 수준의 국제교류와는 다른 다음의 몇 가지 의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가 수준에서 이해나 대립을 초월해서 인간 대 인간의 민간교류로서 국제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를 자극해서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과 변혁을 가져다준다. 셋째,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국제인식과 국제 이해를 환기시킨다. 넷째, 지방자치 간 국제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교류 수준을 이해하고, 동시에 지역사회를 국제사회에 주지시키고 심화함으로써 지역의 국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추진 성과

1)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국가 또는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의 기본적인 형식은 협정의 체결이다. 보통 국가 단위에서는 수교를 체결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체결한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교류협력의 대상이 다변화될수록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의 위상이 점차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수교를 통한 국가 간 교류협력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대상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1993년 중국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그 후 산둥성, 장쑤성, 윈난성 등 8개 지방정부와 우호협력을 맺고 교류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지자체의 위세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권한이 크지 않는 특징이 있지만 지자체의 자치와 권한이 강화될수록 국제교류협력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의 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14년 5월 현재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은 총 73개국 1,062개 도시, 1350건에 이르는데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543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광역 및 기초자치체 국제교류건 수의 40.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한 점을 감안한다면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대중국 교류협력의 체결 현황을 보면 다음 <표2-1>과 같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 가운데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랴오닝성, 광둥성, 허베이성, 산둥성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중국과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협력이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산둥성과는 매년 상호방문을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외, 두 곳 이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 인천, 울산, 충북, 전남이고 나머지는 1곳과 자매결연 상태이다. 다음으로 우호교류 협정 체결 현황을 보면, 충남과 전남이 8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이 6곳, 서울이 5곳 순으로 나타났고, 경북은 1곳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은 24곳, 우호교류 협정 체결은 63곳으로 전체 87곳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대중 교류협력 체결 가운데 자매결연 체결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29곳과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7곳, 전남과 전북이 14곳, 부산이 13곳, 충남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2곳, 울산은 1곳으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호교류 협력 체결을 보면, 경기도가 4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강원, 전남이 26곳이었으며, 다음으로 경북 23곳, 인천 22곳, 충남 21곳 순이었으며 대전과 제주는 3곳으로 저조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남, 강원, 강원,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한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국지방교류 현황

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교류 건수 합계
	자매결연	우호교류	소계	자매결연	우호교류	소계	
서울	1	5	6	29	26	55	61
부산	1	3	4	13	15	28	32
대구	2	3	5	2	7	9	14
인천	2	6	8	4	22	26	34
광주	1	4	10	3	7	5	15
대전	1	4	5	5	3	8	13
울산	2	2	4	1	9	10	14
경기	4	2	6	28	40	68	74
강원	1	4	5	10	26	36	41
충북	2	5	7	5	14	19	26
충남	1	8	9	11	21	32	41
전북	1	3	4	10	19	29	33
전남	2	8	10	14	26	40	50
경북	1	1	2	14	23	37	39
경남	1	3	4	17	18	35	39
제주	1	2	3	7	3	10	13
합계(16)	24	63	87	173	279	447	539

출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 자료 (2014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시기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 체결 추이를 보면, 수교 당해 연도에서 1995년까지는 57건이었지만 이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136건이 체결되었고, 2001년에서 2005년까지는 가장 많은 149건이 체결되었다. 이후에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2006년에서 2010년까지는 135건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부터 최근 까지는 62건이 체결

되었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체결 건수가 낮아진 이유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한 요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16건이 체결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5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기간별 한국 중국 지방정부간 교류현황

지역	1992-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0-2014	합계
서울	13	20	9	14	5	61
부산	5	10	7	7	3	32
대구	3	1	7	2	1	14
인천	4	11	9	6	4	34
광주	1	4	2	3	5	15
대전	2	3	4	3	1	13
울산	1	1	8	3	1	14
경기	7	17	26	18	6	74
강원	4	7	11	12	7	41
충북	0	6	7	10	3	26
충남	3	7	16	10	5	41
전북	2	8	8	9	6	33
전남	5	15	15	11	4	50
경북	3	8	9	12	7	39
경남	2	11	9	13	4	39
제주	2	7	2	2	0	13
합계(16)	57	136	149	135	62	539

출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 자료 (2014년 5월 기준)

위와 같이 총 539건의 협력 체결 못지않게 지방정부 간 인적교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한국은 충북 단양군 등 24개 기초 지자체에서 중국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방정부에서는 28명이 우리나라에 와 체류 중이다(2013년 4월 기준). 이는 일본이 16명을 파견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이다.³⁾ 한국의 11개 광역 자치단체도 21명의 주재관을 파견했다.⁴⁾ 충남도는 상하이에 주재관이 한 명 파견된 상태이다.

3)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상호 교류는 경제 통상 분야 외에 다양해지고 있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 구례군은 2001년 안후이(安徽) 성 츠저우(池州) 시에 농촌지도사를 파견해 오이 재배 기술을 전해 준 바 있다. 국내 지자체가 중국과 벌이는 합작 프로젝트의 분야와 항목도 크게 다양해지고 있다. 2002년 문을 열었으나 승객이 없어 한때 '유령 공항'이라고까지 불렸던 양양국제공항은 중국 관광객 증가로 회생의 길로 들어섰다. 강원도가 중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해 항공 노선을 여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 것이 큰 기반이 됐다고 한다(동아일보 2013년 4월 1일자 보도).

4) 동아일보 2013년 4월 1일자 보도.

2) 지자체별 주요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현황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비록 수교는 늦었지만 그동안 교류협력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고 그 범위 또한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이고 한류를 비롯한 관광과 문화교류, 학생 및 민간단체 간 교류, 스포츠교류 등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관광과 테마관광이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중국기업(자본)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지자체의 대형 프로젝트에는 중국자본의 직간접인 투자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2013년 4월 1일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은 최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차이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프로젝트’가 전부 다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지만 설령 실현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양국 수도 자매결연 20주년(2013년) 기념 주간행사를 전개했으며 서울지하철에 중국어 이름을 처음으로 전면적인 병기를 시작했다.⁵⁾

(2) 부산

칭다오(칭다오) 등 산둥성 4개 항만과 ‘4+1 전략적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3) 대구

영파(닝보)와 섬유, 패션, 디자인,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 등 유사업종 교류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4) 인천

도하지구 ‘중국중소상품판매단지’조성 계획이 있으며 영종도 이단시티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5) 특히 서울시는 베이징시와 문화방면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데 2013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시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베이징의 국가대극원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문화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광주

중국 건국 100대 인물 중의 한 명이며 사회주의 항일독립가이자 중국의 3대 현대음악가인 정 율성을 추모하는 음악제 등에 중국 인사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광주에 정율성거리를 조성했다.

(6) 대전

‘세계조리사대회’와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등에 중국 지자체 대표단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7) 울산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에서 중국 자본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8) 경기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중국 항구’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산둥성과의 대학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미 산둥성에 경기도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산둥성과의 교류협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⁶⁾

(9) 강원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중국 도시와의 항공노선을 확대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속초-러시아 지루비노-중국 훈춘 간 해상항로를 재개할 계획이다.

(10) 충북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중국관광객 유치 이외 아직까지 특이할만한 대중국 프로젝트가 없다.

(11) 충남

당진항과 서산항의 항만기능 강화를 통해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과의 항로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12) 전북

새만금 한중 복합산업단지 조성권 중화권 특화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6)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 아산 등에 걸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 핵심 목표 중 하나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27개 대학과 도가 ‘대학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구성해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 10월에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산둥(山東) 성 정부와 대학 박람회를 개최해 경기도와 산둥 성의 대학이 양방향으로 대학생을 유치하는 행사를 연다(동아일보 2013년 4월 1일자 보도).

(13) 전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에 중국자본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14)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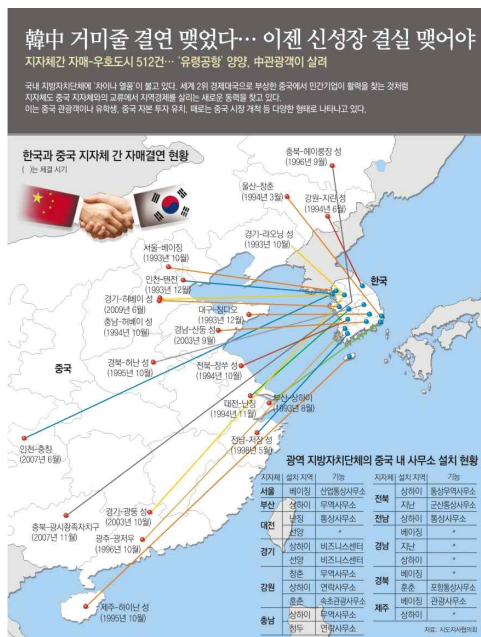
코리아 실크로드 협력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중국의 사회주의신농촌건설과 연계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5) 경남

중국 자본을 유치해 도내 일원에 90만 평 규모의 사파리 야생동물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16) 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상하이녹지집단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림 2-1] 각 시도별 대중국 교류 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출처: 동아일보 2013년 4월 1일자)

3. 주요 지자체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 성과

1)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 현황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1993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한 이후, 광둥성, 허베이성, 산둥성 등 4지역과 자매결연인 상태이다. 또한 텐진시와 장쑤성 등 두 지역과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중국의 9개 성 26개 시·현과 자매결연인 상태이고 13개 성 36개 시·현과는 우호협력 상태이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경기도는 2000년 산둥성과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2009년 다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의 폭과 내용을 확대했다. 공자의 도시이자 한중교류의 메카인 산둥성을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공략한 이유는 경제적 실리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의 위상을 보면 베이징시를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이 더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나 경기도는 내륙보다는 산둥성을 비롯 연해안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경기도의 대중국 지역별 교류협력사업

지역	교류형태	지역 특징	교류 내용
랴오닝성	자매결연(1993)	철강/농업, 북한접경지역	3지역 우호교류회의 농업기술연수
산둥성	우호협력(2000) 자매결연(2009)	공자의 도시 한중교류의 메카	경기-산둥 도시연합 경제대표단 방문
광둥성	자매결연(2003)	중국경제성장의 엔진	전통정원 조성 기업인 상호 연수
텐진시	우호협력(2008)	미래 중국경제의 신동력	경기도시공사-빈하이신구관리위 공무원 스포츠 교류
허베이성	자매결연(2009)	중국의 '경기도'	경기관광공사-허베이TV 농업기술교류
장쑤성	우호협력(2011)	중국 내 지역경쟁력 1위	시흥 남양주 등과 청소년 교류

자료: 신종호 외, 2012.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방안. 경기개발연구원.

7) <http://news.donga.com/InfoGraphics/View/3/all/20130401/54105461/9>

경기도는 그동안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경험을 발판으로 2012년 대중국 교류협력의 강화의 방향과 단계별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을 크게 4대 방향(실용화, 거점화, 다원화, 체계화)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단계 이행과제로 지방정부 간 유사 분야 매칭, 경기비즈니스센터(GBC) 기능 조정과 자매도시 간 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청소년 교류의 허브화와 관광교류 활성화, 대중국 교류협력 전담부서 설치와 도와 각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2단계인 중장기 이행 과제로 실용화 부문에서는 산·학·연 연계 중국연구시스템 구축과 도내 중국인 관리방안 마련, 거점화 부문에서는 지방정부 간 ‘전략대회’ 개최 및 중국 중서부 지역에 GBC 설치, 다원화 부문에서는 민간 참여 확대 지원,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 방안 수립, ODA를 통한 경기도 브랜드가치 제고를 제시했고, 마지막 체계화 부문에서는 ‘경기국제교류재단’(가칭)의 설립과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가 양성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이처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는 지역적 배경도 있겠지만 지도자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산둥성 간 매년 한 차례씩 상호방문 시 단체장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4] 경기도 대중국 교류협력 로드맵

구분		1단계(단기) 이행 과제	2단계(중장기) 이행 과제
4대	실용화	◦ 지방정부 간 유사분야 매칭	◦ ‘산·학·연’ 연계 중국연구시스템 구축 ◦ 도내 중국인 관리방안 마련(inbound)
	거점화	◦ 경기비즈니스센터(GBC) 기능 조정 ◦ 자매도시 간 기업인 네트워크 구축	◦ 지방정부 간 ‘전략대회’ 개최 ◦ 중국 중서부 지역에 GBC 설치
	다원화	◦ 한중일 청소년 교류의 허브화 ◦ 관광교류 활성화	◦ 민간 참여 확대 지원 ◦ 대중국 공공외교 강화 방안 수립 ◦ ODA를 통한 경기도 브랜드가치 제고
	체계화	◦ 대중국 교류협력 전담부서 설치 ◦ 도·31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	◦ ‘경기국제교류재단’ (가칭) 설립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전문가 양성

자료: 신중호 외, 2012,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방안, 경기개발연구원. p.104.

2) 인천광역시-톈진시(天津市) 자매결연 20주년 추진 현황⁸⁾

서해안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 교류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 해온 인천시는 한중 수교 이후 가까운 톈진과 랴오닝성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 위상이 비슷한 중국 톈진시와는 긴밀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13년 인천시-톈진시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시에서는 2010년 2월 18명으로 구성된 중국교류 T/F팀을 만들고 인천시-톈진시 자매결연 20주년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인천시는 2012년 9월에 「기념교류 사업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은 2012년 11월 「인천의 대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강화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사전준비를 통해 양 도시 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는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시-톈진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주요 교류협력 사업

- 20주년 기념 축하서한문 상호 교환: 2013. 1
- 공무원 상호 파견 대상자 선정 및 파견: 2013. 3
- 인천-톈진 크루즈 출항 기념행사 참가: 2013. 5. 1
- 인천 중국주간 행사 톈진시 대표단 방인: 2013. 5. 2
-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정상 접견 및 20주년 선언문 체결: 2013. 6. 12
- 인천시장 톈진시 방문 20주년 기념 문화행사(仁川周) 개최: 2013. 9. 1 ~ 9. 3

② 기타 교류협력사업

- 인천 중구-톈진 하북구 우호도시 MOU 체결: 2013. 1. 22
- 인천-톈진 전문의료기관(각 7개) 협정 체결 및 세미나 개최: 2013. 5. 4
- 인천-톈진 사진작가협회 사진전시회: 2013. 5. 28
- 톈진 유학생 팸투어: 2013. 10. 3

8) 김수환, 2014, “한중교류의 새로운 방식, 인문유대와 도시교류: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기획 세미나, 한국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방안, 2014. 1. 28 발표 내용.

- 인천발전연구원 <텐진포럼> 참가: 2013. 10. 25
- 한국노총 인천지회-텐진공회 교류: 2013. 11
- 초.중등학교 상호 홈스테이: 10객, 연중

최근 인천시는 인천-텐진 2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에 기초하여 2013년부터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중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문도시인 인천과 텐진은 양국 최초의 개항도시라는 역사성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등 동북아 미래발전의 선도 도시라는 위상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한중 관문도시, 인천-텐진의 개항문화와 인문유대’를 테마로 하여 두 도시의 개항 역사문화(과거) 그리고 두 도시에 남아있는 근대 조계지 유적을 이용한 도시마케팅 경험과 시책 비교를 통해 한중 교류 내실화와 동북아 발전(미래)을 탐색하고 있다.

4. 지방정부 국제교류와 새로운 변화

1)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추진 과정 및 유형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선 시기는 1990년대 중반 경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를 화두로 던지며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도 국제교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 첫 번째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이었다. 수출주도형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농업부분 등 일부 영역에서는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 개방이라는 선진국들의 압력 앞에 무역장벽은 무너졌다. 이는 국가 주도형의 상품, 노동력, 서비스, 자본, 기술 등이 국경을 넘어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 가운데서도 농산물의 개방은 지방정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상품의 세계화라는 현실에 직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도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모든 권한이 종속되었기 때문에 정책활동의 폭이 제한되었다. 특히 국방을 포함해 외교의 영역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외교활동은 극히 저조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정부는 국내의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만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외부의 자본투자자와 자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지방의 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팔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의 자본(기업) 유치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책임자들도 외국을 돌며 자본과 기업의 유치에 경주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의 ‘국제화’도 점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세 번째는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이다. 사실 그전에도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 수교를 했지만 지방정부에 큰 영향은 주지 않았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그곳에 수출할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도 몇 곳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선진국인 일본에 국산 물건을 파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일제식민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생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류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과의 수교는 다

른 나라와는 크게 달랐다. 일단 중국의 개방은 우리에게 큰 기회였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규모 중소기업들에게도 중국시장은 커다란 기회였기 때문에 수교와 함께 중국시장 진출은 봇물처럼 터져나갔다. 냉전시기 중국과는 이념의 문제로 반목과 갈등이 있었지만 중국이 사회주의시장주의라는 체제의 변화를 통해 이념적으로 유연성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동도 빠르게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중국과는 역사적인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추동이 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본격적인 추진돼 현재까지 약 20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국제교류는 질적인 변화도 진행됐다. 당초 경제교류에서 현재는 자매결연, 행정교류, 인적교류, 문화예술교류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표 2-5]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유형

교류 분야	교류 내용
자매결연	□ 인적·물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간에 맺는 형제(자매) 관계
행정교류	□ 대표단 상호방문, 행정 교류, 교류 10주년 기념식 등
인적교류	□ 공무원(상호) 파견, 공무원 연수,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 대학생 교류 등
문화예술교류	□ 축제 참가, 예술단 공연, 바둑·서예 교류전, 미술전시회, 한복패션쇼 등
관광교류	□ 관광물산전, 수학여행, 의료관광 유치 등
청소년교류	□ 홈스테이, 수학여행, 청소년 스포츠교류, 어학연수, 국제인턴십 등
스포츠교류	□ 친선축구대회, 친선야구대회, 국제육상대회 등
기술·학술교류	□ 행정관련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농업기술 연수, 산업관련 연수 등
경제교류	□ 경제협정 체결, 시장개척단 파견, 경제상담회, 투자설명회 등
민간단체교류	□ 예술협회·의사회 등 민간단체 간 교류, 대학생 교류사업 등
상징사업	□ 공원조성, 거리 명명식, 자매도시 전시관 개관, 명예시민증 수여 등
기타	□ 의료봉사, 성금전달, 원조, 동물기증 등

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 공공외교 등장과 지방정부의 대응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교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외교’와 ‘인문교류’의 등장이다. 지난해 외교부에서 나온 「2013년 업무보고」에는 양국 신정부 출범에 따

라 한중 수교 20주년을 넘어서 향후 2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며, 대중국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담겨져 있다. 이에 기초하여 외교부는 주요 추진과제로, 정치·안보 협력 강화, 비전 채택, 3000억불 교역시대와 지방교류 협력확대, 인문유대 강화 및 공공외교 확대, 민감 현안 관리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신뢰에 기반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도모를 표방했다.⁹⁾

여기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즉, 정부 간 소통과 협상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재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신공공외교가 등장하면서 문화와 예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을 통해 상대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프트파워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⁰⁾ 즉, 기존 외교가 국가 간 외교협정을 통해 통상과 정치력에서 영향을 주려는 하드파워가 주된 목적이라면 새로운 공공외교는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시공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상대국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그동안 외교는 중앙정부의 전유물이었지만 새로운 공공외교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ODA(공적원조)는 물론이고 문화예술, 스포츠교류, 민간교류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9) 김수환(2013). 한·중 교류의 새로운 방식: 인문유대와 도시 간 국제협력, 韓中社會科學研究 제11권 제4호(통권 29호), p. 266.

10) 외교부 공공외교 홈페이지(www.publicdiplomacy.go.kr) 참고.

[표 2-6] 국제교류의 변화 흐름

외교의 요소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
대상	상대국 정부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은 불포함)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도 포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매체	정부간 공식협상, 대화	선전, PR캠페인, 구미미디어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관계유형	수평적 (정부간)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소통의 양식	Closed Negotiation	Closed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출처: 외교부 공공외교 홈페이지(www.publicdiplomacy.go.kr)

3) 최근 한중 간 교류협력의 변화 추세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정부와 함께 양국의 외교부 차관이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2014년 「한중 인문교류 인문 테마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그동안 양국 간 교류가 경제 통상교류에 치우친 점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통상관계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교 이후 20년간(1992-2012)의 교역 규모는 첫 해 64억 달러에서 20년 후 21,151억 달러로 약 34배가 증가했고 상호 인적교류도 같은 기간 13만 명에서 691만 명으로 53배가 증가했다. 현재 중국내 진출한 한국기업은 2.2만여 개에 달하고 재중한 국인 수는 65만 명에 달한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이 제1의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중국은 한국이 제4의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2년 기준으로 134,331백만 달러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일본, 홍콩을 합한 것보다 많은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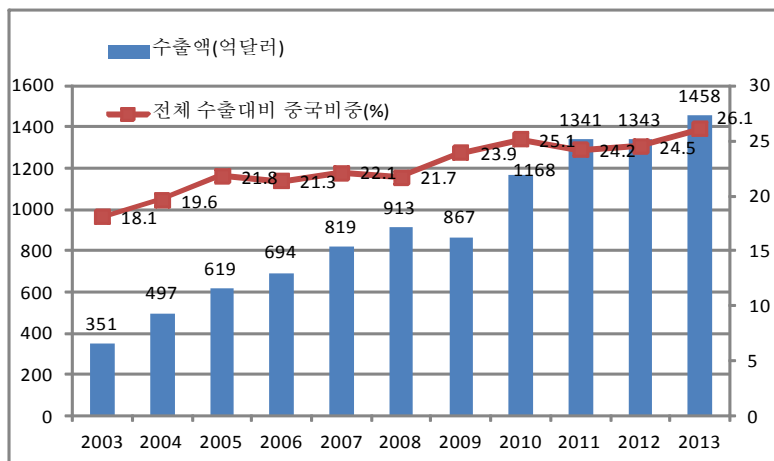
[표 2-7]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	134,331	24.5
2	미국	58,524	10.7
3	일본	38,850	7.1
4	홍콩	32,609	5.9
5	싱가포르	22,892	4.2
6	베트남	15,954	2.9
7	대만	14,189	2.7
8	인도네시아	13,946	2.5
9	인도	11,921	2.2
10	러시아	11,099	2.0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2

이러한 대중국 수출비중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그림2-2>와 같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추이를 보면, 2003년 351억 달러로 전체 수출비중 가운데 18.1%를 차지했으나 10년 후인 2013년에는 1,458억 달러로 전체 수출비중 가운데 25.1%를 차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FTA 협상이 만일 타결된다면 우리나라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추이

자료: 산업자원부

이처럼 경제통상 부문에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양국 간에는 정치·사회·문화역사적인 측면에서 종종 마찰을 빚어왔다. 양국 간의 가장 큰 특징은 체제가 다르다는 점이다. 냉전이 와해되고 개방화국제화가 촉진되고 있지만 양국은 크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기초로 한 공산주의를 모태로 국가를 성립했지만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돌아서면서 이념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개방노선에 따라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방문해 중국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된 국가이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경제적 실리는 중국에서 차지하면서 정치와 군사는 한마일이 연대하는 모습에 종종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문화역사문제에서도 종종 마찰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북공정과 단오제(단오절)문제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중국이 우리의 역사인 고구려를 중국으로 편입시키고 북한의 붕괴 등 유사시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이 개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간주하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신의 문화라고 생각해온 단오제를 한국이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시키면서 자신의 문화유산을 강탈당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에 대해 서로 각자의 재산권과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빚어지는 마찰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양국 간 상호이해 증진으로 교류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중 양국은 2013년 11월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동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수석대표는 양국의 외교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으며, 한국 측 위원으로는 외교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6개 기관이 참석하며, 중국 측은 외교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영역은 학술, 지방, 청소년, 체육, 언론 등 인문교류를 진행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한국 측 위원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식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외교에서 지방정부는 배제되어 왔지만 양국 간 교류위원회 기구에 지방정부가 정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간 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¹¹⁾

제3장 충남도 및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분석

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분석

충남도의 전체적인 국제교류협력사업에는 크게 국제교류사업과 통상지원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국제교류 부문에는 국제화역량 강화사업이 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 해외교류, 해외사무소 활동지원 등이 있고 국제교류협력사업에는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 활동, 국제네트워크 구축,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 국제민간교류 확대가 있다.

통상지원 부문에는 해외시장 개척이 있으며 여기에는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이 있으며 수출기반 구축에는 수출보험 지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운용,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등 충남도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있다.

예산 현황을 보면(2013년 기준), 해외시장 개척이 2,900백만 원으로 전체의 5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제화역량 강화사업이 1,921백만 원으로 33.9%를 차지했다. 그 외, 국제교류협력과 수출기반 구축은 각각 전체의 7.5%, 7.3%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지원과 공무원 해외 교류 및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고 민간교류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1) 공동교류위원회는 2013년 11월 출범을 갖고 2014년 첫 번째 사업으로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한중 정상회담 시 인문분야 유대 강화 합의(2013년 06월) 및 『한중인문교류공동위원회』 신설(2013. 11. 19)후 최초 추진사업
- 선정기준 및 대상: 자매결연/우호협력 관계가 있고 同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한중 지방정부 / 인문테마의 교류실적이 있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한중 지방정부 / <한중 인문교류 원년>을 감안하여 사업내용과 참여의지가 강한 한중 지방정부
- 주요 협력부처/기관 : 한중 외교부, 지방정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 예산지원 : 양 국 외교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인민대외우호 협회를 통해 선정된 지방정부에 일정 예산(국비) 지원

[표 3-1] 충남도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교류 종류	교류 내용	예산
국제 교류	국제화역량 강화	공무원 해외교류, 해외사무소 활동지원(상하이사무소, 구마모토 사무소, L.A.사무소)	1,921 (33.9)
	국제교류 협력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국제네트워크구축(K2H연수사업 운영, 시도 국제화지원 분담금),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농업전문가 및 해외교류단체 초청), 국제민간교류 확대(민간인 국외여비, 해외교류단체 청소년 연수)	426 (7.5)
통상 지원	해외시장 개척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해외전시박람회 타깃 개별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중소기업 해외 지사화 사업, 바이어 찾기 및 해외시장조사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단체참가, FTA전략지역타깃마케팅, 초보 수출기업 역량강화 사업, 수출 장쑤중견기업 육성사업 충남우수상품전시상담회, 예비사업(교류지역특화사업 등)	2,900 (51.2)
	수출기반 구축	수출보험 지원, 수출 통번역 지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운영,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 충남수출중소기업협의회 운영지원 해외시장개척 항공료 지원, 수출지원온라인포털시스템구축 통상관련행사운영 및 자료구입 등	415 (7.3)
예산 총계	-	-	5,662 (100.0)

주: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재정리.

1)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충남도는 한중 수교가 체결되고 2년이 지난 후인 1994년 10월 중국 허베이성과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그 외 모두 8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다방면으로 교류해왔다. 전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가운데 중국과의 체결 현황을 보면, 자매결연은 전체 6개 지역 가운데 중국은 허베이성 한 곳이고, 우호협력을 보면 전체 18개 지역 가운데 중국은 산둥성, 연변조선족자치구 등 8개 지역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중국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충남도는 1994년 중국 허베이성(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3-1> 참고)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산둥성(1995), 사천성과 상하이시(1998), 연변조선족자치구(2002), 지린성성과 장쑤성(2005), 랴오닝성(2010) 등과 우호협력을 체결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전략지역인 윈난성과 2013년 6월 우호협력을 체결했다.

[표 3-2] 충남도의 대중국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구 분	단 체	체결일자	교류실적(횟수/인원)		
			' 12년까지	2013년 말	누 계
합 계 (중국/전체국가)	-	-	440/3,836	28/243	468/4,068
자 매 결 연 (1/6)	허베이성	'94. 10. 19	108/987	4/10	112/997
우 호 협력 (8/18)	1. 산둥성	'95. 10. 31	43/329	1/100	44/429
	2. 옌벤조선족자치주	'02. 4. 16	88/1,064	2/4	90/1,068
	3. 지린성	'05. 9. 26	28/239	1/3	29/242
	4. 장쑤성	'05. 9. 27	78/610	8/33	86/643
	5. 쓰촨성	'08. 9. 5	25/194	-	25/194
	6. 상하이시	'08. 11. 3	35/174	4/18	39/192
	7. 랴오닝성	'10. 11. 3	9/59	2/11	11/70
	8. 윈난성	'13. 6. 5	-	4/34	4/34
체결계획 (3/4)	1. 광둥성	' 14년중	7/34	-	7/34
	2. 헤이룽장성	' 14년중	16/78	2/19	18/97
	3. 칭하이성	' 14년중	3/68	-	3/68

자료: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그동안 지방정부 간 인적 교류실적을 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횟수로는 허베이성이 112회로 가장 많았으며 교류인원으로는 우리나라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옌벤조선족자치구가 1,06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경제소득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장쑤성과 86차례에 걸쳐 643명의 왕래가 있었다. 그 외에도 광둥성, 헤이룽장성, 칭하이성과도 교류가 있으며 이들 지역과는 2014년에 우호협력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

충남도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지역의 주요 교류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 지역인 허베이성과는 문화와 청소년 교류가 이뤄졌고, 우호협력 지역인 산둥성과는 중국어 현지 연수와 청소년 교류, 옌벤조선족자치주와는 투자유치와 농식품 그리고 청소년 교류, 지린성과는 박람회와 엑스포 참가가 있었다. 장쑤성과는 환경과 복지 분야의 교류가 있었고 쓰촨성과는 지진 피해 성금전달과 박람회 참가 등이 있었다.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인 상하이시와는 투자유치에 관한 교류가 있었고, 랴오닝성과는 충남도 당진시의 현안인 항로개설을 위해 항만개설에 관한 교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윈난성과는 화훼박람회 등 농업 분야의 교류가 진행되어 왔다.

[표 3-3]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지역 교류활동 현황

구 분	단 체	전체 교류 내용
자매결연	허베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세계대백제전 대표단 참가(' 10. 9, 5명) □ 허베이성 경제관계자 방문 도내 기업체 벤치마킹(3회) □ 충남서예가협회단 허베이성 방문 □ 백제문화제 허베이성 예술단 공연 □ 충남공예조합 허베이성 방문, 양 지역 공예협회간 교류 □ 「청소년교류」(9회, 92명)
	1. 산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둥성 청소년문화예술학교 방문공연(' 13. 8.15, 100명) □ 공무원교육원 중국어 과정 현지어학연수(' 09. 10, 산둥대 15명) □ 청다오경제무역박람회 및 산둥성 청소년 밀레니엄 행사 참가(' 01)
우호협력	2. 연변조선족자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설명회 상호교차 개최 □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연변주 농식품업체(3개) 참가(' 09. 9월) □ 농림·수산·환경, 문화·관광·체육 교류 : 20회 223명 □ 청소년 교류 등(4회/44명)
	3. 지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폐막식에 지린성 부성장 참석 □ 인삼엑스포 대표단 및 전기업체 참가(' 11. 9, 14명) □ 지린성 동북아청소년축제 공연단 참가(2회)
	4. 장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석두 행정부지사 환경교류회 및 환경박람회 참가(' 13.11) □ 환경분야 시책교류회 개최(매년) □ 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과정 중국어 연수(' 09.-' 11, 동남대, 57명) □ 장쑤성 노인복지포럼 참가(' 11.10, 복지보건국장)
	5. 쓰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촨대지진(' 08. 5.12) 피해복구 성금 전달(2,000만원) □ 서부박람회 참가 및 우수상품전 개최(' 10.10, 투자통상실장 등 대표단 7명)
	6. 상하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국장 신도시 건설관련 벤치마킹(' 09. 2월) □ 기획실장 일행 상하이엑스포 초청 참가(' 10. 5) □ 투자유치 설명회, 우수상품전 개최
	7. 랴오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랴오닝성 잉커우항과 항만교류를 위한 실무방문('13. 4)
	8. 윈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윈난성 쿤밍국제 화훼박람회 참가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벤치마킹 □ 우호교류협정체결 및 제1회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참가('13. 6)

자료: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재정리

2) 인적 교류사업 현황

(1) K2H(Korea Heart to Heart) 연수사업

충남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매 및 우호관계인 해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에 참여해 그동안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초청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보통 매년 4월~10월 중에 진행하며 약 6개월의 기간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충남도에서는 연수활동비의 50%와 숙소제공, 언어·행정·

문화 연수를 지원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연수활동비 50%, 상하이·의료보험료, 사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이들 연수생이 충남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한국의 역사, 문화, 지방행정 제도, 기초한국어 등을 학습하며 기업체와 문화유적지를 시찰한다.

2004년부터 처음 실시한 이 사업은 2013년까지 37명이 연수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충남도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인 중국의 지방정부 연수생이 19명으로 51%를 약간 상회한다. 지역별로 보면 자매결연 지역인 허베이성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쑤성이 5명, 옌벤 자치주가 3명이었으며, 사천성, 산둥성, 헤이룽장성, 지린성은 각각 1명이었다.

[표 3-4] 충남도 K2H 연수사업 현황(명)

연도	전체 국가 합계	중 국								
		소계	허베이성	옌벤주	장쑤성	사천성	산둥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계	37	19	6	3	5	1	1	1	1	1
2004	1	1	1							
2005	4	2	1	1						
2006	4	2	1		1					
2007	3	2	1	1						
2008	4	2	1		1					
2009	4	1				1				
2010	4	3	1		1		1			
2011	4	2			1			1		
2012	5	2							1	1
2013	4	2		1	1					

주: 기타 국가와 지역은 베트남 롱안성, 캄보디아 씨엠립부,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러시아 아무르주, 우크라이나 크림자치 공화국, 남아공 이스턴케이프인. 단순 교류 차원에서 충남도에 파견된 해외교류단체 연수생은 일본이 13명임.
자료: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2) 충남도 공무원 해외교류단체 연수 현황

충남도는 1993년부터 충남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대략 6개월~1년 간의 기간으로 공무원을 파견했다. 1992년 한중 간 수교 이후 충남도는 1994년 중국의 허베이성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1997년에 처음으로 허베이성에 공무원을 파견했다. 공무원 파견연수는 주로 양 지역 간 교류협력 차원이지만 해외 기술연수의 목적도 있었다.

허베이성 이외에도 충남도는 2008년에 옌벤조선족자치주에 공무원을 파견했다. 하지만 당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중국과 일본에 파견했던 공무원 연수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표 3-5] 충남도 공무원 해외교류단체 연수 현황

파견국	지역	인원
일본	구마모토현	39
	오кина현	6
중국	허베이성	2
	옌벤주조선허족자치주	1

자료: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3) 해외(중국)사무소 운영

충남도는 해외 경제통상의 교류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 1997년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 충남도 해외사무소(현재 명칭은 ‘뉴욕무역관’)를 개설하고 이후 2007년 LA통상사무소를 개설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7년에 구마모토사무소(현재는 ‘구마모토연락관’으로 개명)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간 통상이 급격히 증가되자 충남도는 1997년 상하이 상품전시관(이후 ‘상하이무역관’으로 개명)을 처음으로 개설했고 2009년에는 중국 내륙지역의 교류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이무역관 쓰촨(四川) 분소를 개설했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2012년 12월 폐쇄했다.

2013년 말 현재 충청남도 상하이사무소에는 5명의 직원(일반직 1명, 임기제 1명, 현지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지원,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및 상담, 관광객 및 유학생 유치활동, 중국기업의 도내 유치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3) 통상교류 현황

(1) 광역자치단체별 수출 현황

우리나라 광역자치별 2013년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경기도, 울산광역시에 이어 3위이다. 금액은 약 65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5,590억 달러 중 11.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충남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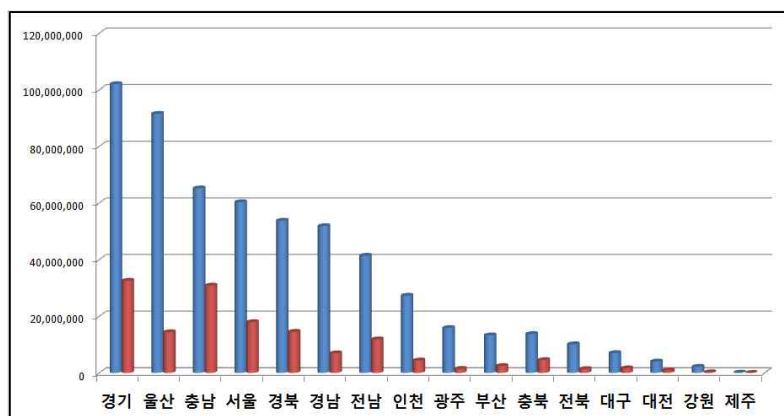
우 충남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 47%로 전국에서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 충남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9.2%로 나타났다.

[표 3-6] 2013년도 광역자치별 수출금액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순위	지역	전체 수출	중국수출	비중	순위	지역	전체 수입	중국수입	비중
1	경기	102,005	32,547	32%	1	서울	128,640	28,635	22.3%
2	울산	91,513	14,395	16%	2	경기	102,150	26,027	25.5%
3	충남	65,185	30,856	47%	3	울산	83,915	1,971	2.3%
4	서울	60,316	17,935	30%	4	인천	38,660	5,402	14.0%
5	경북	53,765	14,502	27%	5	전남	44,655	920	2.1%
6	경남	51,859	6,921	13%	6	충남	33,980	3,131	9.2%
7	전남	41,402	11,851	29%	7	경남	28,496	4,508	15.8%
8	인천	27,288	4,395	16%	8	경북	17,181	2,897	16.9%
9	광주	15,868	1,400	9%	9	부산	13,471	3,870	28.7%
10	부산	13,263	2,441	18%	10	충북	6,509	1,701	26.1%
11	충북	13,735	4,516	33%	11	전북	4,470	972	21.7%
12	전북	10,116	1,351	13%	12	광주	4,915	479	9.7%
13	대구	7,012	1,626	23%	13	대구	3,532	1,470	41.6%
14	대전	4,030	894	22%	14	대전	3,341	744	22.3%
15	강원	2,173	232	11%	15	강원	1,411	297	21.0%
16	세종	904	255	28.2%	16	세종	1,058	379	35.9%
17	제주	103	4,876	5%	17	제주	260	29	11.3%
합 계		560,536	145,869	26%	합 계		516,643	83,432	16.1%

출처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수출입 통계(2013.12기준)



(2) 기초자치단체별 수출 현황

아래 [표 2]에 정리된 기초 자치별 수출금액을 살펴보면, 충남 아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수출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며 그 비중은 전체 수출액 중 7.2%를 차지한다. 아산시의 경우 전체 수출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약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수출산업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중국 수출사업체가 아산과 천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7] 2013년도 기초자치별 수출금액

단위 : 천 달러, %

순위	기초자치 지역명	전체 수출 금액	비중	대중국 수출 금액	대중국 수출 비중
1	충남 아산시	40,146,029	7.2%	20,411,603	50.8%
2	경북 구미시	36,347,232	6.5%	11,448,718	31.5%
3	울산 남구	32,794,230	5.9%	7,344,903	22.4%
4	전남 여수시	32,722,358	5.9%	10,575,755	32.3%
5	울산 울주군	22,717,251	4.1%	5,105,357	22.5%
6	울산 북구	21,686,469	3.9%	1,349,519	6.2%
7	울산 동구	14,292,962	2.6%	592,699	4.2%
8	서울 강남구	16,287,747	2.9%	2,832,531	17.4%
9	경기 화성시	15,738,795	2.9%	4,113,514	26.1%
10	경남 거제시	18,728,007	3.4%	354,477	1.9%
합계		559,632,434		64,129,076	

출처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수출입 통계(2013.12기준)

(3) 충남도의 주요 수출대상국 및 수출 현황

앞 장에서 설명했듯 우리나라 대중국 교역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교역량 가운데 중국의 비중도 높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가운데 충남의 대중국 교역량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1월-11월) 기준 충남의 총 수출액은

59,633백만 달러로 전체 비중 가운데 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액 비중이 전체의 26.0%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액 증가율도 충남은 전년에 비해 5.1%가 증가한 반면, 전국적으로는 1.7%에 그쳐 거의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중국뿐만 아니라 소위 중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홍콩, 대만에 대한 충남도의 수출액 비중을 합하면 전체 수출액 비중의 64.5%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화권 수출액 비중이 33.8%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역(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고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욱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중국 경제교역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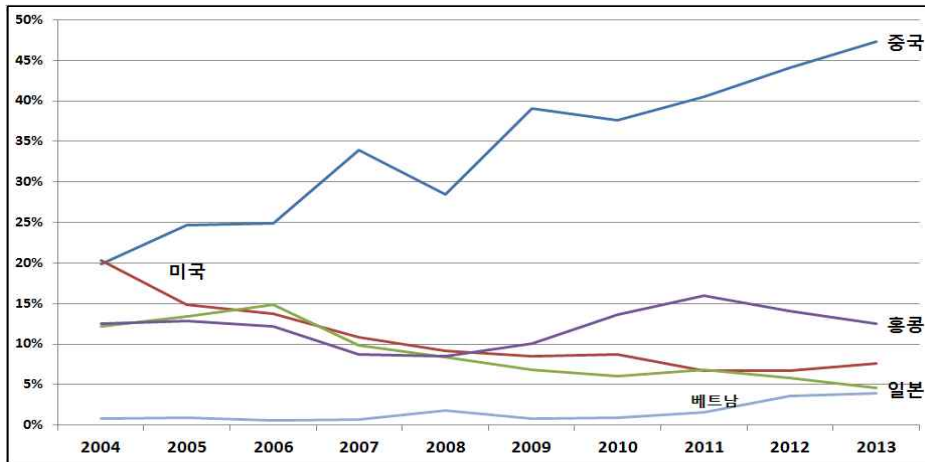
[표 3-8] 충남도의 수출 현황 및 비중(상위 10위 대상국 기준)

단위 : 백만\$, 전년 동기대비 %

충 남					전 국			
순위	국 가 명	수출액	증가율	비중	국 가 명	수출액	증가율	비중
총 수출액		59,633	5.1	100	총 수출액	511,669	1.7	100
1	중국	28,069	12.2	47.0	중국	132,862	8.6	26.0
2	홍콩	7,469	△6.8	12.5	미국	56,902	5.4	11.1
3	미국	4,612	19.4	7.7	일본	31,996	△10.5	6.3
4	대만	2,978	29.0	5.0	홍콩	25,537	△14.9	5.0
5	일본	2,790	△16.7	4.7	싱가포르	20,950	0.2	4.1
6	베트남	2,314	16.7	3.9	베트남	19,272	33.4	3.8
7	멕시코	1,324	3.5	2.2	대만	14,334	5.8	2.8
8	슬로바키아	1,186	△28.6	2.0	인도네시아	10,608	△16.6	2.1
9	싱가포르	811	△19.4	1.36	인도	10,451	△5.6	2.04
10	말레이시아	672	36.4	1.12	러시아연방	10,262	△1.0	2.00

주: 수출액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액임.
 자료: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12) 작년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약 4조 달러로 세계 무역의 10%를 차지해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다(한겨레 2014년 1월 12일자 보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특히 충남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높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 충남의 주요 수출국 변화 동향

(4) 연도별 충남도 대중국 수출 현황

2004년부터 연도별 충남 전체 교역 및 대중국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2013년 기준으로 충남 전체 수출액은 약 650억 달러였으며, 그 중 대중국 수출은 약 308억 달러로 그 비중은 47.3%로 최고치에 달했다. 2004년도에 충남 수출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약 20%였지만, 중국의 경제부상과 함께 10년 만에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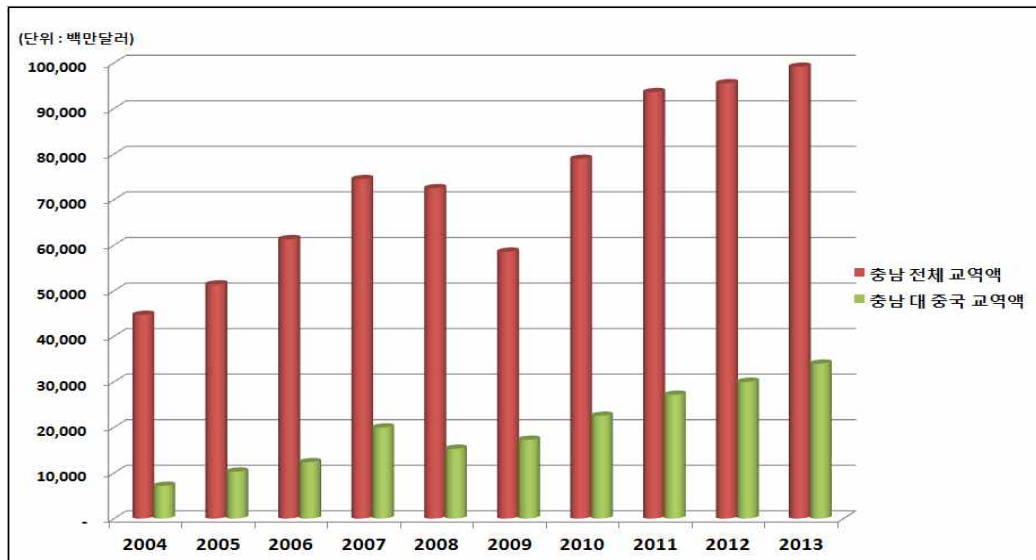
수입의 경우, 충남 전체 수입액은 약 340억 달러이며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31억 달러로 9.2%를 차지했다. 2013년 기준, 충남의 교역 상대국 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수입의 경우 쿠웨이트, 호주 다음으로 중국이 3위였다. 이는 충남이 향후에도 중국에 대한 교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및 수입에 대한 다각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석된다.

[표 3-9] 연도별 충남 대중국 수출입 비중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수출전체	대중국	비 중	수입전체	대중국	비 중
2004	29,272	5,805	19.83%	15,426	1,367	8.86%
2005	33,520	8,277	24.69%	17,863	2,006	11.23%
2006	38,961	9,702	24.90%	22,362	2,661	11.90%
2007	47,823	16,242	33.96%	26,673	3,737	14.01%
2008	42,936	12,216	28.45%	29,556	3,088	10.45%
2009	39,428	15,382	39.01%	19,129	1,900	9.93%
2010	54,054	20,341	37.63%	24,893	2,215	8.90%
2011	59,954	24,272	40.48%	33,640	2,897	8.61%
2012	62,031	27,366	44.12%	33,509	2,636	7.87%
2013	65,185	30,856	47.34%	33,980	3,131	9.21%

출처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수출입 통계(2013.12기준)



[그림 3-4] 충남 전체 교역액 대비 대중국 교역액 비교

(5) 충남도 각 시군별 대중국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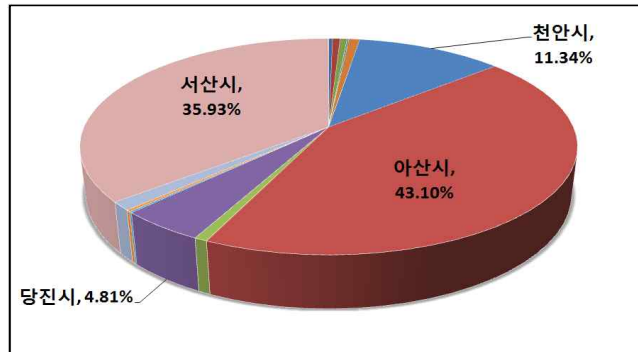
충남 수출 전체에서 중국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7.6%이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아산시였다. 아산시는 충남 전체 수출에서 62.4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아산시의 50.8%의 수출금액은 충남 전체로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은 서산시, 천안시의 경우에도 대중국 수출이 각각 47.7%, 44.7%를 차지함에 따라 충남에서의 대중국 수출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전체적인 금액은 적지만, 대중국 수출 비중으로 살펴볼 때, 홍성군, 논산시, 공주시, 금산군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다음의 [표3-10]은 충남 수출과 수입의 합인 교역액 중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아산시가 43.1%, 서산시 35.9%, 천안시 11.3%, 당진시 4.8% 순이다.

[표 3-10] 충남의 지역별 교역 현황(2013)

단위 : 백만 달러, %

지 역	수 출			수 입		
	충남 전체	대 중국	비 중	충남 전체	대 중국	비 중
금산군	109	32	29.2%	185	41	22.1%
공주시	233	69	29.5%	338	64	18.8%
논산시	185	59	31.7%	338	62	28.0%
계룡시	1	0.04	0.3%	4	1	36.2%
부여군	116	25	21.2%	14	10	70.0%
서천군	354	15	4.1%	455	80	17.5%
천안시	7,243	3,240	44.7%	3,795	1,234	32.5%
아산시	40,146	20,412	50.8%	1,799	560	31.2%
예산군	487	91	18.8%	218	54	24.9%
당진시	1,563	161	10.3%	3,114	324	10.4%
청양군	116	15	12.9%	36	6	17.7%
홍성군	189	61	32.5%	67	11	16.4%
보령시	53	7	14.0%	1,173	19	1.6%
서산시	13,471	6,420	47.7%	21,494	272	1.3%
태안군	16	4	25.7%	9	4	42.6%
충남(합)	64,282	30,610	47.6%	33,040	2,743	8.3%

출처 : 한국무역협회 지역별수출입 통계(2013.12기준)



[그림 3-5] 충남 지역별 교역 비중

(6) 충남도 주요 수출 품목 변화

중국을 지난 10년 간 충남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그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출품목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41.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충남의 주력 수출 품목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 소비자들의 평판디스플레이 소비 확대에 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충남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3년도에도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주력 수출품이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5대 수출품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고, 전자응용기기의 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11] 충남의 5대 수출품 변화 동향(2003~2013)

단위 : %

순 위	2003년		2008년		2013년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반도체	41.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8.3%	반도체	27.1%
2	컴퓨터	16.7%	반도체	25.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6.5%
3	자동차	10.6%	석유제품	8.5%	전자응용기기	8.1%
4	합성수지	3.5%	철강판	4.4%	석유제품	7.9%
5	석유화학중간원료	3.2%	컴퓨터	4.2%	석유화학중간원료	5.3%

주 : 한국무역협회 MPI 3단위 기준

2. 충청남도 각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 분석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교류협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구성은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대중국 교류협력의 인식 실태,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비전으로 구분된다.

1) 시군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1) 현재까지 진행된 지자체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이 <표 3-12>에 나타나 있다.

[표 3-12] 시군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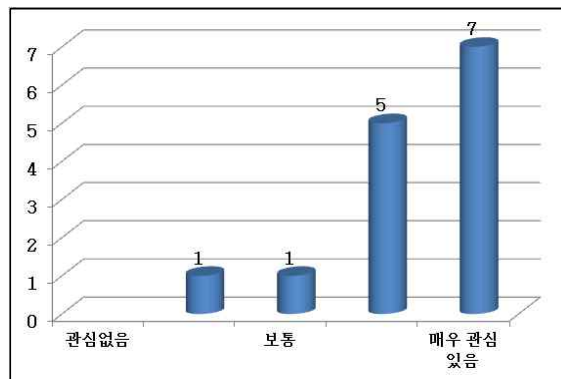
지 역	자매결연	우호협력
천안시	1건, 석가장시	1건, 문등구
공주시	-	1건, 요령성 심양시
보령시	1건, 상하이시 청포구	1건, 톈진시 빈해신구
아산시	1건, 동관시	2건, 웨이팡시, 룡청시
서산시	1건, 룡청시	1건, 허페이시
논산시	-	2건, 랴오닝성 진저우시, 허베이성 랑팡시
계룡시	-	1건, 회유구
당진시	1건, 산둥성 르짜오시	3건, 랴오닝성 철령현, 지린성성 왕청현, 산둥성 교남시
금산군	1건, 지린성성 안도현	-
부여군	1건, 낙양시	-
서천군	-	-
청양군	1건, 랴오닝성 등탑시	1건, 호북성 수현
홍성군	1건, 산둥성 임기시 기수현	1건, 헤이룽장성 해림시
예산군	-	2건, 계동현, 이춘시
태안군	1건, 중국 태안시	-
합 계	10건	16건

대중국 교류 형태 중 자매결연은 총 10건, 우호협력은 총 16건으로 서천군을 제외하고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1건 이상씩 진행되어오고 있다.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물적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국제교류형태로서 충남도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지역은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청양군, 홍성군 등으로 이해된다.

(2)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해당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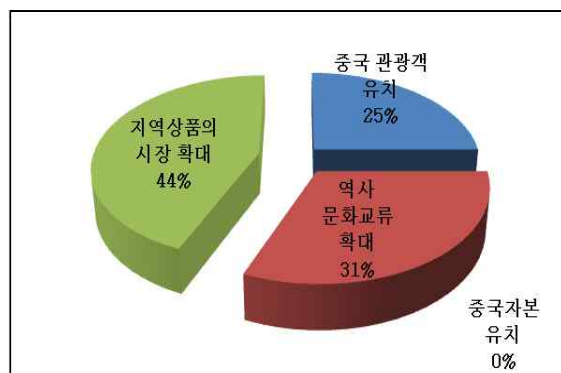
해당 시·군 지자체장들의 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매우 높다는 응답을 보였다. 7개 시·군에서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매우 높다는 응답을, 5개 시·군에서는 높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태안군의 지자체장들이 대중국교류 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2_1)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심이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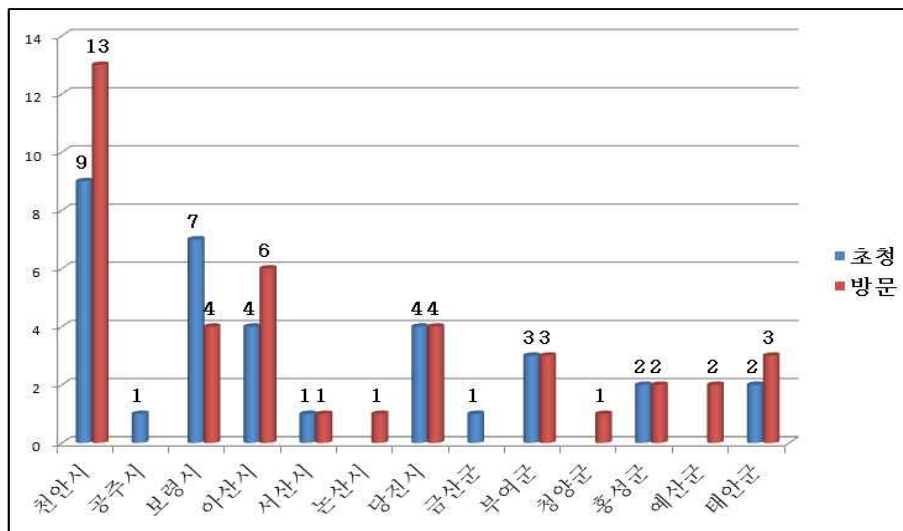
충남 시·군 지자체장들이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의 이유로, 지역상품의 시장 확대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역사·문화 교류의 확대 31%, 중국 관광객 유치 25%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중국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중국교류협력에 대한 관심 이유

(3) 최근 3년 충남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차원의 초청 및 방문 현황

최근 3년 동안 15개 시·군과 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차원의 초청 및 방문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0개의 시·군에서 총 34건의 초청과 11개의 시·군에서 총 40건의 방문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단위로 살펴보면, 천안시의 경우 초청이 9건에 평균 초청 인원이 14명, 방문이 13건에 평균 방문 인원이 15명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순으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초청과 방문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8]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차원의 초청 및 방문 현황

(4) 지자체 차원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현황(최근 3년)

최근 3년 동안 시·군별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활동한 현황을 [표 3-13]에 정리하였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에는 수출 상담을 통하여 경제적 활동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아산시는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산시와 당진시는 항만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에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이다. 금산군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수출상품 시장 개척을 위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표 3-13] 지자체 차원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현황

지역	방문자 구성원	방문지	시기 (년월)	활동 내용	활동 성과
천안	해외시장	칭다오, 서안	2011.10	수출상담 등	상담 56건/2,133천불 계약 11건/360천불
아산	아산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	동관시, 웨이팡시	2014.4	상담건수 100건, 상담액 15,860천\$	계약추진액 3,900천\$
	아산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	동관시, 정저우시	2013.3	상담건수 44건 상담액 1,157천\$	계약추진액 507천\$
	아산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	동관시	2012.7	상담건수 32건 상담액 1,300천\$	계약추진액 300천\$
공주	담당 공무원	베이징 시 방산구	2013.4	교류제안서 전달	-
서산	서산시장 및 의회의장 외 10명	룽청시	2012.11	자매결연 및 시사코우와의 경제교류협력 MOU 체결	자매결연 및 시사코우와의 경제교류협력 MOU 체결
	룽청시 부시장 외 2명	서산시	2014.2	서산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기공식 참여	국제여객터미널로 개설 및 기공
논산	국제교류 및 정책담당	지닝시	2014.4	지닝시와 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
당진	시장 외 15명	따론티 칭다오 시 장하시	2013.11	양 도시간 우호친선 교류협력	당진항-따론티항, 칭다오항, 장하시간 우호항만 건립 MOU 체결
금산	군수 외 7명	광저우	2012.5	광저우 수출상품 교역 전시회 참석	광저우 금산인삼 마케팅 추진
	군수 외 4명	상하이	2013.1	개선문 쇼핑센터 판촉전 및 세미나	상하이 금산인삼 마케팅 추진
	부군수 외 3명	삼 원	2013.8	완다백화점 홍보 세미나 및 판촉전 실시	홍보 세미나 및 판촉전 추진

(5) 지자체 지원 및 중재로 인한 주요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현황(최근 3년)

최근 3년 간 지자체 지원 및 중재로 인한 주요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살펴보면, 각각 5건씩의 초청과 방문이 있었다. 민간단체 교류협력의 경우, 15개 시·군 중 5개 지역인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홍성군, 논산시에서만 실시되었으며, 횡수는 적었지만 초청 한 회당 평균 30명, 방문 한 회당 평균 15명의 교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논산시 유림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교문화탐방의 경우, 2011년부터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향후에도 교류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표 3-14] 지자체 지원 및 중재로 인한 민간단체 교류 협력 현황

구분	지역	단체명	인원(구성)	목적 및 성과
초청	천안	석가장시 제3의원	4명(의원장 등)	단국대-석가장시 제3의원간 의료 교류 협약 체결
	아산	중국 동관시	동관시 관광객 80명	온천대축제 개막식참석(2013.10)
		중국 웨이팡시	수광시 관계자 4명	영인농협-수광야채그룹 자매결연(2013.7)
	부여	청년포럼	33명	백제옛길 탐방
	홍성	해림시 조선족 실험소학교(2013)	32명(교사 5, 학생 27)	홍성내포문화축제 공연 및 한민족 자긍심 고취
방문	천안	천안업성고등학교	5명(교장 등)	석가장시 교육교류 방문
		천안업성고등학교	32명(교사, 학생 등)	석가장시 제27중학 방문, 홈스테이
	아산	중국 웨이팡시	10명(아산시2명, 영인농협 및 조합원 8명)	수광국제야채기술박람회 참석 및 아산맑은쌀 시식회 개최(2014.4)
		중국 웨이팡시	5명(영인농협)	아산맑은쌀 웨이팡시 수출논의(2013.9)
	논산	유림협회	25명정도(3년 연속)	공자묘 참배 등 유교문화 탐방

(6) 중국교류협력 전담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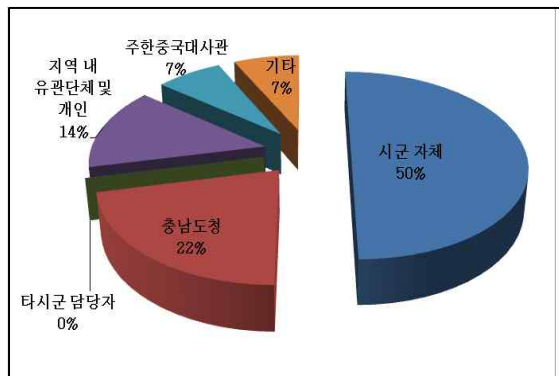
15개 시·군 모두 중국교류를 위한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획실을 통하여 담당관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진시의 경우에는 중국교류를 위하여 통역분야에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담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전담인력 자체가 부족할뿐더러 중국언어에 대한 전문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5] 중국교류협력 전담 인력 현황

지역	부서명	직책	전담여부	언어수준	근무년수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무관	전담	-	1년 9개월
논산시	전략기획실	기획담당	-	-	4개월
	전략기획실	기획부서	-	-	4개월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계약직	통역전담	상	1개월
금산군	기획감사실 (국제교류분야)	행정7급	-	-	1년 9개월
	인삼약초과 (경제통상분야)	행정7급	-	-	7년 1개월
부여군	행정지원과	국내외교류담당	-	-	1년 이하
서천군	총무과	대외교류새마을담당	-	-	1개월
홍성군	기획감사실	지방행정7급	-	-	4개월
태안군	기획감사실	주무관	-	-	1년

(7) 대중국 교류 협력 추진 시 주로 도움을 받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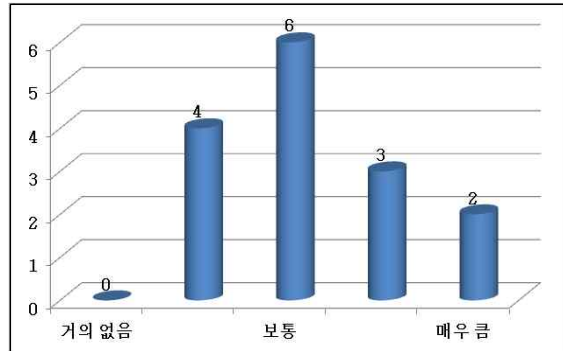
충남도 각 지자체는 중국교류협력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 개의 지역에서는 충남도청, 지역내 전문기관, 대사관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중국 교류협력의 인식 실태

(1) 현재 중국경제의 G2의 부상이 해당 지자체의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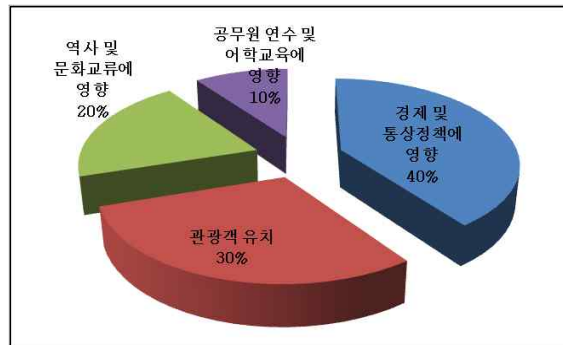
중국경제의 부상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정책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천안시, 아산시의 경우에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응답했으며, 서산시, 당진시, 청양군에서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해당 지자체의 정책 대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0] 중국 부상이 미치는 영향

(1.1) 중국의 부상이 지자체의 정책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국의 경제부상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정책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는 경제 및 통상정책 분야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 20%, 역사 및 문화교류 20%, 공무원 연수 및 어학교육 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중국 부상 정책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1.2) 대표적인 정책 반영 사례

중국의 경제부상에 따른 지자체별 중국교류에 대하여 정책이 반영된 사례를 [표 3-16]에 정리했다. 천안시의 경우, 수출증진을 위한 상품전시관 개설을 운영하였으며, 2004년 이후로 매년 문등시와 공무원 상호과건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수출기업 루트 개척을 이행하고 있으며, 보령시와 서산시는 각각 보령신항과 서산대산항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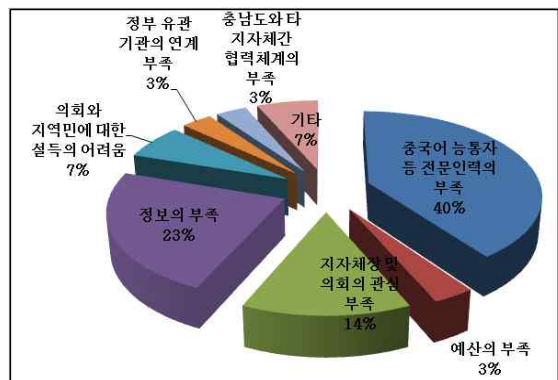
한 정책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당진시는 대중국 교류에 대한 인식제고를 시작으로 하여 중국 시장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양군의 경우 지역 행사 추진 시에 사절단 초청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6] 지자체별 대표적인 정책 반영 사례 요약

지 역	구체적 내용
천안시	<input type="checkbox"/> 천안시 상품전시관 개설(2003.9.28) - 중국 산둥성 문등시 - 천안시 소재 기업체 상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 - 각종 무역박람회, 교류전 참가업체 지원 및 전시 참여 - 한국기업 대중국 투자기업의 사무실 및 무역정보 제공 - 한국어 무료번역 서비스센터 운영 <input type="checkbox"/> 천안시 ⇄ 문등시간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실시 - 2004년 11월 이후 지속(1년씩)
아산시	<input type="checkbox"/> 동관시 및 웨이팡시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기업 상담 통한 관내 수출기업 루트 개척
보령시	<input type="checkbox"/> 보령신항 다기능복합항만 정책 추진
서산시	<input type="checkbox"/> 서산대산항 - 중국 룡청시(룡안항) 간 국제여객선 항로 개설
당진시	<input type="checkbox"/> 대중국 교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중국시장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회 추진 - 2013. 11. 중국 따렌시내 당진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청양군	<input type="checkbox"/> 지역의 대표적 행사 추진시 사절단 및 관광객 유치

(2) 해당 지자체 차원의 대중국 교류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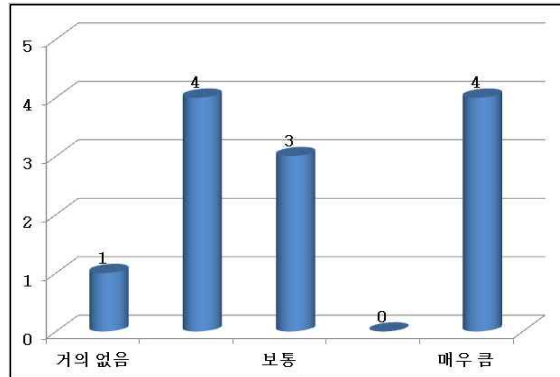
각 지자체에서 대중국 교류에 대한 업무 추진 시, 실무자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중국어 능통자 등 전문인의 부족이 4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부족 25%, 중국학과 관련 대학기관 7%, 의회와 지역민에 대한 설득의 어려움 7%, 예산의 부족 4%, 정부 유관기관의 연계부족 4%, 충남도와 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부족 4% 순이었다.



[그림 3-12] 대중국 교류 협력 업무시 가장 큰 애로사항

(3) 현재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성과에 대한 의견

지자체별로 대중국 교류협력 성과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5점 척도 중 평균 3.2로 전체적으로는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개별 지역으로 살펴볼 때,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성과가 매우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13] 대중국 교류협력 성과에 대한 인식

(3.1) (성과가 있는 경우)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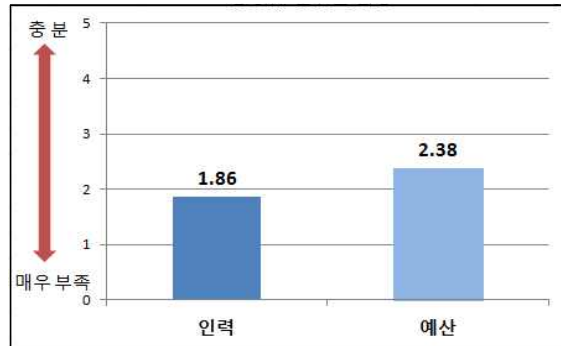
대중국 교류의 성과로서, 보령시는 정기적인 행정교류와 문화예술 교류를 꼽았고, 아산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상품 판매루트 개척과 관광객 유치,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실시 등이라고 응답했다. 서산시는 대산항 국제여객선 항로 개설, 당진시는 공무원 상호 연수교류, 청소년 교류를 서술하였으며, 부여군, 홍성군은 문화교류를, 태안군은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보교환 및 직원 교환 근무라고 설명하였다.

[표 3-17]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주요 성과

지 역	구체적 내용
보령시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 마련 : 정기적 행정교류, 인적교류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교류 : 보령머드축제 참여, 문화공예단 공연('14 예정) 등
아산시	<input type="checkbox"/> 무역사절단 파견 통한 수출중소기업 중국 판매루트 개척(2012~) <input type="checkbox"/> 지역축제 중국 관광객 방문(2013 온천대축제 개막식 동관시 단체관광객 방문 등)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실시(2014 동관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실시)
서산시	<input type="checkbox"/> 서산대산항 - 중국 룡청시(룡안항) 간 국제여객선 항로 개설
당진시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상호 연수 파견 및 각 도시별 청소년 교류 실시, 각종 주요 행사시 연례적 초청 추진
부여군	<input type="checkbox"/> 낙양시는 백제멸망 당시 당나라로 압송된 의자왕과 왕자들이 생을 마감한 곳으로 묘지로 추정되는 낙양 북망산의 토양을 채취하여 부여 백제왕릉원에 의자왕과 부여웅의 묘지를 조성하고 반혼제를 올리는 행사를 추진함으로 문화교류 진행
홍성군	<input type="checkbox"/> 내포문화축제 시 우호교류 도시의 공연단 초청 및 조선족 학생들의 우리군 견학을 통해 역사적, 민족적 동질감 고취

(4) 대중국 교류협력에 투입되는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현황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하여 지자체별 실무자들이 느끼는 인력과 예산 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력과 예산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인력과 예산 현황에 대한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낼 때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1.86, 예산에 대한 부분은 2.38로 예산 부분보다 인력 현황 부분에서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4] 대중국 교류협력의 투입 인력과 예산 현황 인식도

(5) 전문 인력 부족 시, 충당하는 방법

대중국 교류 협력 업무 추진 시에,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인력을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역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언어에 대한 인력 충당으로, 파견 공무원의 활용, 지역 내 조선족 활용 및 중국어 가능 인력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당진시에서는 중국어 가능자를 고용하여 중국교류 전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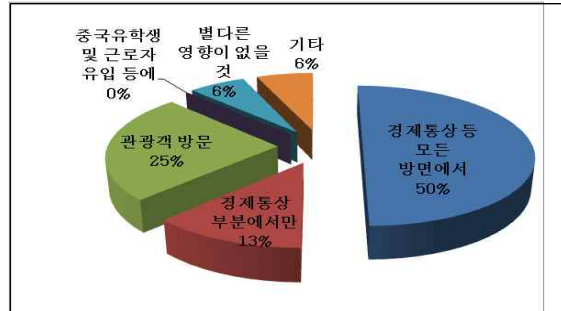
[표 3-18] 대중국 교류 협력 업무 인력 충당 방법

지 역	구체적 내용
천안시	<input type="checkbox"/> 문등시 파견 공무원 활용
보령시	<input type="checkbox"/> 통역만 무기계약직 활용
아산시	<input type="checkbox"/> 외교부 출신 퇴직 공무원을 외국과의 교류를 위한 국제교류협력보좌관 활용 및 코트라해외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활용
서산시	<input type="checkbox"/> 시청 내 중국어 가능 인력 임시 활용
논산시	<input type="checkbox"/> 지역 내 조선족 활용
당진시	<input type="checkbox"/> 전문인력의 계약직 고용
부여군	<input type="checkbox"/> 타부서 무기계약직으로 외국인(중국)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서천군	<input type="checkbox"/>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문의
청양군	<input type="checkbox"/> 국제화 재단 및 대사관 활용
홍성군	<input type="checkbox"/> 지역 내 조선족 활용
태안군	<input type="checkbox"/> 지역 내 조선족 및 교환 근무 경험자 활용

3)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비전

(1) 향후 5~10년 내 해당 지자체에 중국의 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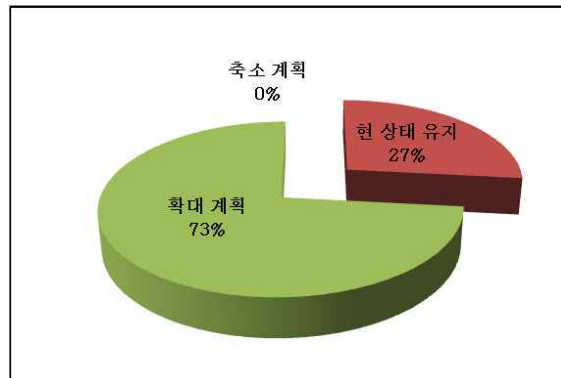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경제통상 등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50%였다. 이 외에 관광객 방문 증가에 25%, 경제통상 부분에서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13%,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6% 이었다. 중국 유학생 및 근로자 유입에 대한 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5] 향후 중국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지자체의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계획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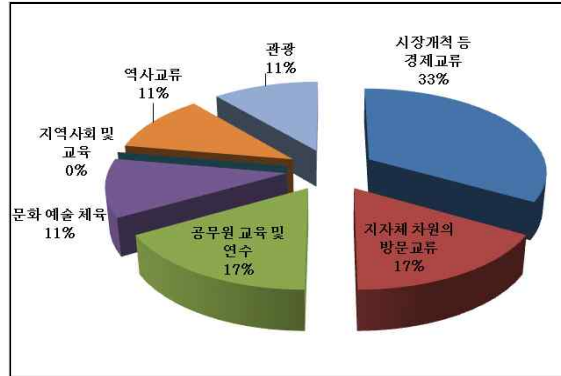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73%의 지역에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지역이 27%였으며, 축소할 계획이라는 지역은 없었다. 세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6]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계획 및 전망

(2.1) 확대 분야 및 이유

향후 지자체에서 대중국교류 시 확대 될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 분야가 3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방문교류 17%, 공무원 교육 및 연수 17%, 문화예술체육 11%, 역사교류 11%, 관광 11% 순이었다. 지역사회 및 교육분야는 응답 지역이 없었다. 확대 분야에 대한 사. 군 별 이유는 표<3-19>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17] 대중국 교류 시 확대 될 분야

[표 3-19] 대중국 교류 시 확대 될 분야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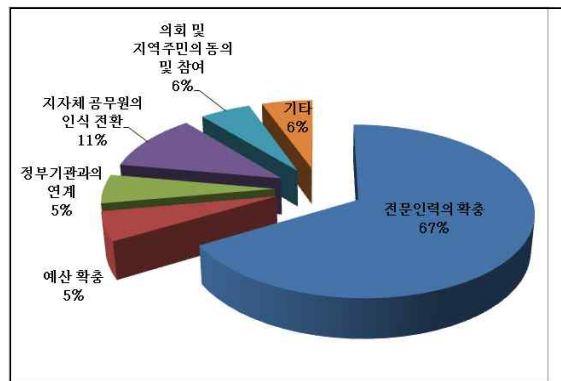
지 역	구체적 내용
보령시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체육 -> 문화예술단 교류, 스포츠 교류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및 교육 -> 청소년 교류 확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교육 및 연수 -> 공무원 상호 파견으로 인적 인프라 구축 <input type="checkbox"/> 관광 -> 중국 관광객의 유치
아산시	<input type="checkbox"/> 매년 정기적인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한 관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상담 활성화 등의 시장개척 교류 지원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실시를 통한 인적자원 교류 실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다양한 교류 분야로 확대 예정
서산시	<input type="checkbox"/> 서산시 농수산물 해외 판로 개척,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업 활성화
논산시	<input type="checkbox"/> 중국 공자의 고향 제닝시와 유교문화관련 민간·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추진
당진시	<input type="checkbox"/> 관내 주요 우수기업이 중국내 시장진출 및 선점을 위한 지원 필요
서천군	<input type="checkbox"/> 서천군은 2018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준공후 산업육성을 위한 경제교류가 필요할 것이며 경제교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활동이 필요.
홍성군	<input type="checkbox"/> 경제교류 중심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중국 자본과 기업의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

대중국 교류협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53%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응답였고, 20% 지역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4) 해당 지자체 대중국 교류협력 확대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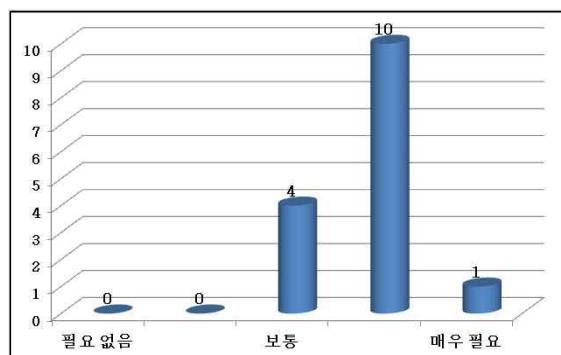
지자체에서 대중국 교류협력 확대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문인력의 확충 부분이 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11%, 정부기관과의 연계 5%, 예산 확충 5%, 의회 및 지역주민의 동의 및 참여 5% 순이었다.



[그림 3-18] 대중국 교류 시 필요 분야 필요한 부분

(5) 충남도 차원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정보교류 및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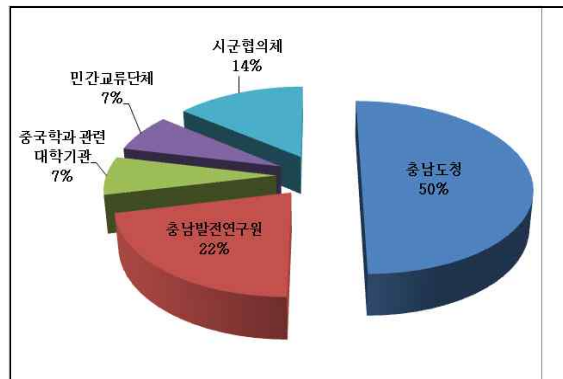
충남도 차원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며,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없었다.



[그림 3-19] 대중국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5.1) 협의체 구성 시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충남도 차원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체가 구성될 시, 운영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50% 지역은 충남도청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충남발전연구원 21%, 시군협의체 14%, 중국학과 관련 대학기관 7%, 민간교류 단체 7% 순이다.



[그림3-20] 협의체 구성시 운영 주체

(6)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

충남 각 지자체별로 대중국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하여서 각 시·군과 충청남도,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를 <표3-20>에 정리하였다. 종합적으로, 각 지자체들은 대중국 교류 사업에 대한 공유와 정확한 정보의 나눔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전담 기관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문인력 확보 및 담당자들을 위한 교류협력 교육 등을 필요로 하면서, 향후 대중국 교류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질수록 대중국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0]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 요약

지 역	구체적 내용
시·군에 대한 요구	<input type="checkbox"/> 각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중국 관련 교류 사업을 공유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인근 시군과는 경쟁자 관계보다 동반자 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 중국 교류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협조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국제교류 전담부서 개설 및 전문인력 양성
충남도에 대한 요구	<input type="checkbox"/> 기초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교류 사업의 전반적인 조인 <input type="checkbox"/> 중국지방정부와의 교류 노하우 전수 <input type="checkbox"/> 시군 담당자를 포함한 워크숍 및 교육실시를 통한 담당 공무원의 국제교류 능력 향상 <input type="checkbox"/> 환황해권 충남도 서해안 비전에 포함될 충남도의 대 중국과의 교류 비전과 정책을 시군과 공유하는 한편, 각 시군의 중국 교류 추진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서로가 윈(win)-윈(win)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창구가 필요 <input type="checkbox"/>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중국연구센터”를 설치할 시, 시군의 대 중국 교류 정책과 실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중국 내 각종 지자체 현황 및 주요 동향 등에 대한 주기적 정보 제공 및 전문 번역 인력 등에 대한 지원 필요. 더불어 국제교류 담당자들에 대한 국제연수 등의 기획 필요 <input type="checkbox"/> 도는 시·군보다 조직 및 인력확보가 용이한 만큼 도 자체교류가 아닌 시·군과 연계 하여 각 시·군에 맞는 교류지원 및 활동이 필요하리라 봄 <input type="checkbox"/>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 등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연찬,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 <input type="checkbox"/> 충남도와 우호협력 관계인 중국 지방정부에 대한 현지 실사와 협의를 통하여 산업구조가 유사한 도시를 발굴하여 시·군과 매칭을 통한 연계 교류 추진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현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및 지역 홍보
중앙정부 에 대한 요구	<input type="checkbox"/> 중국 지방정부 자료 등 최신자료 공개 <input type="checkbox"/> 외교부, 안행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중국 국제교류 업무 조인 <input type="checkbox"/> 과거에는 중앙정부 위주의 국제교류 였으나 지방화이후 지자체의 국제교류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주민이 관심도 높음에 따라 지자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관심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대 중국 교류 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창구 설치 요망 <input type="checkbox"/> 민간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3. 주요 시·군 지자체 대중국 교류 현황 및 개선 방향

본 절에서는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등 비교적 중국과 교류협력이 활발한 지역을 사례로 구체적인 교류협력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천안시

(1) 대중국 교류 현황 및 성과

충남도의 중심 도시인 천안시는 충남도가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과 같이 천안시는 허베이성의 성도(省道)인 석가장시(石家庄市)와 1997년 8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산둥성 문둥시(文登市)와는 우호협력을 체결했다. 석가장시는 허베이성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이징에서 287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은 6개 구, 12개 현, 5개 현급 시, 1개 국가급 고신(高新: 하이테크산업)개발구로 구성됐다. 2010년 기준 전체인구는 1,028만 명이고 시 중심지 인구는 217만 명에 이른다. 석가장시는 허베이성의 성도로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정보의 중심지이며 1948년 5월부터 1949년 3월까지 중국공산당중앙정부 소재지였으며 새롭게 발달하는 공업도시로서 면방직, 의약, 전자, 화공, 기계, 건축재료 산업이 발달했다. 농어업 방면에서는 밀, 옥수수가 주산지이며 특히 배가 특산품으로 눈꽃배, 꿀배, 빨간배 등이 있다. 이는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고 있는 천안시와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안시와 석가장시가 처음 교류를 시작한 것은 한중 수교 이전인 1992년 1월로 이때 허베이성 경제무역대표단 20명이 천안시상공회의소를 방문했고 동년 8월에는 당시 이근영 시장이 석가장을 방문했다. 이후 1997년 8월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그 동안 양 도시는 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방문 등 경제통상교류, 농업우호교류, 탁구 등 스포츠 교류, 삼거리 문화제 및 홍타령축제와 한중 서예 교류전 개최 등 문화교류, 의료분야 교류 등을 실시했으며 2007년 자매결연 10주년 때는 양 도시 공무원의 상호 파견을 합의했다. 최근 3년간 양 도시의 교류협력 활동을 보면, 석가장시는 천안시의 초청으로 천안홍타령축제 참가(21명), 농업교류

협의(6명),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및 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참가(6명)가 있었다. 천안시 또한 석가장시의 초청으로 국제무역상담회 참가(10명),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연수(18명), 자매도시 우호 및 교류활성화(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등) 등을 위해 방문했다.

최근 들어와서 천안시는 석가장시보다는 우호협력 관계인 산둥성 문등시와 더 잦은 교류를 하고 있다. 문등시는 산둥반도의 동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645km²로 천안시의 약 2.6 배에 해당된다. 인구는 천안시와 비슷한 65만 명에 이르고 행정구역은 14개 진(鎭), 3개 가도(街道)관사처, 1개 성급 경제개발구로 구성되어 있다. 문등시는 신흥공업 도시로써 기계, 자동차, 화학, 전자, 방직공업 등이 발달했으며 농수산물로는 땅콩, 사과, 밀, 옥수수, 새우, 조개류 등이 유명하다. 문등시에는 한인기업체 약 300여 개(한인상공회 등록 110개)가 있으며 천안시와는 2002년 11월 우호협력 체결했다.

천안시와 문등시는 1999년 8월 문등시 경제교류협력단이 천안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이후 주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방면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 최근 3년간 양 도시의 교류 활동을 보면, 문등시는 천안시의 초청으로 천안홍타령춤축제(2011-13)에 3년 연속 참가하고 있고 그 외 온천축제와 2013년 국제웰빙식품엑스포에 참가했다. 천안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웰빙식품엑스포 유공공무원 연수를 각각 두 차례씩 방문을 했고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 우호도시 방문 및 선진박람회, 의료관광도시 홍보를 위해 문등시를 방문했다.

천안시와 문등시 간의 교류협력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천안시가 2003년에 문등시에 천안상품전시관을 개관했다는 점이다. 천안시는 문등시의 천안상품전시관 개관을 통해 이 지역에 천안시 상품홍보의 거점을 만들어 산둥성지역은 물론 중국 전역에 천안시와 천안시의 상품을 홍보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대중국 교류의 문제 및 과제

이상과 같이 천안시는 허베이성의 성도인 석가장시와 산둥성의 신흥 공업도시인 문등시와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체결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왕성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몇 가지 아쉬움과 개선점이 존재한다.

첫째, 양 지역만의 특색있는 교류활동의 부족이다. 충남의 대표도시인 천안시는 같은 위상의 허베이성 석가장시와 경제, 농업,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만 양 지역의 정체성을 지난 특성있는 교류활동은 부족한 편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천안시와 석가장시 간 의미있는 교류활동의 하나로 항일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교류활동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안시는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메카이다. 유관순, 이동녕, 조병옥 등 우리나라 대표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어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자원이 풍부하다. 석가장시 또한 화북평원의 중심도시로 항일시기 일본군이 주둔했으며 이 지역에서 많은 항일전투가 있었다. 따라서 양 지역이 항일독립운동을 테마로 두 지역 간 교류활동을 추진한다면 현재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유의미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 지역 청소년 간에 이러한 항일유적지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 의미는 배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우호협력 체결 도시와의 위상문제이다. 충남의 대표도시인 천안시는 산둥성의 현급도시인 문둥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문둥시는 웨이하이시(威海市)의 현급(縣級) 도시로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의 소도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연 우호협력 체결에 맞은 위상의 도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천안시는 문둥시를 거점으로 해서 천안시의 산업과 시장개척을 산둥성과 중국 전역에 확대하고자 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치를 고려한 선택일 수 있었겠지만 위상에 걸맞지 않게 체결한 협정은 이후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문둥시가 웨이하이시의 하나의 구(區)로 편입되면서 천안시는 문둥시(구)와 교류활동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만약 천안시가 문둥시와의 교류활동을 중단한다면 1997년부터 지속되어왔던 그간의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천안시는 향후 중국 도시들과의 우호협력 체결과 교류활동 전개 시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당진시

(1) 대중국 교류 현황 및 성과

당진시(唐津市)는 지명에서 보여주듯이 고래로 충남도에서 중국과 가장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며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다. 당진시는 현재 산둥성 르쵸오시(日照市)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랴오닝성 철령현, 지린성성 왕청현, 산둥성 교남시와 우호협력을 체결 중이나

자매결연 도시인 르썸오시와만 교류활동이 많고 그 외 우호협력 체결 도시는 협정 체결 당시에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 교류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당진시는 르썸오시와 비교적 늦은 시기인 2003년 11월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르썸오시는 산둥반도 동남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이며 면적은 5,310km², 인구는 약 280만 명에 이른다. 중국 10대의 항구도시로써 해안선이 100km에 달하며 국가 1급 개방항구가 2개 있다. 해안 도시이지만 본래 땅콩, 과일, 녹차, 담배잎 등 농산물이 유명하며 최근에는 기계, 전자, 방직, 화학, 식품, 전자산업이 발전해 공업지역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당진시가 르썸오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이유는 지역특성의 유사성 때문이다. 2003년 11월 르썸오시 한인기업인회 초청으로 당진군기업인회가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되었고 같은 기간에 우호친선교류협정을 르썸오시에서 맺으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간의 교류활동 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총 28회의 교류활동이 있었다. 주요 교류활동으로는 르썸오시 공무원의 당진군 파견(2004.3-2004.4), 르썸오시 공무원의 당진군 연수(2006. 12), 당진군 공무원 르썸오시 파견(2007.3-2008.3), 르썸오시 항만협약식 체결(2009.6), 르썸오시 녹차축제 참석(2012.7) 등의 교류활동이 있었다. 최근 들어, 당진시는 산둥성 르썸오시와 웨이하이시, 쟈장성 위환현(玉環縣) 등과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 협의를 맺었고 위환현과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환현의 공무원 1명은 현재 당진시에 파견되어 시청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당진시가 대중국 교류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대중국 물류운송 항로의 확대이다. 당진시는 현재 경기도 평택항에 치중되어 있는 물류운송량을 앞으로 당진시에서 그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는 지역 항만시설을 국제무역항 규모로 키우고 대중국 물류운송 항로도 중국의 유명 항구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 11월 당진시장을 비롯 15명의 사절단은 따론티, 장하시(庄河市: 따론티의 현급 항만도시), 칭다오시 등을 방문해 당진항과 각 도시의 항과 우호항만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양 도시 간 우호친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 대중국 교류의 문제 및 과제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 물류 도시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현재 당진항 중심의 국제적 항만클러스터 육성과 수도권 남부 및 대중국 물류거점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따론허, 칭다오항, 장하항, 잉커우항(營口港: 랴오닝성 소재)과의 항로 개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매결연 도시인 르짜오시와 2014년 우호협력 체결 예정인 짜장성 위환현과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각 도시별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열정적으로 맡아오면서 전문적 경험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통역 등 중국교류업무를 전담하는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자를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대중국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진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과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첫째, 현재 당진시가 따론허, 칭다오항, 쟁허항, 잉커우항 등과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항로 개설 노력이 독자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따론허와 칭다오항은 중국에서도 국가급 대규모 항구이기 때문에 항로 개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중 FTA 등 통상협상 진행 현황과 정치적 변화 추이를 잘 파악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통역 및 교류활동 인력뿐만 아니라 경제정세를 분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보충도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만약 현재 추진 중인 항로 개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기존에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르짜오시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르짜오시와 행정 및 학생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새로운 항로가 개설되고 우호협력 체결이 확대된다면 기존의 자매결연지역과는 교류가 줄어들고 그 교류수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의 양적인 확대는 항로 개설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서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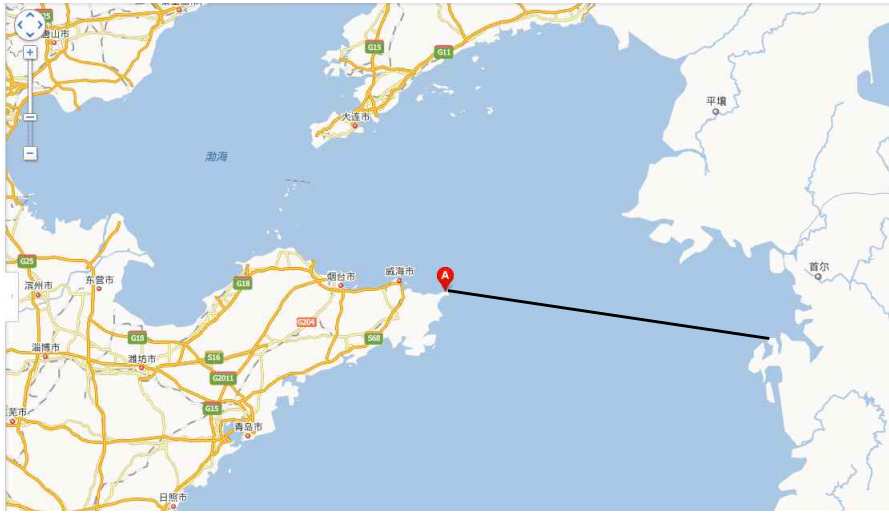
(1) 대중국 교류 현황 및 성과

서산시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지역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던 지역이다. 서산마애삼존불과 부석사의 역사가 말해주듯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불교문화가 이 지역을 통해 들어와 내륙으로 전파되었다. 서산지역은 당진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미성지 등 천주교 성지가 많은데 이 역시 중국의 영향이 컸다.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내포지역으로 들어와 당진과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천주교 교리를 전파하면서 그와 그의 사도들이 받은 박해의 역사가 이 지역 곳곳에 남아있다. 그만큼 서산은 앞선 문화와 사상을 먼저 받아들여 왔던 지역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 이후, 즉 백제가 패망한 이후부터 서산지역과 중국과의 교류는 많지 않았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일제의 침략 그리고 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과의 교류는 단절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 지역 또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서산시에도 새로운 기회가 왔다. 서산지역에 산업지가 만들어졌고 주로 석유화학과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이곳으로 집중되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대산항이 확대되었고 지금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기간산업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서산시는 최근 들어 방향을 선회해 중국과의 항로 개설을 통해 중국관광객 유치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기간산업인 에너지와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흐름이 점차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의 진흥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서산시는 현재 2015년 말을 목표로 대산항과 중국 산둥성 롱청시(營城市) 룡연항(龍眼港) 간 항로개설에 총력을 쏟고 있다. 서산시는 이미 2012년 롱청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항로 개설에 관한 협정서도 체결한 상태이다. 대산항과 룡연항 간 여객선 항로가 개설된다면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양 지역의 항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339km이다. 두 번째는 롱청시는 과거 백제와 통일신라시대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 신라소와 신라방 그리고 장보고의 근거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끊어진 역사를 잇는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림 3-21] 서산시 대산항과 산둥성 통청시 룡옌항의 직선거리도

지도출처: 百度地圖(<http://map.baidu.com/>)

서산시는 대산항과 통청시의 룡옌항 간 항로 개설을 위해 2014년 2월에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산항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여객터미널 1동(2층, 연면적 8,500㎡)과 접안시설 1선석이 들어서게 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양 지역에는 5천~25천 톤급 여객선의 운영이 가능하며 여객 능력도 500~1,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횟수는 현재 주 3~5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산시는 2015년 말 예정인 대산항과 통청시 룡옌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에 발맞춰 그동안 중국관광객 유치를 대비한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간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면, 인천·부산 차이나타운 벤치마킹(2013. 3),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른 단계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 용역 착수(2013. 5, 충남발전연구원), 평태항·군산항 벤치마킹(2013. 7),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응방안』 수요토론회 개최(2013. 8), 중국여행사와의 간담회 개최(2013. 9-10),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회의 참석 및 팸투어를 위한 중국여행사와의 협의(2014. 1-2)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준비는 서산시가 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한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다. TF팀은 주로 서산시청 항만물류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며 9개 분야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TF팀은 사업종료 또는 변동 전까지는 계속 운영되며 매 짝수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부시장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각 실과장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 대중국 교류의 문제 및 과제

서산시가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산항과 통청시 룡옌항 간 여객선 항로 개설은 서산시 미래 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며 서산시가 기존의 기간산업 위주에서 관광과 문화서비스 산업으로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서산시는 새로운 항로 개설로 인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중국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앞서 설명했듯 룡옌항은 산둥성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룡청시는 웨이하이시의 현급시로 인구는 약 71만 명이다. 물론 배후에 몇 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웨이하이시와 옌타이시, 나아가 전체 인구가 근 1억 명인 산둥성이 있지만 여행을 하기 위해 산둥성 끝자락에 있는 룡청시 룡옌항을 이용할 사람들이 많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인근의 웨이하이시와 옌타이시에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과 항공기가 있기 때문에 룡옌항의 이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한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단순한 여행객보다는 소규모 무역상(소위 보따리상)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을 타깃으로 한 관광객 준비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자원의 부족 문제이다. 서산시는 천수만 철새 도래지와 해미읍성 등 자연과 역사 유적이 많이 있지만 중국 관광객의 주된 목적은 대도시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서산에 오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산시에는 시내에 산둥성거리를 조성할 계획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인근의 아산시와 천안시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도 함께 참여해 지역 간 적극적인 연계와 상호 발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광객 유치의 문제이다. 대산항과 룡옌항 간 항로개설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여행객의 유치도 중요하다. 중국 관광시장에서 보면 우리

나라 관광객이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한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매년 중국을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산항-룡옌항 간 특화된 관광상품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중국관광은 이곳을 이용할 것이다. 룡청시가 있는 웨이하이시와 옌타이시는 중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휴양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고래로 신라방, 신라소, 장보고의 적산법화원 등 역사적으로 친밀한 사적들도 많고 이들 항구들은 근대 서구 열강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항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들의 아픈 역사를 오히려 잊지 않고 잘 복원해 지금은 서구의 어느 항구도시 못지않게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발전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따라서 고대와 근현대사의 의미를 잘 간직하고 있는 이들 지역은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대와 근현대가 어우러진 역사탐방으로 특화된 관광교류 활동이 필요하다.

4) 논산시

(1) 대중국 교류 현황 및 성과

논산시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교류는 많지 않았다. 중국 지역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없었고 우호협력은 랴오닝성 진저우시(2001년)와 허베이성 랑팡시(2004년)와 체결은 했지만 교류활동은 저조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산시는 이 지역이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유교의 본고장인 중국 산둥성 지닝시(濟寧市)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공자(孔子)’의 고향 취푸(曲阜)가 위치해 있는 지닝시는 산둥성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산둥성 서남지역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총면적은 1.1만㎢이고 전체 인구는 847만 명(2012년)이며 임성, 취푸, 연주, 쩌우청 등 11개 시·구·현과 1개 국가급 고신(高新: 하이테크)기술개발구와 1개 성급 관광휴가 등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닝시는 공자, 맹자, 안자, 증자, 자사자 등 5대 성인이 이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맹지향(孔孟之鄉)”이라고 불리며 京杭(베이징과 항주) 대운하가 지닝시를 경유하고 매년 운수능력이 5000억 만톤에 이르기 때문에 이곳을 “운하도시”라고 부른다.

논산시가 산둥성 지닝시와 적극적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역 유림협회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기호유교문화의 정신을 잇고 있는 유림협의회는 중국 지닝시에서 태동한 공자, 맹자의 유학사상이 조선시대 논산지역 기호학과 의예학사상으로 결실을 이뤘다고 여기고 있다.¹³⁾ 즉, 춘추전국시대 공자와 맹자에 의해 태동된 유학이 당, 송을 거쳐 주자(朱子)에 의해 주자성리학으로 정립되었는데 이를 고려시대 안향이 우리나라에 도입했다. 이후 조선시대 영남학과 이황과 기호학과 이이, 김장생, 송시열에 의해 조선성리학이 집대성되었다고 한다. 논산지역이 이처럼 유학과 밀접히 관련 있다는 근거는 이러한 사상적 흐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남아있는 많은 유적들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가 탄생한 지닝시 니산(尼山)과 논산시 노성산의 옛 지명이 같고 공교롭게도 현재 지닝시의 현급 시이자 공자의 고향인 취푸시에는 노성가도(魯城街道)가 있다. 또한 공자상을 봉안한 논산시 노성면의 켈리사(闕里祠)는 공자의 생장지 켈리촌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도 춘·추향 제례를 올리고 있다.

최근 들어와서는, 사상적 측면에서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이념적 혼란을 극복하고 중화사상의 부흥을 통한 중화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유학을 적극 진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극심한 물질중심의 자본주의체제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한 사회갈등과 인간성 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유교사상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유서 깊은 배경과 사회적 필요 때문에 논산시 유림협의회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유림협의회 회원 20-30명이 지닝시(취푸, 썬우청)의 공자와 맹자 탄생지 성지순례를 실시했고 금년 4월에도 30명이 이곳을 순례했다. 논산시는 앞으로도 올해 9월에 있는 지닝시 주최의 공자문화축제에 방문할 예정이며, 10월에는 강경젓갈축제에 지닝시 관계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해 논산시는 2015년 중에는 지닝시와 우호협력 혹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13) 논산시청 내부자료

[표 3-21] 최근 중국, 한국, 논산 유교문화의 변화 기류

국가 및 지역	최근 변화 기류
중국 유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제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가정이 파괴 □ 민족 간, 지역 간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정신문화 필요 □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의 전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성장 필요 → 따라서 유교는 중국인의 정신적 가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u>문화적 자산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유교문화 글로벌화를 추진</u>
한국 유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자에게 드리는 식전대제를 전통방식으로 올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 성균관이 유일 □ 유교문화의 원형이 잘 보존되고 계승되어 일상생활에 예의 뿌리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는 평가 → <u>전통예학의 공동체질서와 인간존중 정신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인성교육과 사회윤리 정립의 근간으로서 유교문화 정신 중요</u>
논산 유교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암서원, 종학당, 꺾리사, 서원, 향교 등 유형문화재 존재 □ 유림협의회를 중심으로 춘추향제 등 제향문화 명맥 유지 □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등 기호유교문화 기반 마련 추진 → <u>기호유교문화에서 중추적 역할을 위한 체계적인 발전 방향 모색</u> → <u>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충청유교문화 학문적 체계화 마련</u>

자료: 논산시청 내부자료

(2) 대중국 교류의 문제 및 과제

논산시의 대중국 교류활동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 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민간단체인 논산시 유림협의회가 주도하여 2010년부터 지닝시 유교 순례지를 방문하고 있다. 논산시는 경비의 일정 부분만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유림협의회와 논산시청 공무원들이 함께 지닝시를 방문해 본격적인 교류협력 분야를 협의하고 향후 추진 사업을 계획했다. 이처럼 논산시가 지닝시와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나서게 된 것은 유교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논산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교문화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유교문화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영남북부의 유교문화권사업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남북부지역의 영남유교문화권역은 성리학의 대가인 퇴계 이황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이러한 역사와 전통문화가 이 지역에서는 잘 보존되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지역 활성화 방면에서 유교의 활용은 많지 않았으나 지역개발사업에서 역사와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교문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유교문화를 활용한 교육, 문화, 체험, 관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곳 유교문화권에 수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울곡 이이를 태두로 김장생, 송시열, 윤증 등 영남유교문화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기호유교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저조했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현재 이 지역의 유교문화 자원과 역량이 영남유교문화권에 비해 뒤지기 때문이다. 영남유교문화권에서는 유교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반면, 기호유교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모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산시와 지역 내 유림협회가 주도적으로 기호유교문화의 보전과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적극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논산시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현재 논산시는 유교문화의 교류협력을 위해 산둥성의 지닝시와 왕래를 하고 있고 추후에 우호협력 내지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우려되는 점은 지닝시는 산둥성의 서남부 중심도시로 인구 규모만도 847만 명에 달하는 거대 도시이다. 논산시의 현재 인구 13만 명에 비하면 65배에 달한다. 이처럼 규모면이나 위상에서 차이가 나는 지역과 교류협력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지닝시는 현재 경북 영주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논산시는 지닝시보다는 여기에 속해있는 현급시인 취푸시(曲阜市)나 쩌우청시(鄒城市: 맹자의 고향)와 교류협력을 맺고 교류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취푸시와 쩌우청시는 우리나라의 다른 시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할 필요도 있다.¹⁴⁾

둘째, 중국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논산시가 기호유교문화권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논산시만의 역량과 자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남도와 각 지자체, 나아가 국가적인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 논산시에서는 이미 2007년 『논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 또는 충남도의 지원 부족의 원인도 있겠지만 논산시 자체적인 전략과 여건조성의 미흡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기호유교문화의 진흥이 단순히 과거의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라 유교를 활용한 문화산업이라는 측면과 중국현대문화를 적극 수용해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문화산업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14) 현재 지닝시는 경북 영주시와 우호협력 관계에 있고 취푸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안동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쩌우청시는 경기도 쩌우청시(鄒城市)는 경기도 연천군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나가는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논산시가 우선 필요한 것은 기호유교문화의 진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좀 더 중국과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 차원에서 중국어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과의 문화와 체험활동을 확대해 논산시 전체적으로 과거와 현대의 유교 및 중국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은 유교문화보다는 중국과 중국어 학습 등 실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충청도와 15개 시군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충청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충청도청 국제통상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자료와 관련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중국교류 업무 담당자와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또한 충청도 15개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15개 시군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대중국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한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3곳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했으며, 그 외 6곳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와는 간담회를 통해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충청도와 15개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특징과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충청도의 경우를 보면, 충청도는 현재까지 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8개 지역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1994년 허베이성과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산둥성(1995년), 사천성(1998년), 연변조선족자치주(2002년), 지린성성과 장쑤성(2005년), 상하이시와 사천성(2008년), 랴오닝성(2010년), 그리고 최근인 2013년 6월에는 윈난성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지역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행정교류 이외에 다양한 인적교류가 있었다.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지역인 허베이성과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연수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했고, 허베이성, 지린성성, 장쑤성, 사천성 등 모두 9개 지역 공무원 19명의 공무원이 K2H(Korea Heart to Heart)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도에 와서 연수했다. 충남

도는 또한 1999년 상하이시에 충남도 상하이상품전시관(현재는 상하이사무소)을 개설해 상주 직원을 파견했으며, 2009년에는 상하이무역관 사천분소를 개설해 운영했다. 2013년 말까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의 횟수와 인원은 각각 468회, 2,068명에 이른다.

이처럼 충남도는 그동안 행정 및 경제교류 이외에도 인적교류,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관광교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첫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방향과 초점이 희미하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교류의 폭이 넓고 다양해지는 것은 좋으나 교류협력지역이 넓다보면 충남도가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함으로써 충남도가 목표로 하는 상품수출의 기회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차원에서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중국과 교류협력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자칫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설명했듯 현재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얻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충남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충남도는 최근 ‘서해안비전’을 제시하고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 발돋움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환황해권의 핵심국가인 중국, 특히 발해만과 서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연해안 지역들과 어떤 교류협력을 실시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남도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중국의 9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연계 협력한 활동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충남도 자체적으로만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충남도와 각 15개 지자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충남도와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 간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하급 지자체 간 교류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자체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해 그간 축적한 다양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통상 교류사업 지원에서 민간단체 교류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도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상품전시와 판매 지원사업에 치중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민 다수가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에서 ‘서해안비전’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황해권 물류기지 육성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더 많은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이 정부 주도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다른 국가보다 중국의 비중이 앞으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대중국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의 보강과 함께 충청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과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자문위원회) 구성 등도 필요하다.

다음의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을 보면, 지역의 위치와 산업구조에 따라 그 편차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이 가장 활발히 중국과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있고 서해안지역인 서산, 태안, 보령지역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천안은 산업과 문화(흥타령축제 관련)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하며, 아산은 산업과 농업부문에서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당진과 서산은 새로운 항로개설 관련해 중국을 활발히 접촉하고 있고 태안은 관광 부문에서 중국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륙지역인 논산시에서는 기호유교문화권의 발전을 진흥하기 위해 최근 들어 산둥성 지닝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공주시, 계룡시, 서천시, 예산군은 자매결연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교류활동이 저조하며 서천군의 경우에서 서해안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 매우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15개 지자체의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지역의 상품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실제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 수출상담과 전시회 개최를 통해 계약추진 건도 상당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의 중개 혹은 지원으로 중국의 각 지역 혹은 단체와 교류도 진행되고 있다. 교류협력 분야는 주로, 의료, 문화행사(축제 참가, 고대 뱃길 탐방 등), 농업, 교육 및 홈스테이, 통상, 종교(유교) 탐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활동 추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각 시군 국제교류 담당자들은 중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중국어 능통자 등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제교류에서 어학과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가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부족, 의회와 지역민에 대한 설득의 어려움을 꼽았다. 전반

적으로는 중국과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정보의 부족, 지역주민과 의회 등의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들은 앞으로 중국이 해당 지자체에 경제통상 등 모든 면에서 영향을 줄 거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국 교류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73%에 달했다. 그 이유는 지자체 차원의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 때문이라는 의견이 33%를 차지했지만 그 외에는 지자체 차원의 방문교류 17%, 공무원 교육 및 연수 17%, 문화·예술·체육과 역사교류가 각각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전문인력의 보완이다. 현재 당진시와 보령시만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중국 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다른 시군은 임시방편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시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국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충당이 필요하다. 둘째, 충남도와 지자체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각 시군은 충남도와의 연계는 물론이고 지자체 간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충남도 전체적인 연계 및 협력인 어렵다면 항만을 확대하고 있는 서해안권역, 천안과 아산 등 북부산업권역, 공주와 부여 등 남부역사문화권역, 청양과 금산 등 농산물수출권역 등 권역별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이다.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는 의회와 지역민들에게는 물론이고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남도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자체 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산시와 논산시처럼 중국어 학습 동아리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지자체장과 리더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들이 중국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류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와 논의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 중국을 알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협력해 만든 「인천차이나클럽」이 참고할 만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제4장 충남도민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및 태도

1. 조사의 개요

1) 충남도민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및 태도조사 배경

앞서 제2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정부 외교정책이 신공공외교정책으로 바뀌면서 국제교류활동에서 일반 사회단체와 공공기관의 참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에 외교정책이 정부 주도형이라고 한다면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민간의 교류활동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외교정책의 흐름을 수용해 최근 국제교류 활동에서 민간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기존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주로 경제통상 분야 지원 사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거나 지방정부가 가교역할을 하고 협력활동은 민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교류 활동에서 민간단체의 참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장에서는 과연 충남도민은 변화하는 현대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실시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설문 목적: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 조사기간: 2014년 5월 12일-21일
- 조사대상 수: 677명(충남도 15개 시군 성인 남녀)
- 조사대행기관: 대전리서치
- 주요 조사내용: ① 중국 관련 개인적 경험 및 인식 실태, ②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실태, ③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

2) 조사 대상 현황

본 설문지의 일반 대상자 현황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조사 대상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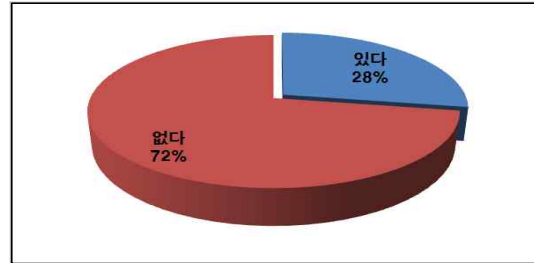
전체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	349	51.6%
	여자	328	48.4%
연령	30세 미만	95	14%
	30대	176	26%
	40대	176	26%
	50대	147	21.7%
	60대 이상	83	12.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3	44.8%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	346	51.2%
	대학원 졸업 이상	27	4%
직업	전문직	35	5.7%
	관리직	50	8.2%
	사무직	131	21.5%
	판매직	96	15.7%
	서비스직	86	14.1%
	생산직	39	6.4%
	농어업	173	28.4%
거주지역	천안시	113	16.7%
	공주시	40	5.9%
	보령시	39	5.8%
	아산시	80	11.8%
	서산시	44	6.5%
	논산시	39	5.8%
	계룡시	40	5.9%
	당진시	42	6.2%
	금산군	34	5.0%
	부여군	36	5.3%
	서천군	34	5.0%
	청양군	31	4.6%
	홍성군	34	5.0%
	예산군	36	5.3%
	태안군	35	5.2%
거주권역	서해안권역	160	23.7%
	북부권역	192	28.4%
	내륙권역	101	14.9%
	남부권역	113	16.7%

2. 주요 조사 결과

1) 중국관련 개인적 경험 및 인식 실태

(1) 중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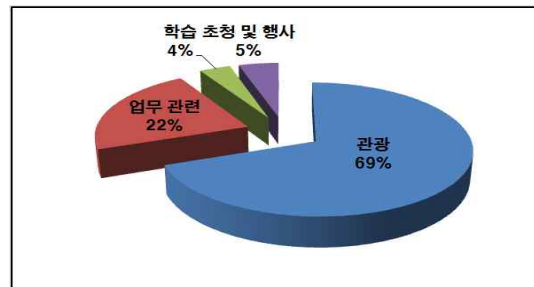
중국(타이완, 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8%인 187명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2%인 490명은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1] 중국 방문 경험 여부

(1_1) 중국 방문 목적

중국방문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목적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관광 69%, 업무관련 22%, 초청 및 행사 5%, 학습 4% 순이었다.



[그림 4-2] 중국 방문 목적

(2) 중국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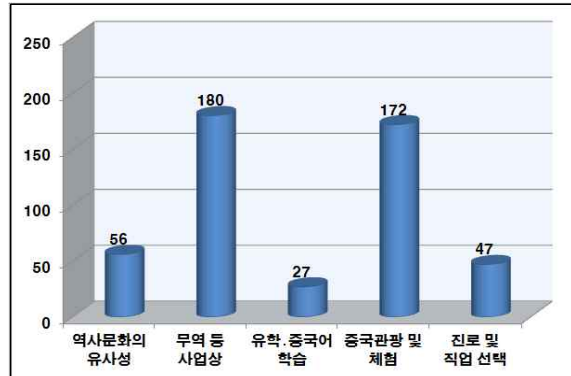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34.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간있다 31.8%, 별로 없다 26.6%, 매우 많다 5%, 거의 없다 2.2% 순이었다.



[그림 4-3] 중국에 대한 관심 정도

(2_1) 중국에 대한 관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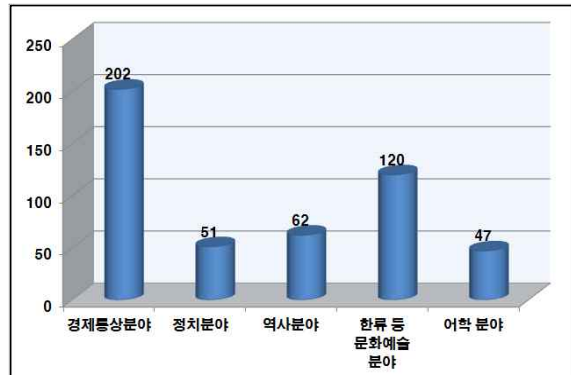
중국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37.3%인 180명이 무역 등 사업상 이유라고 응답했고, 중국관광 및 체험이 35.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머지 역사문화의 유사성 11.6%, 진로 및 직업 선택 9.8%, 유학, 중국어 학습 5.6%로 응답하였다.



[그림 4-4] 중국에 대한 관심 이유

(2_2) 중국 관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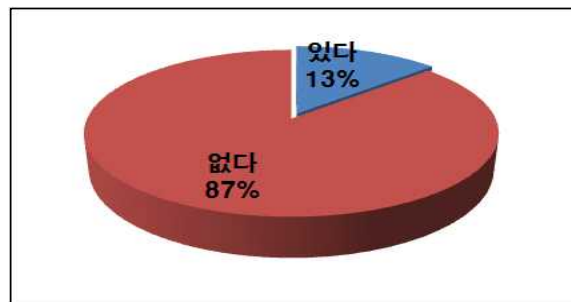
중국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야는 경제통상분야가 202명으로 41.9%가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한류 등 문화예술분야 120명, 역사분야 62명, 정치분야 51명, 어학분야 47명 순이었다.



[그림 4-5] 중국 관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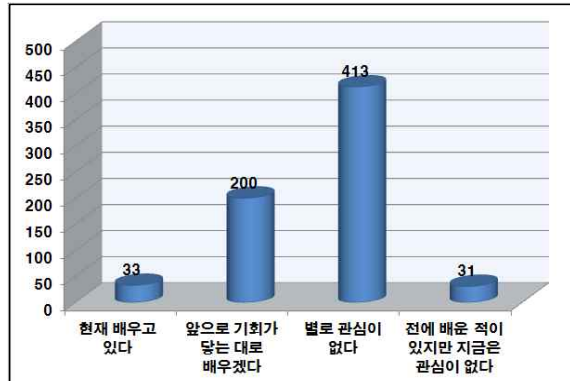
(3) 중국어 학습 여부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에 대한 관심으로 중국어를 배웠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3%만이 중국어를 배웠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87%는 중국어를 학습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4)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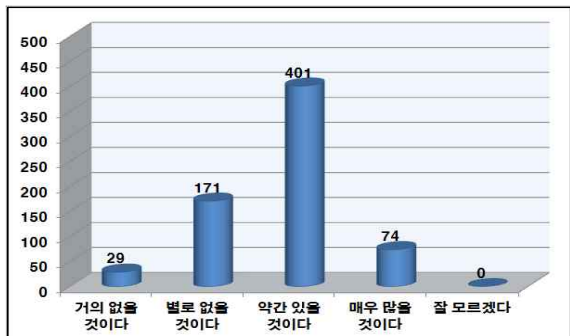
현재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응답자는 33명으로 4.9%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어 학습을 배운적이 없더라도 향후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배울 것이라는 응답자는 29.5%였다. 별로 관심이 없다 라는 응답자는 61%, 전에 배운 적이 있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다 라는 응답자는 4.6%로 나타났다.



[그림 4-7] 중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의지

(5) 중국의 경제부상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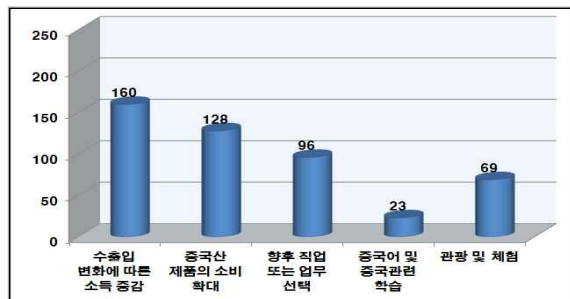
중국의 경제부상과 함께 향후 개인적인 일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59.4%는 영향이 약간은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11%는 매우 클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5.3%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4.3%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4-8] 중국부상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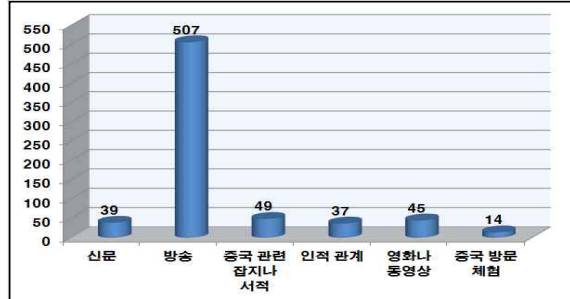
(5_1)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

중국의 경제부상이 도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33.6%가 수출입 변화에 따른 소득 증감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산 제품의 소비 확대 26.9%, 향후 직업 또는 업무 선택 20.2%, 관광 및 체험 14.5%, 중국어 및 중국관련 학습 4.8% 순이었다.



(6) 중국에 관한 이해와 정보습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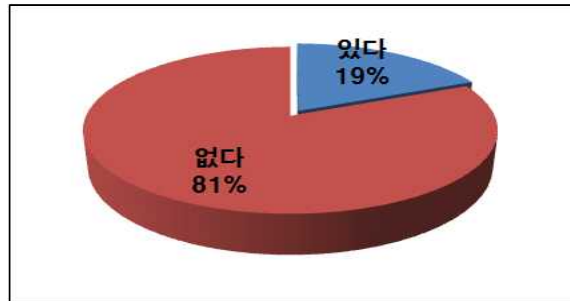
중국에 관한 이해와 정보습득을 얻게 되는 매체를 조사한 결과, 73.4%가 방송을 통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는 중국 관련 잡지나 서적 7.1%, 영화나 동영상 6.5%, 신문 5.6%, 인적 관계 5.4%, 중국 방문 체험 2% 순이었다.



[그림 4-10] 중국에 관한 이해와 정보습득 방법

(7) 중국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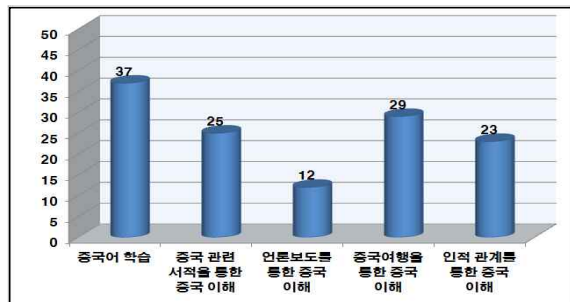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중국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의 여부에서 19%는 계획이 있다고, 81%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11]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 여부

(7_1)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분야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29.4%는 중국어 학습, 23%는 중국여행을 통한 중국 이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관련 서적을 통한 중국 이해 19.8%, 인적 관계를 통한 중국 이해 18.3%, 언론보도를 통한 중국 이해 9.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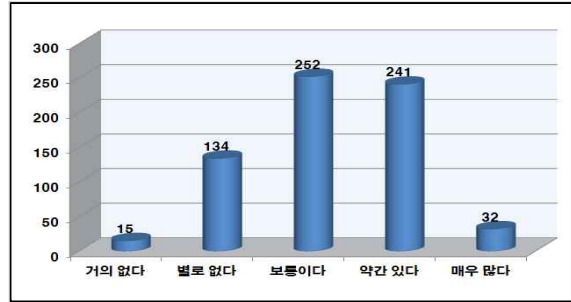


[그림 4-12]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하는 분야

2)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실태

(1)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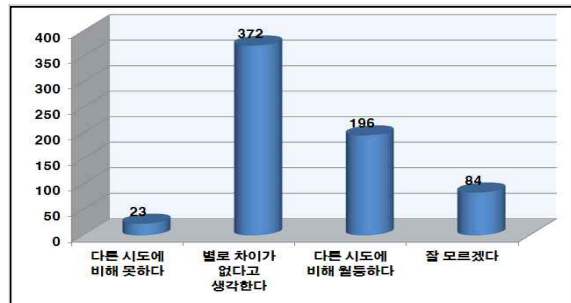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35.8%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7%인 32명은 관심이 매우 많음을 표현하였다. 37.4%는 보통, 19.9%는 별로 없음을, 2.2%는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4-13]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

(2)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충남도와 다른 시도 지자체 비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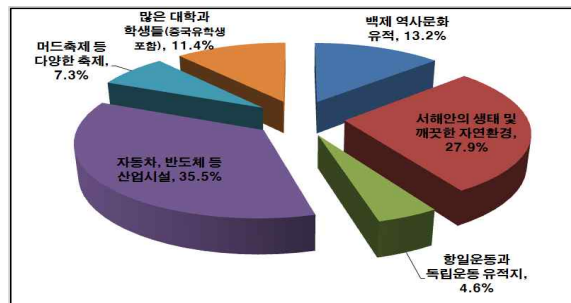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충남도와 다른 시도 지자체를 비교평가한 인식도에서 55.1%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29%는 충남도가 다른 시도 지자체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시도에 비해 못하다는 의견이 3.4%, 잘 모르겠다 라는 의견이 12.4%였다.



[그림 4-14]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충남도와 타시도 비교 인식도

(3)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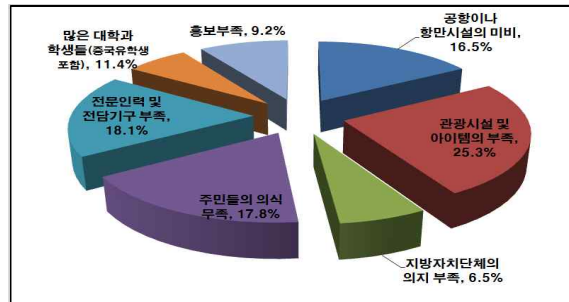
충남도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시에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35.5%는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시설이라고 응답하였고, 27.9%는 서해안의 생태 및 깨끗한 자연환경이라 응



답하였다. 다음으로 백제 역사문화 유적 13.2%, 많은 대학과 학생들 11.4%, 머드축제 등 다양한 축제 7.3%, 항일운동과 독립운동 유적지 4.6% 순이었다.

(4)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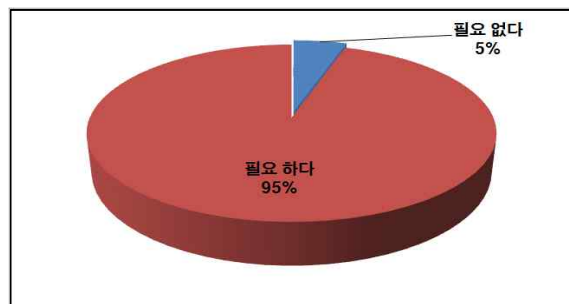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에 예상되는 가장 큰 약점에 대하여 25.3%는 관광시설 및 아이템의 부족이라 응답하였다.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 부족 18.1%, 주민들의 의식 부족 17.8%, 공항이나 항만시설의 미비 16.5%, 홍보 부족 9.2%,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6.5%, 재정의 부족 6.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6]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약점

(5) 충남도 및 각 시군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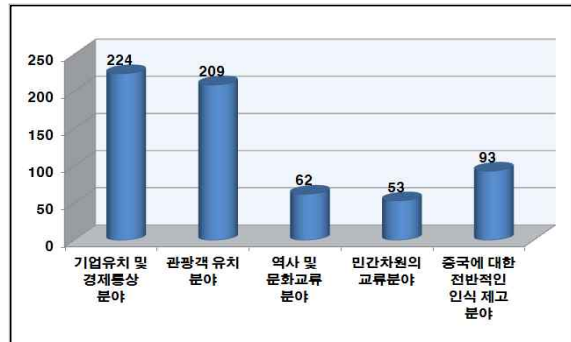
중국경제의 G2 부상에 대비해 충남도 및 각 시군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조사에서 9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림 4-17] 충남도의 대중국협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여부

(5_1) 전략적 대중국 협력이 필요한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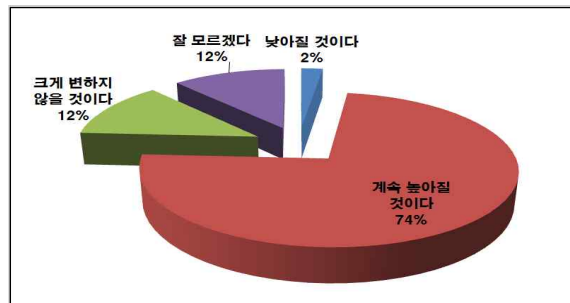
충남도 및 각 시군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34.9%가 기업유치 및 경제통상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 분야 32.6%,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분야 14.5%, 역사 및 문화교류 분야 9.7%, 민간차원의 교류 분야 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대중국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6)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전망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전망에 대하여 74%는 향후에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잘모르겠다 라는 의견이 각각 12%,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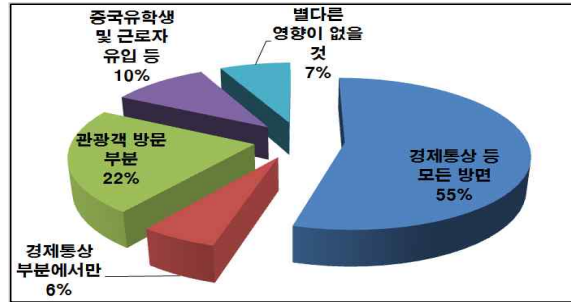


[그림 4-19]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전망

3)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비전

(1) 향후 5~10년에 중국이 충남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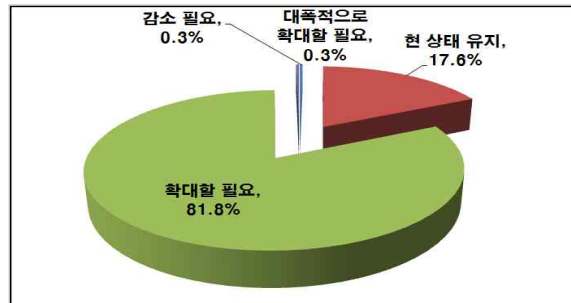
향후 확대될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하여 중국이 충남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55%는 경제통상 등 모든 방면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관광객 방문 22%, 중국유학생 및 근로자 유입 10%,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7%, 경제통상 부분에서만 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0] 향후 중국이 충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2) 향후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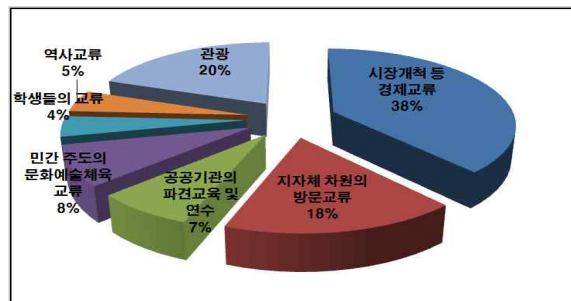
향후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하여 81.8%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현 상태 유지에 대하여 17.6%, 대폭 확대와 감소필요 에서는 각각 0.3%로 나타났다.



[그림 4-21]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2_1) 대중국 교류협력확대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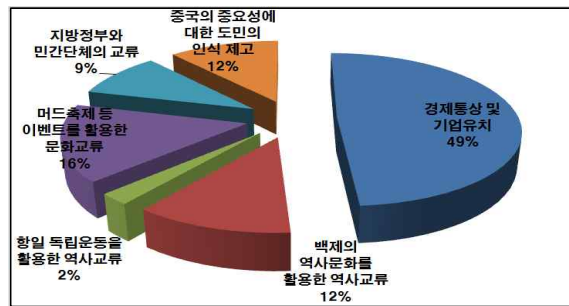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이 확대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에 38.2%, 관광 19.6%, 지자체 차원의 방문교류 17.5%,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체육 교류 8.4%, 공공기관의 파



건교육 및 연수 7.4%, 역사교류 4.6%, 학생들의 교류 4.3% 순으로 조사되었다.

(2_2)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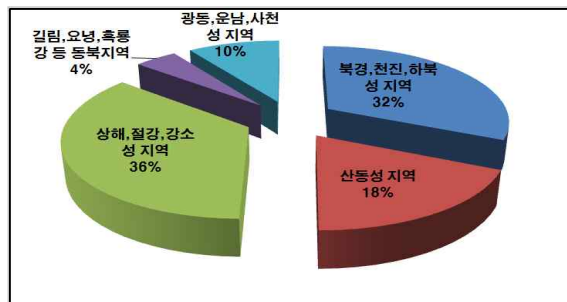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48.9%가 경제통상 및 기업유치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머드축제 등 이벤트를 활용한 문화교류 16.1%, 백제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역사교류 11.7%, 중국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 11.5%,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교류 9.5%, 항일독립운동을 활용한 역사교류 2.4% 순이었다.



[그림 4-23]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

(2_3)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한 중국의 지역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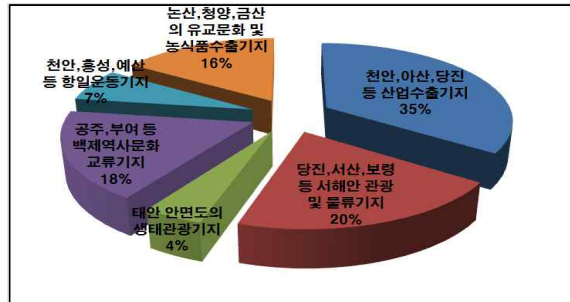
향후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을 추진할 시에 중국의 어느 지역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조사 결과, 상하이쑤장·장쑤성 지역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베이징·톈진·허베이성 지역이 32%로 나타났으며, 산둥성 지역 18%, 광둥·운남·사천성 지역 10%, 길림·요녕·흑룡강 등 동북지역 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4] 대중국 교류협력 시 중국 지역 선호도

(3) 향후 충남도에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기지를 만든다면 가장 우선시 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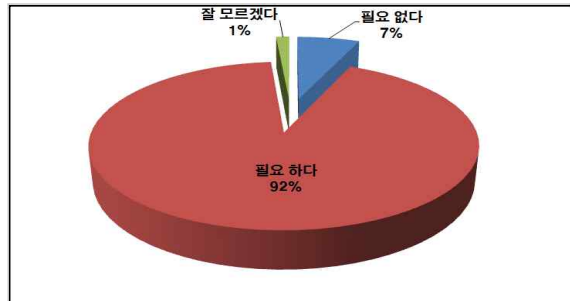
향후 충남도에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기지를 만든다면 가장 우선시 될 분야로서 34.6%가 천안·아산·당진 등 산업수출기지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당진·서산·보령 등 서해안 관광 및 물류기지에 20.3%, 공주·부여 등 백제역사문화 교류기지 18%, 논산·청양·금산의 유교문화 및 농식품 수출기지 16%, 천안·홍성·예산 등 항일운동기지 6.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5] 대중국 교류협력 거점 기지 구축시 가장 우선시 될 분야

(4) 충남도 자체적으로 중국 및 국제교류협력을 전담하는 기관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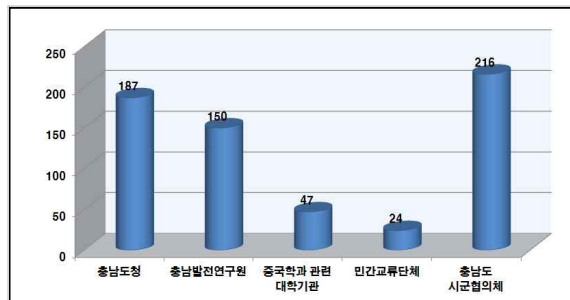
충남도 자체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충남도 국제교류재단 혹은 충남도 국제협력센터 등의 기관 설치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만이 필요 없다, 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6] 충남도 국제교류협력 전담기관 설치 동의 여부

(4_1) 전담기관의 설치 시,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

충남도 자체적으로 국제교류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할 시에, 그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충남도 시군 협의체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충남도청 30%, 충남발전연구원 24%, 중국학과 관련 대학기관 7.5%, 민간교류단체 3.8%순으로 조사되었다.



3.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 설정에 앞서 충남도민이 변화하는 중국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알아봤다. 충남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7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본 설문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충남도민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충남도민(성인 남녀)의 28%는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주된 목적은 관광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편이 없다는 편보다 많았으며 관심의 이유는 무역 등 사업상의 이유가 37.3%, 관광 및 체험이 35.7%로 높았다. 중국어를 학습했거나 학습하고 있는 비율은 13%에 달했다. 중국의 경제부상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4%로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29.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수출입 변화에 따른 소득 증감, 중국산 제품의 소비확대, 향후 직업 또는 업무 선택, 관광 및 체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비율은 19%로 낮게 나타났다. 즉 중국의 부상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어를 배우거나 중국 관련 서적을 읽는 등 중국을 이해하려는 개인적 노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도민의 인식 실태 결과이다.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0.5%이고 없다는 비율은 22.1%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은 다른 지자체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거나 못하다는 의견이 58.5%로 다른 시도보다 잘 하고 있다는 의견 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시설이 3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해안의 생태 및 깨끗한 자연환경이 27.9%로 높았다고 백제역사문화유적은 13.2%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국 교류협력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약점으로는 관광시설 및 아이탬의 부족이 2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의 부족 18.1%, 주민들의 의식 부족이 17.6%, 공항이나 항만시설의 미비가 16.5%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부족은 6.5%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에서 물적 기반이 취약하

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셋째, 충남도민의 81.8%는 대중국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가 38%로 가장 높고, 지자체 차원의 방문교류가 18%,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체육교류가 8%, 공공기관의 파견교육 및 연구가 7% 순으로 나타났다. 역사교류는 5%로 낮게 나타났다. 충남도가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국 지역은 상하이·쑤저우 등 장강삼각주 경제권역이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베이징·톈진·허베이지역이 32%를 차지했다. 충남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산둥성의 비중은 18%를 차지했다. 이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은 여전히 경제통상이 중요한 우선 순위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국제교류협력을 전담(대중국 교류협력 포함)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의 92%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설치 및 운영의 주체는 충남도 시군협의체가 3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도청이 30%, 충남발전연구원이 24% 순이었다. 대중국 교류협력을 비롯 교제교류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해 충남도 시군이 주체가 된 국제교류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충남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전문가와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국 교류협력을 포함한 충남도의 국제교류정책 또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서는 이를 잘 참고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1. 대중국 교류협력의 대내외 여건 변화

앞서 제2장에서 설명했듯,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최근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으며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인문교류의 확대 등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일찍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로써 중국의 톈진시 및 따론티(랴오닝성)와 적극적으로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천시, 우리나라 최대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산둥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등과 경제적 실리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새만금 건설과 무안공항의 신설을 기점으로 중국자본(기업)의 유치를 위해 중국의 쩌장성, 푸젠성, 장쑤성 등과 적극적인 교류활동은 펼치고 있는 전남북, 안정된 지역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중국자본 유치를 통해 또 다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대구와 부산 그리고 경남북, 그리고 특별자유시 지정 이후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한 해 약 2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제주도 등 각 지자체의 ‘차이나프로젝트’는 이제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어버렸다.

이에 반해, 충남도는 국토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대중국 교류협력 부문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충남도는 옛 백제의 영토로써 오래 전부터 중국과 교류해 새로운 문화를 도입함으로써 나라를 부흥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워 많은 항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산업체들이 대안으로 충남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대중국 경제통상은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울산과 경남 등의

많은 산업시설들이 대중국 교역을 위해 물류비가 적게 드는 충남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충남도청이 2014년 1월 내포신도시로 이전되면서 충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서해안비전’의 미래 발전이 환황해권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면 대중국 교류협력은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이 경제통상 및 모든 방향에서 변수가 아닌 중요한 상수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충남도가 실시해온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가운데 좋은 성과는 확대하고 문제점은 개선하며 충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들은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1) 대중국 교류협력에서의 충남도 정체성 제고

충남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지역이자 서해안의 중심 지자체이기도 하다. 최근 천안, 아산, 당진 지역이 대중국 수출기지로 발전하면서 현대와 삼성 등 대기업들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곳으로 입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울산과 경남지역 기업들도 최근에는 충남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47%로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경제통상 부문을 제외하면 대중국 교류협력 수준은 낮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비해 뚜렷한 특색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충남도에서 ‘서해안비전’을 제시하고 환황해권 물류기지 육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방정부와 어떤 교류활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2003년부터 황해권역 5개 광역자치단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활동도 현재 중단된 상태여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없는 상태이다. 물론 ‘서해안비전’의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은 실시한 바 있지만 소수의 충남도청과 각 시군 담당자, 학계와 연구자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뿐 충남도 차원으로 공론화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향후 충남도가 서해안 중심지역으로써 서해안지역 지자체들과 공동발전하고 충남도 15개 시군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환황해권 발전을 위한 서해안지역 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환황해권지역인 우리나라의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과 중국의 랴오닝, 텐진, 산둥, 장쑤, 쑤장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친밀감도 강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교류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다른 지역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의 연계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환황해권지역의 포괄적인 문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물론 운영 주체와 방식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기존의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의 부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먼저 운영을 시작한 다음 이후 관심이 있는 광역 지자체들이 합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 내포신도시의 정체성 및 위상 제고

충남도청은 80년간의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2014년 1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도시의 기반이 전혀 없는 이곳으로 이전한 데에는 충남도 내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주된 목적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내포지역은 중국의 선진화된 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 지역 깊숙이 전파했다. 중국문화, 불교, 천주교 등 선진사상을 일찍 받아들여 이곳, 특히 서산과 당진을 통해 국내로 전파됐다. 당진(唐津)은 일찍이 중국 당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근현대에 들어와서 내포지역은 일제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에 맞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항일투쟁을 강렬하게 전개했던 의혈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는 직접 중국에 건너가 항일투쟁운동을 펼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내포지역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태안 앞바다에서는 제1차 청일전쟁 당시 일본 함정과 청나라 함정이 격돌해 청나라 함정이 이곳

에서 침몰한 아픈 역사가 있으며 2007년에는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河北¹⁵⁾精神號)와 ‘삼성 1호’가 태안 앞바다에서 충돌하면서 기름을 유출해 이곳에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깊은 내포지역이 이제 새롭게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이러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상징화작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교류역사문화관’¹⁶⁾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아직은 도시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내포신도시 내 대중국 연구, 학습,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을 갖춘 실질적인 ‘차이나 콤플렉스’의 건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장기적이라면 단기적으로도 가능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내포신도시 내 현재 충남도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 중인 지역과의 우의를 표시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년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체결 20주년을 기념하여 내포신도시 내 건설 중인 도로 이름 가운데 하나를 허베이성의 성도인 스자좡시(石家庄市)의 이름을 딴 ‘석가장로’로 명명하거나 내년이 충남도와 장쑤성 간 우호협력 체결 10주년이기 때문에 장쑤성의 성도인 난징시(南京市)의 이름을 딴 ‘남경로’를 개설해 충남도와 이들 지역 간 우의를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광저우(廣州)시와의 우의를 기념하기 위해 광주월드컵 경기장 앞 도로를 “광저우로(廣州路)”로 명명했다. 나라는 다르지만 서울의 강남신도시가 개발될 당시 한국과 이란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테헤란로’를 만든 것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3) 지역별 특성화된 교류협력거점 기지 마련

충남도의 지역별 대중국 교류협력의 특성을 보면, 천안아산당진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철강 등 산업수출기지이고, 당진서산보령은 서해안 관광 및 향만물류기지, 천안예산홍성은 항일운동역사의 기지, 금산청양논산 등은 농산물과 유교문화의 기지, 공주부여는 백

15) 하북, 즉 허베이성(河北省)은 공교롭게도 충남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유일한 중국 지방정부이다.

16) 현재 부여에 조성된 백제역사문화관(백제문화단지)이 주로 일본과의 교류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포신도시 ‘한중역사교류문화관’은 중국과의 교류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통해 충남의 남쪽은 대일본과의 교류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북쪽은 대중국과의 교류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역사문화 교류기지, 태안은 생태관광의 기지이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는 환황해권 중심 기지이다. 물론 이들 지역은 각 지역이 현재 진행되거나 향후 추진 중인 계획을 감안한 대중국 교류협력 기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앞으로의 대중국 교류가 개별 지자체 단위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별로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4장에서 설명했던 충남도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충남도에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 기지를 만든다면 가장 우선시 될 분야는 천안·아산·당진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철강 등 산업수출기지이고, 두 번째는 당진·서산·보령은 서해안 관광 및 항만물류기지, 세 번째는 공주·부여는 백제역사문화 교류기지이고 다음으로는 금산·청양·논산 등은 농산물과 유교문화의 기지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들은 우선순위가 낮았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참고해 지역별 특성화된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을 각 시군들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각 시군 또한 충남도와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과 공동으로 대중국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역별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이 마련되면 지역적 뿌리도 더 공고해질 것이다.

2) 충남도와 각 시군 간 협력체계의 구축

현재 충남도는 중국 허베이성 1곳과 자매결연 상태이며 산둥성, 쓰촨성, 윈난성 등 8개 지방정부와 우호협력 체결을 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 15개 시군에서는 모두 10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16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한 상태이다. 충남도는 충남도 나름대로의 이해와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의 성급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체결을 하고 있으며, 15개 지자체 역시 지역의 특성과 역사문화, 그리고 항로개설 등 경제적 실리를 목적으로 중국의 각 사·현과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또한 협정 체결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교류협력의 체결과정을 보면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충남도와 각 시군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각 15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방정부 단위이기 때문에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도 각 시군의 이해를 대변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각 시군과 함께 대중국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

과를 보면, 충남도는 충남도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각 지자체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대중국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각 시군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충남도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당진항의 확장과 함께 추진 중인 대중국 항로개설을 위해 당진시와 충남도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20년의 경험과 관계개선의 노력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게 여러 정보를 주고 있지만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체계적 연계와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도와 허베이성은 자매결연 지역으로 두 지방정부 간에는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두 지역의 산하 정부 간의 교류협력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천안시가 석가장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논산시 또한 낭팡시(廊坊市)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이다. 충남도는 금년 허베이성과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교류협력 활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참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의 가변성으로 인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특히 각 시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재 15개 지자체는 중국의 10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16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맺고 있다.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체결을 통해 오랫동안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최근 들어, 지자체의 여건 변화가 지속되면서 교류활동의 대상지역이 바뀌거나 새롭게 교류활동을 개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념할 것은 교류협력의 대상이 바뀌면 그동안의 노력들이 무의미 되고 행정적, 재정적 낭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장의 일시적인 판단에 의한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보다는 상호 실리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의 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자체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충남도와의 협력적인 관계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대중국 교류협력의 정보 공유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충남도는 1994년 허베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후 8개 성급 정부와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뒤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도청 내 국제교류팀 안에는 10년 이상 중국 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도 있다. 따라서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각 시군에 전수하고, ‘서해안비전’ 등 향후 충남도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각 시군,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대중국 교류협력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시군 담당자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다. 또한 충남도민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협의체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시군 담당자의 경우에는 충남도청을 선호했고, 충남도민은 시군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선호했다.

(2) 교류협정 체결 시 충남도와 각 시군 간 연계 협력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분권의 강화로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과 미래 발전에 부합한 중국의 지방정부를 선택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당진시는 당진항 확장에 따라 새로운 항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산둥성 르짜오시뿐만 아니라 칭다오항, 따론허, 잉커우항(랴오닝성의 항구도시) 등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멀리는 푸젠성 위환현(玉環縣)까지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천안시는 우호협력 도시인 산둥성 문등시(文等市)가 웨이하이시의 하나의 구(區)로 편입되면서 이 지역과 계속 교류를 해야하는 지 고민하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에는 유교문화의 교류확대를 위해 산둥성 지닝시(濟寧市)와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직 공주, 서천, 예산 등은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적합한 지역을 찾아 자매결연을 추진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 교류담당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인력도 부족하지만 중국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적합한 지역을 선택해 어느 정도 장기간의 교류활동을 통한 신뢰관계가 구축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교류협력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겠지만 한번 협정을 체결하면 꾸준한 교류활동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도는 각 지자체의 교류협정 체결과정에서 적합한 지역이 선택될 수 있도록 자문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활동 또한 충남도와 각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추진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의 제공과 국제교류 담당자 간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3)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중국은 2040년이 되면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전세계 교역량과 구매력지수를 따지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력에서도 중국은 이미 아세안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BRICS와 아프리카국가들, 남미와 유럽국가들과도 외교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중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특히 충남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유사하며 문화적으로 동질감이 강한 중국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슈퍼파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보다는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최근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며 많은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핵심 업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필요하다.

(1) 대중국 이해 교육 강화

중국에 대한 이해는 단지 대중국 교류협력을 담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대중국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무엇보다 중요해지자 웨이하이시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한국 대학기관에 3-6개월 기간 동안 파견해 한국어와 한국을 이해하는 연수를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가운데 60%는 한국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한국어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중국을 이해하는 교육, 강좌, 연수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대중국 교류협력 부서가 회피부서이며 단지 순환보직으로 잠깐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중국어와 중국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삼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중시하는 금산군의 경우, 인삼약초과 경제통상분야 행정직 공무원이 이 부서에서 7년 이상을 담당하며 전

문성을 쌓아가고 있는 사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자발적 참여의 중국 관련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중국관련 교육 및 강좌, 중국 연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한 대중국 이해 활동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기관에서의 자발적인 학습동아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중국 산둥성 룡청시(榮城市) 룡옌항(龍眼港)과 2015년 중으로 여객선을 개항할 예정인 서산시의 경우, 시청 내에 중국어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시청공무원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열기 또한 뜨겁다. 중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중국인 강사의 소개로 1년에 한 차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을 직접 체험하고 변화하는 중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013년에는 중국 사천성지역을 탐방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경우 원내에 중국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매년 우수 참여자에 대해 단기 중국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에서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편으로 현대중국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중국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대중국 교류협력 허브 기능 강화

현재 충남도 내 각급 기관에는 대중국 교류협력 부서들이 존재한다. 충남도청의 경우 국제통상과 내 국제교류팀에서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을 총괄하고 있으며, 15개 지자체마다 부서명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획감사실 내 국제교류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으로써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미래전략연구실에서 주로 중국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충남농업기술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경제통상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청소년진흥원 등에서 교류사업을 진흥하고 있다. 대학기관으로는 공주대, 단국대, 한서대, 선문대 등의 중국관련 학과와 경제통상 관련 학과 등에서 주로 대중국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각 대학 내에는 1천 명 안팎의 중국 유학생이 이곳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논산의 유림협의회와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행정 및 공공기관과 각급 민단단체가 개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유사 단체 간 연계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부분 간 통합적인 연계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략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도청 내 대중국 교류협력 분야 역량 강화

충남도청 내 대중국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통상실 국제통상과 내 국제교류팀이다. 국제교류팀은 국제통상과 내 국제지원팀, 일본팀, 통상지원팀, 해외사무소 가운데 하나의 팀이다. 여기에는 팀장인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전문위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3명의 공무원이 중국교류뿐만 아니라 충남도 전체적인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기존의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정책이 통상지원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교류협력으로 기조가 전환되면서 민간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교류 대상지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은 크게 세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국제교류팀 내 주무관급 인력을 보완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현재 국제통상과 내에 일본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국제교류팀에서 중국교류팀을 분리하여 중국교류만 전담케 한다. 물론 인력은 변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교류협력과 관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교류의 일정부분이 이 ‘민관협의체’에서 담당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2) 15개 시군에 대중국 교류 전담자 배치 필요

현재 충남도 내 15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 국제(중국)교류 전담자 가운데 중국어 가능자는 1명으로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최근 지방계약직으로 채용된 조선족 결혼이주자이다. 또한 당진시에는 4-5년 동안 국제교류 업무만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으며 중국 푸젠성 위환현에서 파견 나온 중국 공무원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당진시가 환황해권의 새로운 물류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비친다. 금산시의 경우에는 국제교류 담당자와는 별도로 인삼약초과에 7년 동안 경제통상분야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다. 국제시장 특히 중화권 인삼 시

장 개척을 위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논산시와 부여군의 경우에는 관광분야 직원이 필요시 교류업무를 협조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지자체의 국제(중국)교류 담당자들은 대부분 행정직으로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필요시 관내 조선족 결혼이주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물론 15개 지자체 모두 중국 담당 전담자를 배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중국 교류가 빈번한 지자체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논산시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교류활동을 하면서 느낀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의 지방정부에는 거의 대부분 대외관사처(對外辦事處)가 있으며 이 부서에는 외국어 능력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전문으로 대외교류 업무를 담당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공무원과는 수준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중국의 지방정부는 조직을 갖추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자체의 중국교류 담당자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류업무를 회피하고 있어 교류업무 추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연수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류업무를 위해 당진시와 같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 행정직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교류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대중국 연구 기능의 강화

중국 연구에 관한 시도연구원의 상황을 보면, 시도 연구원 가운데 가장 활발히 대중국 연구를 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은 동북아연구센터에서 주로 경제, 물류, 관광, 지역 연구 등의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발전연구원은 한중교류센터에서 대중국 연구를 실시했다. 최근 이 연구센터가 해체되고 연구진이 도시경영연구부 등으로 흡수되긴 했지만 중국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중국 연구 결과와 중국 도시정보 분석 내용 등을 메일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연구자 및 일반인 등에게 송부하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2012년 9월 국내 시도연구원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주로 관광과 경제통상 분야에서 일부 중국 연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부서는 없다. 물론 아직 대중국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 부서의 설치는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향후

환황해권 교류협력 강화 등 충남도 내 각 기관들의 대중국 교류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부서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대학과 민간단체의 교류활동 증진

현재 공주대, 한서대, 선문대, 단국대 등 도내 많은 대학들에는 중국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중국과 자체적으로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고 현재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도내 각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갈 경우 이들은 실질적으로 충남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충남도에 머무는 동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적지 탐방, 산업체 탐방 등 충남알리기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 국제교류과, 경기개발연구원 중국연구 연구진 그리고 각 대학 국제(중국)교류 담당자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중국 유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이들 유학생들은 각 지자체의 교류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진시가 산둥성 르짜오시와 추진하고 있는 학생홈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이들 유학생들은 통역 및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도내 한국학생이 중국에 유학 및 연수를 갈 경우에도 충남도는 해당 대학과 협의해 가급적 충남도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지방정부 산하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정 체결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내 민간단체 가운데에는 논산의 유림협의회, 부여의 청년포럼, 천안의 단국대의료원, 아산의 영인농협 정도가 각 지자체의 중개 또는 지원으로 중국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민간단체 독자적으로 대중국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우선 중개 및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 안정기를 거친 후에는 독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5) 충남도 중국사무소 기능 강화 및 확대 개편

충남도는 현재 주요 국가에 세 개의 해외사무소와 연락관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LA사무소(1997년 뉴욕에 설치 후 2008년 이전, 중국 상하이사무소(1999년 개소), 구마모토 연락관

(1998년 개소 후 2008년 연락관으로 변경)이 그것이다.

충남도 상하이사무소에는 현재 소장, 부소장, 현지직원 3명 등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지원, 도내 공산품 및 농수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와 상담, 관광객 및 유학생 유치, 중국기업의 도내 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사무소(초기 이름은 「상하이상품전시관」) 개설 후 2009년 5월에는 중국의 서부 대개발정책으로 중서부지역의 지원정책이 강화되자 충남도에서도 이 지역으로의 시장개척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상하이무역관 쓰촨(四川)분소를 설치했다. 그 후 쓰촨분소 설치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개설 3년 반 만인 2012년 12월에 결국 폐쇄했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47%로 일본, 미국과 합친 양보다 높고 충남도의 위상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왕래도 급증하고 있어 충남도가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에 효율적이고 상징적인 지역을 선택해 추가적으로 중국사무소를 개설한다면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여건이 형성된다면 추가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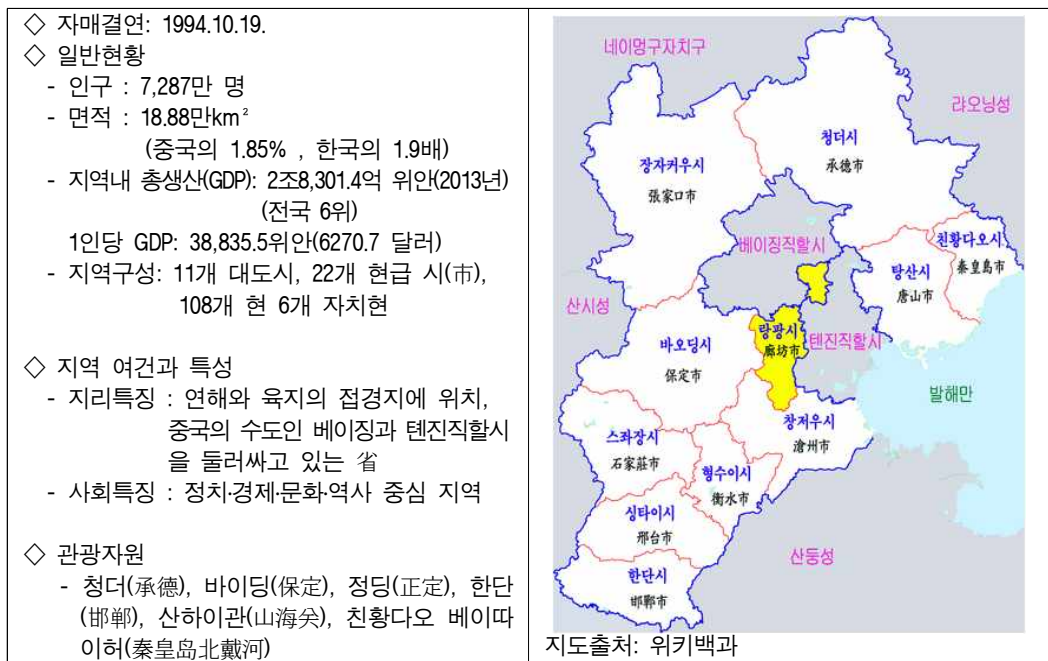
설치지역은 크게 두 곳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수도 베이징이다. 베이징은 중국의 거의 모든 분야의 중심이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당진, 서산, 보령 등이 산둥성과 랴오닝성의 항구와 신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어 그 중심인 베이징이 이를 관할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 자체적으로 개설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충청권인 대전·세종·충북도와 공동으로 '베이징충청사무소'(가칭) 개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홍콩이다. 홍콩은 중국 남방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나아가 세계금융과 교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무소 개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충남도는 원안성, 광둥성, 쓰촨성과 우호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무소가 개설되면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이곳 역시 단독 개설이 어려울 경우 충청권이 연합해서 개설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3. 충남도-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방향

1) 허베이성의 개황

충남도와 허베이성(河北省)은 1994년 10월 19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2013년 말 기준 허베이성의 인구는 7,287만 명이고 면적은 18.88만km²으로 남한 면적의 1.9배에 해당된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직할사인 톈진시를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은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의 중심지이다. 행정구역을 보면 성 내에 11개 지급(地給) 시와 22개 현급(縣級) 시, 108개 현과 6개 자치현이 있다. 허베이성은 내륙에서 동북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중화학공업과 석탄, 석유,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림 5-1】 허베이성의 개황 및 위치도

허베이성은 베이징시와 톈진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래로 역사문화 유적이 많으며, 관광과 군사요충지로써도 유명하다. 청나라 황제의 피서산장이 있었던 청더(承德), 대원군이 피

실했었던 바오딩(保定), 일찍이 조(趙)나라의 수도이자 군사요충지였던 한단지보(邯鄲之步)의 한단(邯鄲), 3황5제의 한 명인 치우(蚩尤)천왕의 전설이 있는 장자커우(張家口), 중국지도자들이 애용하는 피서지로 유명한 친황다오의 베이따이허(北戴河)와 중공 팔로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조선의용군의 활약지 한단시 서현(涉縣) 등이 있다.

허베이성은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른 여타 동부지역에 비해 발전이 뒤쳐졌으나 최근 들어 연해지역 가속화와 국가급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징진지(京津冀)경제권의 배후기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연해강성(沿海強省)’을 목표로 연해경제벨트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연해도시인 탕산(唐山), 친황다오(秦皇島), 창저우(滄州)의 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다.

허베이성의 2013년 GDP는 2조 8301.4억 위안으로 전국 6위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6.5% 성장했다. 1인당 GDP는 6,270달러로 중국 평균 5,414달러 보다 높다. 성 내 도시 가운데에서는 탕산(唐山)시가 지역 내 GDP와 1인당 GDP에서 각각 6,121.2억 위안, 12,814.9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성도(省都)인 스자좡(石家莊)은 각각 4,863.6억 위안, 7,561.3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연해지역인 탕산(唐山)시와 내륙지역인 싱타이(邢台)시의 소득 격차가 약 3배에 이를 정도로 지역 내 소득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허베이성 각급 도시 GDP 및 1인당 GDP 현황(2013년)

2013 년GDP 순서	주요 도시	2012년GDP (억 위안)	2013년GDP (억 위안)	2012년 인구(만 명)	1인당GDP (위안)	1인당GDP 달러)	1인당GDP 순서
1	唐山	5,861.63	6,121.2	771.27	79,365.20	12,814.89	1
2	石家莊	4,500.2	4,863.6	1,038.6	46,828.42	7,561.26	2
3	邯鄲	3,023.7	3,061.5	993.1	30,827.71	4,977.67	7
4	滄州	2,811.89	3,020	744.36	40,571.77	6,551.02	4
5	保定	2,720.9	2,680	1,135.14	23,609.42	3,812.15	10
6	廊坊	1,793.8	1,943.1	433.2	44,854.57	7,242.55	3
7	邢台	1,532.0	1,604.6	718.86	22,321.45	3,604.19	11
8	張家口	1,233.67	1,317	439.38	29,974.05	4,839.83	8
9	承德	1,180.9	1,272.09	372.96	34,107.95	5,507.32	6
10	秦皇島	1,139.17	1,168.8	302.16	38,681.49	6,245.80	5
11	衡水	1,027.47	1,110	442.4	25,090.42	4,051.28	9
	全省	26,575.01	28,301.4	7,287.51	38,835.49	6,270.67	

2)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교류 현황

충남도는 중국의 중북부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허베이성과 1994년 2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간 행정 교류,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문화관광체육 교류, 농업과 청소년 교류 등을 실시해 왔다. 2013년 말까지 양 지역은 총 112회의 교류 동안 총 997명의 왕래 방문이 있었다. 충남도에서는 49회 454명이 허베이성을 방문했고, 허베이성에서는 63회 543명이 충남도에 방문했다.

교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 교류 차원에서는 양 지역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문들이 주로 있었고, 경제 교류는 경제사절단 파견과 투자유치 설명회, 기업체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 등이 있었다. 인적 교류로는 행정연수와 K2H 연수가 있었고, 예술단 방문 공연, 팸투어, 체육팀 전지 훈련 등 문화관광체육 교류가 있었으며, 그 외, 농업 및 청소년 교류가 있었다.

[표 5-2] 충남도-허베이성 간 교류 현황(2013년 말 기준)

구분	교류 내용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12회 997명 교류 - 충남도 → 허베이성 49회 454명 - 허베이성 → 충남도 63회 543명
행정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부 상호방문 및 국제행사 참가 (32회, 332명) - 심대평도지사 허베이성 방문('04. 9) - 바이커밍(白克明) 허베이성 당서기 방문('04. 4) - 이완구도지사 허베이성 방문('07. 4) - 룡장위이(龍庄偉) 교육부성장 방문, 교육 분야 교류합의서 채택('10. 4) - 2010 세계대백제전 대표단 참가('10. 9, 5명) - 안희정 도지사 허베이성 방문, 교류협력 강화 협의서 채택('10.11, 9명) - 송석두행정부지사 '14.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협의 방문('13.11.4, 4명)
경제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8회, 187명 - 경제사절단 파견, 투자설명회·우수상품전 개최 - 허베이성 경제관계자 방문 도내 기업체 벤치마킹(3회)
인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3회, 13명 - 행정연수, K2H 공무원 연수
문화, 관광, 체육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9회, 274명) - 충남서예가협회단 허베이성 방문 → '99년 이후 중단 - 백제문화제 허베이성 예술단 공연 → '07년 1회 - 허베이성 대표단 우리 도 팸투어 → '07년 이후 중단 - 체육팀 11종목 229명 상호 경기 및 전지훈련 → '05년 이후 중단 - 충남공예조합 허베이성 방문, 양 지역 공예협회간 교류('11. 7)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수산·환경분야 의견교환회(9회, 37명) □ 행정시책교류회의(13회, 62명) □ 청소년교류 (9회, 92명) → '07년 이후 중단

자료: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이러한 교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주류를 이루는 문화관광·체육 교류와 청소년

교류가 대략 2007년부터 중단되어 실질적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자매결연 20주년기념 기본 시책 방향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양 지역은 금년 10월 허베이성 성도인 스자좡시(石家庄市)에서 기념행사를 갖기로 합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간 20년간의 교류활동을 돌아보고 충남도와 허베이성이 향후 포괄적 교류협력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행사 기간에는 양 지역 도성장 및 대표단 참석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다양한 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향후 친밀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학술 교류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과 허베이성사회과학원 간 MOU 체결과 학술포럼을 실시하고, 충남도 내 대학과 허베이성 내 대학 간 MOU를 체결하고 교류할 계획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충남경제진흥원과 허베이성 공장연이 교류를 하고, 관광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과 여유국이 교류를 하며, 공예 분야에서는 충남공예협회와 허베이성 공예협회가 공동으로 공예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한 무역상담회·투자유치회·관광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¹⁷⁾

이와는 별도로 향후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계기로 양 지역이 교류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교류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은 20주년 기념행사에 참고할 수 있겠지만 여건상 올해 실시가 어렵다면 이후 교류협력사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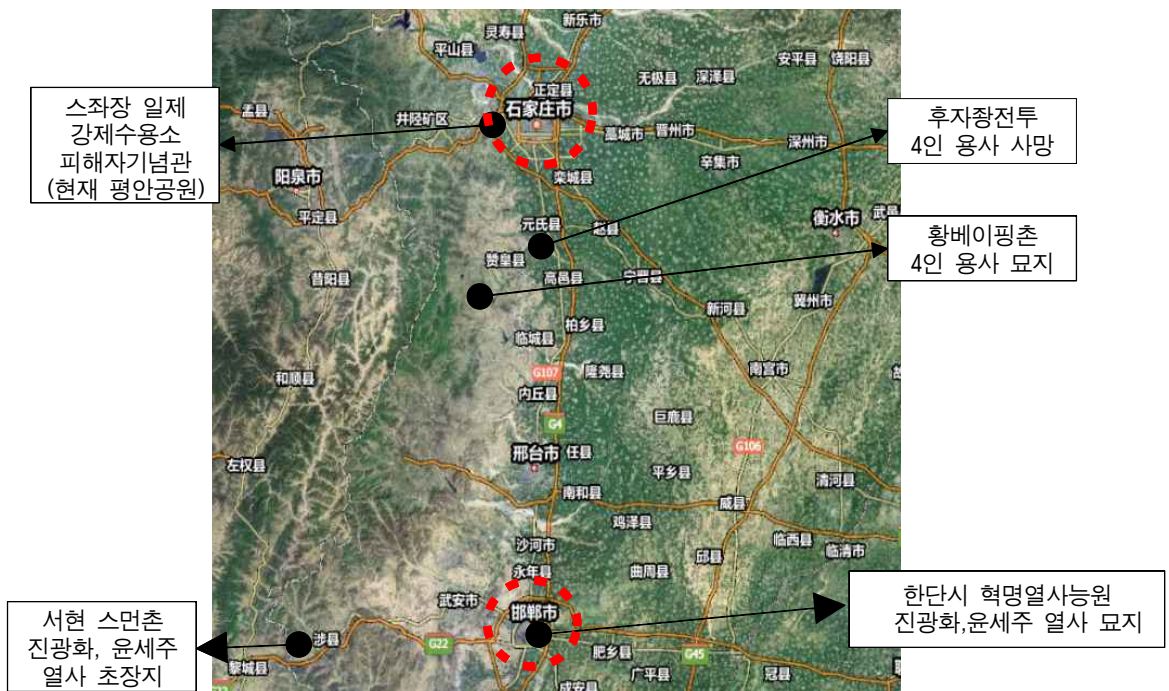
(1) 항일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

충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천안독립기념관 등 독립운동 메카이다. 최익현, 민중식은 항일의병에 참여했고, 유관순, 이종일은 3.1운동을 이끌었다. 김좌진과 양기하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윤봉길은 상하이 홍커우공원에

17)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는 2014년 10월 28일-30일 예정이기 때문에 6월 현재 계획은 이후 변경될 수 있다.

서 일본군지휘부 사열단에 폭탄을 던지는 등 의열투쟁을 전개했고, 이동녕과 이세영은 임시정부에서, 서재필은 미주에서 활동을 했다.

허베이성 또한 중국에서 항일투쟁이 가장 활발히 진행된 지역으로 중공 팔로군의 총사령부가 있었던 지역이다. 현재 허베이성의 한단시 진지루이(晉冀魯豫) 혁명열사능원에는 허베이성, 산둥성, 허난성, 산시성 등 주변의 4지역에서 항일운동시기 희생된 분들을 모셔놓은 국립묘지가 있다.¹⁸⁾ 또한 스자좡(石家庄市)에는 일제강제수용소피해자기념관(현재 평안공원)이 있다.



[그림 5-2] 허베이성 주요 항일유적지

주: 이 일대를 보통 타이항산(太行山) 항일유적지라고 함.

특히, 우리나라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허베이성 한단시 서현(涉縣)의 타이

18) 河北省 邯鄲市 陵園路 中段에 위치하고 있는 진지루이 혁명열사능원은 우리나라의 국립대전현충원과도 같은 곳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안장되어 있다. 열사능원은 도로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 둘로 나뉘어 있는데, 북쪽 능원에는 좌권장군의 묘 서편으로 진광화 동지의 묘가 있고, 남쪽 능원에는 석정 윤세주 열사의 묘가 있다. 입구에는 마오쩌둥이 쓴 “無上光榮” 혁명탑기념탑이 있으며 한중 (지방)정부 간 우호의 상징적인 곳이다. 석가장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이다.

항산(太行山)지구에서는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연합해 격렬하게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1942년 5월 일본군의 대대적인 침략 시 덩샤오핑, 펑더화이 등 팔로군 지도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 조선의용군 윤세주 열사와 진광화 열사¹⁹⁾가 이들을 구출하고 전사해 매우 역사적 의의를 지닌 곳이며 한중 우의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현재 두 열사는 허베이성 한단시의 진지루이(晉冀魯豫) 혁명열사능원에 안장되어 있다.

또한, 허베이성 스자좡시(石家庄市) 잔황현(贊皇縣) 황베이핑촌(黃北坪村)에는 이 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다가 전사한 조선의용대 소속 4분의 독립운동가(박철동, 손일봉, 최철호, 왕현순)가 안장되어 있다. 1941년 12월 인근의 후자좡촌(胡家莊村)에서 팔로군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이들 4분의 독립운동가와 팔로군 12명이 전사했는데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일본군들이 그들의 묘를 훼손할 것을 염려하여 마을에 모시지 않고 후자좡촌에서 100여리나 떨어진 황베이핑촌(黃北坪村) 지역에다 모셨다. 이곳에 모신 4분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박철동(朴喆東) 열사와 최철호(崔鐵鎬) 열사²⁰⁾는 충청도가 고향이기도 하다.

이처럼 항일운동의 메카인 두 지역이 항일투쟁의 역사를 매개해서 교류활동을 추진한다면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 양 지역은 역사적 교류에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되면 도내 관공관련 단체, 역사문화단체, 독립운

19) 윤세주(尹世冑, 1901년 6월 24일-1942년 6월 2일). 호 석정(石正).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세살 위인 김원봉과 같은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1919년 서울에서 3·1 운동 시위에 참가한 뒤 고향에 내려와 밀양 지역 만세운동을 펼치다 발각되어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았다. 이후 중국으로 피신,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서 수학하고 김원봉이 그해 11월 결성한 의열단에 가입했다. 1938년에는 군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정치위원을 맡았다. 조선의용대에서 손꼽히는 이론가였던 그는 민족혁명당 편찬위원회 등에서 일하다가, 1941년 김원봉과 헤어져 박효삼과 함께 화북 지방으로 북상하여 팔로군과 공동으로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가했다. 1942년 4만 명의 일본군이 충공세를 벌인 타이항산 전투에서 조선의용군을 총지휘하며 일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1982년 건국훈장에 추서됐다.

진광화(陳光華, 1911-1942. 5. 28). 평안남도 평양(平壤) 출신이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평양상업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가 난징(南京) 오세(五世)중학교에 입학했다. 재학 당시 한국유난장학생회[韓國留學生南京學生會]의 간사를 맡아 활동하였고, 난징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조직 한교회(韓僑會)의 중앙간부로 재직했다. 1933년에는 광저우(廣州)로 가 중산대학(中山大學)에서 교육학을 공부했으며 1941년 화베이조선청년연합회[華北朝鮮靑年聯合會] 진기로예지회장과 화베이지방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화북지대 지도원 직책을 맡아 무장독립투쟁을 벌였다. 1942년 6월 마덴전(麻田戰)에서 일제의 대규모 진압군과 교전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20) 박철동(朴喆東, ?-1941. 12. 12). 충청북도(충청남도?) 출신이다. 1936년 중국 뤼양(洛陽) 중앙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졸업했으며, 192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했다, 1935년 파견을 받고 화남으로 가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혀 큐슈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 1939년에 낙양에서 조선의용대에 가입하여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최철호(崔鐵鎬, 1915. 6. 19-1941. 12. 12). 충청남도(현재 대전지역) 출신이다. 1935년 중국 난징에서 혁명활동에 참가했다, 1938년 5월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특별훈련반 제6기로 졸업, 한커우(漢口)지역 조선청년전진서북무단과 조선의용대 제1-5진구에서 대적선전사업에 종사했다. 1940년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과 조선의용대 시안판사처(西安辦事處) 주임에 임명됐다. 그는 1941년 허베이성에서 적후방의 혁명 무장부대를 건립키 위해 대적선전과 유격전을 펼치다 후자좡 전투에서 적탄에 전사했다.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동연구 및 기념·선양단체, 청소년교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충남도-허베이성 항일독립운동 교류활동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군 단위에서는 홍성군이 이 지역 출신인 김좌진 장군이 활약했던 헤이룽장시 하이린시(海林市)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역사교류는 물론이고 경제 및 투자, 청소년 교류 등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로는 광주광역시가 광주 출신 중국 항일음악가이자 한중 우호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율성(鄭律成)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정율성음악제”를 개최하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기념음악제와 학술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쳐 지역 단위에서의 한중 교류활동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4인 용사의 묘지



충청도가 고향인 박철동 열사의 묘지

[그림 5-3] 허베이성 한단시 황베이핑촌(黃北坪村)의 4인 열사의 묘지

(2) ‘3농’을 매개로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3농문제’, 즉 농민, 농촌, 농업 문제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한 2004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4년 현재까지 11년 연속 3농문제는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에 매년 초에 각급 기관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달하는 <1호문건>의 핵심주제였다. 시진핑 주석의 2004년 칭화대학 박사논문 제목은 <중국농촌시장화연구>일 정도로 그는 농촌문제에 관심이 많다. 충남도 또한 안희정 지

양 지역 지도자들도 방문함으로써 지도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²¹⁾ 세 번째는 이러한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 양 지역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충남도-허베이성 3농포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매년 혹은 격년제로 양국 3농문제 전문가들이 왕래를 하면서 학술교류는 물론이고 현장답사를 통해 3농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3) 환경문제를 테마로 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압축성장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급부로 사회 및 환경문제 또한 압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의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베이징의 스모그문제와 간쑤성(甘肅省) 란저우시(蘭州市)에서 발생한 벤젠 수도물사건은 환경문제가 단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허베이성은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고 동쪽으로는 평원을 가지고 있으나 서쪽으로는 산간지역으로 항상 수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성도인 스자좡장시와 남쪽의 한단시에는 철강산업과 석탄산업이 발달해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성도인 스자좡시는 베이징보다도 대기문제가 심각해 중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로 보도되고 있다.

충남도 또한 현재 보령시와 당진시 등 연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화력발전소가 계속 증설되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제철공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서산시에서는 화학과 에너지공장과 시설들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질과 대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환경문제를 테마로 한 학술교류와 기술교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여 충남발전연구원과 허베이성사회과학원이 학술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포럼의 주제 가운데 하나를 환경문제로 정한 상태이다. 이처럼 양 지역이 지역의 현안문제

21) 2012년 당시 시진핑 부주석은 미국 방문 시 아이오와주의 작은 농촌마을인 ‘머스카틴’을 방문했다. 그 이유는 그가 27년 전 허베이성성 정딩(正定)현 서기였던 시절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던 마을이기 때문이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잊지 않고 농촌마을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상대국민에게 소탈하고 우호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심어주었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중국지도자들은 농촌마을을 중시하고 특히, 자신이 거쳐했던 마을을 지도자가 된 후에도 꼭 찾아감으로써 인민에 대한 애정과 우호적 이미지를 심어준다.

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백제의 뿌리’를 찾는 교류협력사업 추진

1980년대 들어 중국고고학계에서는 요하문명(遼河文明, 혹은 紅山文化)이 발굴되면서 고대사를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중원은 황하문명보다 약 1000여 년 앞선 유물들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요하지역은 보통 허베이성, 네이멍구, 랴오닝성을 포괄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의 고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백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북)부여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현재 한강 이남, 특히 충남지역의 백제의 옛 영토로써 그 뿌리는 북방계통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공주와 부여가 가장 북방의 혈통을 잘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주는 옛 지명이 곱고을, 고마나루(雄津)로 북방의 곱토탐문화를 가장 잘 간직한 지역이다. 이 백제의 문화와 민족이 일본의 많은 지역으로 전파됐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고마모토현(雄本縣)이다. 현재 충남도는 구마모토현과 1983년 1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양 지역에 각각 연락사무소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공주시는 구마모토현 나고미정(和水町)과 이른 시기인 1979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부여라는 이름은 고대 북방의 부여(扶餘)민족의 혈통을 잇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북방의 부여민족이 현재의 부여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여군은 일본의 나라현 아스카촌(明日香村) 등 7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부여군에 개설한 백제역사문화관과 아울렛은 일본관광객을 타깃으로 건설되어 현재 일본관광객과 쇼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와는 달리 충남도, 특히 공주시와 부여군은 일본과의 교류활동은 활발하지만 중국과의 교류활동은 저조한 상태이다. 공주시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체결한 자매결연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1999년 랴오닝성 선양시(沈陽市)와 우호협력을 체결했지만 교류활동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여군은 의자왕과 역사가 깊은 중국 뤼양시(洛陽市)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두 지역 모두 백제의 뿌리를 찾는 교류협력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따라서 현재 역사문제로 한중일 간 소원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시원과 역사교류문명의 루트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곰토텐(혹은 Bear Root 또는 Bear Route)을 테마로 한 한(충남도)·중(요하문명지역: 네이멍구, 랴오닝성, 허베이성 중 한 곳)·일(구마모토현) 간 교류활동을 추진하거나 그 산하 지자체인 충남 공주시-구마모토현 나고미정-허베이성 쥐루현(涿鹿縣)²²⁾(또는 네이멍구 츠핑시, 랴오닝성 쟈핑현)²³⁾ 간 교류활동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 같이 곰문명을 테마로 한 역사교류의 복원사업은 단지 백제문화의 뿌리를 찾는 탐원(探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중·일 3국이 역사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과거 교류의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장자커우시(張家口市)에 위치한 쥐루현은 현재 중화문명의 뿌리라고 여겨져 대대적인 역사복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3) 홍산문화의 랴오닝성 쟈핑현 우하량 여신묘 제단터에는 제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곰의 아래턱뼈가 발견됐고 여신상 옆에서는 흙으로 만든 실물 크기의 곰상이 발견됐다. 옥으로 만든 곰룡, 즉 옥웅룡(玉熊龍)도 다수 발견됐다. 그러나 홍산문화의 곰토텐은 지역이나 시기적으로 단군신화의 웅녀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민족 문화의 원류일 수 있는 것이다.

제6장 결 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 슈퍼파워’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향후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적 설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먼저, 제1장에서는 이 연구를 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연구 목적, 연구 내용과 방법, 분석틀을 설정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논문과 자료를 분석했다. 특히, 충남도와 위상이 비슷한 타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과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의 핵심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 가운데 최근 대중국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한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출간된 대중국 교류협력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기본정책 방향과 실행 사업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경제통상과 교류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13년 한중 양국 지도자의 회담 이후 최근 한중 간 교류협력이 경제통상에서 인문사회 분야로 변화하는 정책기조를 주목하고 이러한 정책변화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는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을 세밀히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 15개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추진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 15개 시군의 국제(중국)교류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국 교류협력을 비교적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중국교류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조사와 FGI조사를 통해 대중국 교류의 성과와 추진상의 어려움 그리고 향후 각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4장에서는 최근 외교정책이 중앙정부 외교정책에서 신공공외교 또는 지방공공외교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충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성인 남녀 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의 주요 내용은, 1)중국 관련 개인적 경험 및 인식 실태, 2)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실태, 3)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의 방향이었다. 조사결과를 간략히 보면, 충남도민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0.5%이고 없다는 비율은 22.1%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약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한 충남도민의 81.8%는 대중국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가 38%로 가장 높고, 지자체 차원의 방문교류가 18%,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체육교류가 8%, 공공기관의 파견교육 및 연구가 7% 순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충남도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황해권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의 내포신도시 위상 제고, 지역별 특성화된 교류협력 거점 기지 마련 등이 제시됐다. 둘째, 충남도와 각 시군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의 정보 공유와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교류협력 체결 시 충남도와 각 시군 간 연계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셋째,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대중국 이해 교육 강화와 자발적 참여의 중국 관련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제시했다. 넷째, 대중국 교류협력의 허브 기능 강화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충남도청 내 대중국 교류협력 분야 역량 강화, 각 시군에 대중국 교류전담자 배치, 대중국 연구 기능의 강화, 대학과 민간단체의 교류활동 증진, 충남도 중국사무소의 기능 강화와 확대 개편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금년이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이고 양 지역이 이를 위해 올 10월에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향후 충남도와 허베이성 각 교류활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크게 항일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 ‘3농’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 ‘백제의 뿌리’를 찾는 교류협력사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제언을 간략히 제시했다.

2. 정책적 제언

마지막 정책적 제언에서는 제5장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4가지 기본 방향과 금년 2014년 10월 말 개최 예정인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20주년 기념행사의 기본 방향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1) 대중국 교류협력에서의 충남도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

중국의 부상에 따라 최근 우리 정부는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교류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중국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각기 대중국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안의 중심 위치에 있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충남도는 최근 경제통상 분야에서만 급격한 성장추세를 보일 뿐 대중국 교류협력에 있어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국 교류협력에서의 충남도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환황해권 발전을 위한 서해안지역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다. 2001년에 진행됐던 <서해안 포럼>²⁴⁾과 2003년부터 진행해오다 중단된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 신포신도시의 정체성과 위상 제고이다. 내포지역은 우리나라 대중국 역사문화 교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신포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이를 상징할만한 상징사업과 새로운 기반구축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교류협력 거점 기지 마련이다. 충남도는 북부 수출산업기지와 서부 서해안 항만물류기지 등 지역별 특성화된 대중국 교류기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2) 충남도와 각 시군 간 협력체계의 구축

충남도는 현재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1곳, 우호협력 8곳을 체결하고 있으며, 15개 시

24) <서해안 포럼>은 경기개발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5개의 지방연구원이 주축으로 진행했다.

군은 자매결연 10곳과 우호협력 16곳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자체의 여건 변화로 각 지자체의 대중국 자매 및 우호협력 체결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충남도와 각 시군의 협력적으로 연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중국 교류협력의 정보 공유와 논의를 위한 공동 ‘협의체’의 운영이다. ‘협의체’에는 충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국 전문가와 공공 및 민간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 둘째, 교류협력 협정 체결과 실행 시 충남도와 각 시군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충남도는 충남도대로, 시군 지자체는 시군 지자체대로 자매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교류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충남도가 큰 틀에서 교류협력의 발판을 놓고 산하 시군 지자체가 참여한다면 교류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와 미래전략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세계무역 총량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으며 올해는 구매력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구 중심의 이념과 제도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서구와 중국으로 양분되는 균형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세기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실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에 대중국 수출비중이 47%이고 향후 중국의존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중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대중국 이해 교육의 강화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교육의 프로그램 가운데 중국 관련 강좌를 확대해 ‘슈퍼파워’로 부상하는 현대중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각종 강좌와 연수 등을 통해 중국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충남도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련 학습동아리를 운영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4) 대중국 교류협력의 허브 기능 강화

충남도에는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을 총괄하는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내 국제교류팀이 있고 각 시군 지자체에는 대부분 기획감사실 내 국제교류팀이 있다. 또한 도 출연기관이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충남청소년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등에서 중국 연구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단체로는 서산시 유림협의회와 부여의 청년포럼에서 교류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도내 대학기관 중에서는 공주대, 단국대, 한서대, 선문대 등의 중국학과와 경제통상학과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대중국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문 간 연계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충남도청 내 대중국 교류협력 담당 분야 인력 및 역량의 강화이다. 기존의 국제교류팀에서 중국교류팀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둘째, 대중국 교류가 활성화된 시군 지자체 내 대중국 교류 전담자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대중국 연구 및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이다. 현재 서해안지역 시도 연구원에 대중국 전담 연구분서가 신설내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남발전연구원 내 중국 전담연구부서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과 민간단체의 교류활동 증진이다. 첫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중개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중국사무소 기능 강화 및 확대 개편이다. 현재 충남도 상하이사무소가 있지만 향후 충남도가 대중국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면 베이징 혹은 홍콩 등에 중국사무소를 확대 개편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충남도-허베이성 간 특성화된 교류협력 강화

금년도는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따라서 양 지역은 금년 10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1994년 자매결연 체결 이

후 양 지역은 여러 교류활동을 추진해 왔지만 그간의 교류활동은 성년이 되기 이전의 활동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교류협력 활동은 성년 이후의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원숙하고 깊이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 충남도와 허베이성은 지리적 위치와 역사, 농업과 환경 등의 방법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항일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이다. 충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을 배출한 지역이고 허베이성은 중공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협력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근거지이다. 따라서 항일투쟁을 주제로 한 교류협력사업은 양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의가 있다. 둘째, ‘3농’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다. 중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3농’문제이고 충남도정의 제1 목표는 ‘3농혁신’이다. 양 지역이 관심사는 다르겠지만 이 주제를 통해 교류협력을 한다면 양 지역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교류협력사업이다. 중국에서도 허베이성은 수질환경이 좋지 않으며 대기오염이 특히 심한 지역이다. 충남도 역시 많은 화력발전소의 확대 등으로 환경문제가 중요 현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리에 관한 교류협력은 양 지역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곰토텐’을 주제로 한 한중일 간 교류이다. 허베이성을 비롯 중국의 북방지역과 충남도와 일본의 구마모토현은 각각 곰을 조상신으로 삼고 있다. 3국의 지방정부가 ‘곰토텐’을 소재로한 역사교류는 단지 옛 날 것의 복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구갑우 등, 2006, 동아시아시대 새로운 외교지형의 구축, 경기개발연구원.
- 국립외교원,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과제: 한반도 정세와 對 주변국 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김경태, 2013, 산둥성 거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충남발전연구원.
- 김기수, 2013, 시진핑 리더십, 석탑출판.
- 김양중·이민정, 2013, 충청도 아시아 교류전략 개선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10. 14).
- 김철홍, 2002, 한·중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와 중국 광저우시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5권1호, pp. 65-86.
- 김홍식, 2011, 중국 신흥부유층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노중국, 2005, 백제의 대중교류: 尺의 변화와 서산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제34호, pp. 20.
- 로버트 포겔 외(김영경 옮김), 2014, 중국, 다음30년. 서울: 비즈니스맵.
- 마틴 자크(Martin Jacques)(안세민 옮김), 2010,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부키.
- 서산시·충남발전연구원, 2013, 대산항 연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토론회, CDI 세미나2013-13.
-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2014, 차이나핸드북, 파주: 김영사.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2014, 한국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방안, 성균국국연구소 기획세미나 자료집(2014년 1월 28일)
- 성태규, 2008, 충청남도 대중국 교류 기본계획, 충남발전연구원.
- 성태규 외, 2006,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신상진·허시유, 2013, 한·중 교류 협력 발전사-수교 이후 정치 경제 관계, 이매진.
- 신종호 외, 2012,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심장보, 201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당진군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승엽, 2010, 2049 중국을 주시하라, KMAC.

심지연 외, 2004,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와 발전전략 비교, 경기개발연구원.

양중국, 2007, 웅진시대 백제와 중국, 백제문화 제37호, pp. 78-102.

오성동, 2007, 한·중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문화분야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제22집 제1호(통권43호), pp. 131-156.

원테권, 2013, 백년의 급진: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돌베개.

외교부, 2013, 2013 e-중국이슈, 외교부 동북아2과 정세분석팀.

외교부, 2013, 중국관계 자료집,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과.

외교통상부, 2012, 중국개황,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2과.

이상준, 2010, 동북아 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산업입지 및 교통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이수행 등, 2007, 경기도와 산동성의 문화산업 협력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이정훈, 2011, 중국인의 여가관광양식 변화와 전망,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엮음, 2013,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정책동향·한중교류·도시정보, 인천발전연구원.

정종관 외, 2013,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할 서해안 비전 구상, 충남발전연구원.

주유홍, 2007, 해상 교류로 본 중국과 백제의 관계, 백제문화 제38호, pp. 47-75.

조창완, 2007,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한상욱, 2014, 「서해안 비전」 구상(안), 충남발전연구원.

中華民國共和國外交部亞洲司, 2012, 中韓建交20周年-中韓主要演講文稿集, 世界知識出版社.

<웹사이트>

경기개발연구원: <http://www.gri.re.kr/>

인천발전연구원: <http://www.idi.re.kr>

외교부 공공외교: <http://www.publicdiplomacy.go.kr/>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http://www.gaok.or.kr/>

주중한국대사관: <http://chn.mofa.go.kr/korean/>

중국 허베이성정부: <http://www.hebei.gov.cn/>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부 록

부록 1 충남도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담당자 명단(2014.5) / p.121

부록 2 충남도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및 의견 조사 / p.122

부록 3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 / p.129

부록 1 : 충남도 및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담당자 (2014.5)

연번	지역	부서	담당자
	도청	국제통상과 국제교류팀	김0호 계장 이0진 주무관 김0숙 전문위원
1	천안	안전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국제협력계	노0남 주무관
2	공주	시정담당관 행정계	유0성 주무관
3	보령	기획감사실 교류협력계	김0성 주무관
4	아산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대외협력계	이0우 주무관
5	서산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	신0민 주무관
6	논산	전략기획실 기획계	엄0경 주무관
7	계룡	기획전략실 기획계	박0미 주무관
8	당진	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계	심0보 주무관
9	금산	기획감사실 기획계	김0식 주무관
10	부여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이0경 주무관
11	서천	총무과 대외교류새마을계	안0자 주무관
12	청양	행정지원과 교류협력새마을계	이0형 주무관
13	홍성	기획감사실 정책기획계	홍0표 주무관
14	예산	기획실 기획계	천0래 주무관
15	태안	기획감사실 기획계	장0수 주무관

부록 2 : 충남도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및 의견 조사

충남도 각 시군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및 의견 조사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충남도내 각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현황 파악과 의견 청취를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남도 및 중앙정부의 대중국 교류 협의에 관한 정책제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성실히 임해주신다면 지자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2014. 4

♣ 문의: 충남발전연구 미래전략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 공주시 금흥동101 Tel: 041-840-1206, E-mail: kcpark@cdi.re.kr

지자체명	중국업무 담당자명	직책	연락처/이메일
			/

I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1. 현재까지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 지역 및 이유

체결 형태	지역명	체결 이유	적합도
자매결연			
우호협력	①		
	②		
	③		

※ 체결 이유의 예: 지자체장의 의지, 외부 유력자의 소개, 지역특성의 유사

성, 산업구조의 유사성, 역사·문화의 공통성 등

2.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해당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는 어떻습니까?

-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2.1. (관심이 있는 경우) 주로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 ① 중국 관광객 유치 ② 역사·문화교류 확대
③ 지역상품의 시장 확대 ④ 중국자본 유치 ⑤ 기타()

3. 최근 3년 동안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차원의 초청 및 방문 현황(※ 연수교류 포함)

	지역명	인원구성	목적 및 성과
초청	①		
	②		
	③		
	④		
방문	①		
	②		
	③		
	④		

4. 지자체 차원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현황(최근 3년)

	방문자 구성원	방문지	시기 (년월)	활동 내용	활동 성과
초청	①				
	②				
	③				

※ 시장개척 활동의 예: 중국시장 개척단 파견,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상설

전시장 및 직판장 설치 운영

5. 지자체 지원 및 중재로 인한 주요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현황(최근 3년)

	단체명	인원(구성)	목적 및 성과
초청	①		
	②		
	③		
	④		
방문	①		
	②		
	③		
	④		

6. 중국교류협력 전담 인력 현황

부서명	직책	전담여부	언어수준	근무 년 수

7. 대중국 교류협력 추진 시 주로 도움을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시군 자체 ② 충남도청(국제통상과 등) ③ 타 시군 담당자
 ④ 지역 내 유관단체 및 개인 ⑤ 주한중국대사관(영사관) ⑥ 기타()

Ⅱ 대중국 교류협력의 인식 실태

1. 현재 중국경제의 G2의 부상이 해당 지자체의 정책 대응에 영향이 있는지요?

-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이 있다.

1.1. (영향이 있다는 경우) 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 및 통상정책에 영향 ② 관광객 유치
- ③ 역사 및 문화교류에 영향 ④ 공무원 연수 및 어학교육에 영향
- ⑤ 전반적인 인식의 고조 ⑥ 기타

1.2. 대표적인 정책 반영 사례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지자체 차원의 대중국 교류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 ① 중국어 능통자 등 전문인력의 부족 ② 예산의 부족
- ③ 지자체장 및 의회의 관심 부족 ④ 정보의 부족
- ⑤ 의회와 지역민에 대한 설득의 어려움 ⑥ 정부 유관 기관의 연계 부족
- ⑦ 충남도와 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부족 ⑧ 기타

3 현재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있다. ⑤ 상당히 많다.

3.1. (성과가 있는 경우)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인 내용:

4.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인력과 예산은 어떻습니까?

	매우 부족	다소 부족	보통	다소 충분	충분
인력					
예산					

4.1.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는지요?

▶ 구체적 내용:

※ 예: 유학생의 활용, 전문인력의 기간제 고용, 지역 내 조선족 활용, 필요 시 사적 인간관계에 의존

III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비전

1. 향후 5~10년에 중국이 해당 지자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 ① 경제통상 등 모든 방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② 경제통상 부분에서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
- ③ 관광객 방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 ④ 중국유학생 및 근로자 유입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 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 ⑥ 기타

2. 해당 지자체의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계획 및 전망은 어떻습니까?

- ① 줄여나갈 계획이다. ② 현상태 유지 ③ 확대할 계획이다.

2.1. 축소를 한다면 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 이유:

--

2.2. 확대를 한다면 어떤 분야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류 확대 분야	구체적 내용
①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	
② 지자체 차원의 방문교류	
③ 공무원 교육 및 연수	
④ 문화·예술·체육	
⑤ 지역사회 및 교육	
⑥ 역사교류	
⑦ 관광	
⑧ 기타	

3. 해당 지자체의 대중국 교류협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 없다. ②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4. 해당 지자체 대중국 교류협력 확대 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인력의 확충 ② 예산 확충 ③ 정부기관과의 연계
 ④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전환 ⑤ 의회 및 지역주민의 동의 및 참여
 ⑥ 기타_____

5. 충남도 차원에서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정보교류 및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5.1.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주요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충남도청

② 충남발전연구원

③ 중국학과 관련 대학기관

④ 민간교류단체

⑤ 시군협의체

⑥ 기타_____

6. 끝으로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에 대한 요구:

▶ 충남도에 대한 요구:

▶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충남도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충남도 및 중앙정부의 대중국 교류 협의에 관한 정책제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성실히 임해주신다면 귀하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된 의견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

2014. 5

♣ 문의: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 공주시 금흥동101 Tel: 041-840-1206, E-mail: kcpark@cdi.re.kr

I 중국관련 개인적 경험 및 인식 실태

1. 귀하는 중국(타이완, 홍콩, 마카오 포함)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요?

- ① 있다. ② 없다.

1.1.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주로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요?

- ① 관광 ② 업무 관련 ③ 학습
④ 초청 및 행사 ⑤ 기타()

2. 귀하는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요?

-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2.1. (관심이 있는 경우)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역사문화의 유사성 ② 무역 등 사업상 ③ 유학 · 중국어 학습
④ 중국관광 및 체험 ⑤ 진로 및 직업 선택 ⑥ 기타()

2.2. (관심이 있는 경우)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 ① 경제통상 분야 ② 정치 분야 ③ 역사 분야
④ 한류 등 문화예술 분야 ⑤ 어학 분야 ⑥ 기타()

3. 귀하는 **중국어를 학습한 적이** 있는지요?

- ① 있다. ② 없다.

4.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어 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귀하는 어떻게습니까?

- ① 현재 배우고 있다. ②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배우겠다.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에 배운 적이 있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다.

5.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G2로 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향후 귀하의 일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① 거의 없을 것이다. ② 별로 없을 것이다.
③ 약간 있을 것이다. ④ 매우 많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5.1. (영향이 있는 경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 ① 수출입 변화에 따른 소득 증감 ② 중국산 제품의 소비 확대
③ 향후 직업 또는 업무 선택 ④ 중국어 및 중국관련 학습
⑤ 관광 및 체험 ⑥ 기타()

6. 귀하는 중국에 관한 이해와 정보습득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① 신문 ② 방송 ③ 중국 관련 잡지나 서적
④ 인적 관계 ⑤ 영화나 동영상 ⑥ 중국 방문 체험

7. 귀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중국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요?

- ① 있다. ② 없다.

7.1. (계획하고 있는 경우)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십니까?

- ① 중국어 학습 ② 중국 관련 서적을 통한 중국 이해
③ 언론보도를 통한 중국 이해 ④ 중국여행을 통한 중국 이해
⑤ 인적 관계를 통한 중국 이해 ⑥ 기타()

II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실태

1. 귀하는 충남도(각 시군 포함)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요?

-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많다.

2. 귀하는 충남도 및 각 시군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이 다른 시도 지자체에 비해 대체적으로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교류협력사업에는 지자체의 협력 체결과 상호방문, 경제통상, 투자유치, 문화관광교류, 민간교류, 학생교류 등을 포함, 이하 동일)

- ① 다른 시도에 비해 못하다 . ②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③ 다른 시도에 비해 못하다. ④ 잘 모르겠다.

3. 귀하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백제역사문화유적 ② 서해안의 생태 및 깨끗한 자연환경
③ 항일운동과 독립운동 유적지 ④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시설
⑤ 머드축제 등 다양한 축제 ⑥ 많은 대학과 학생들(중국유학생 포함)
⑦ 기타()

4. 귀하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공항이나 항만시설의 미비 ② 관광시설 및 아이템의 부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④ 주민들의 의식 부족
- ⑤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 부족 ⑥ 재정의 부족 ⑦ 홍보부족

5. 귀하는 중국경제의 G2 부상에 대비해 **충남도 및 각 시군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 없다. ②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5.1. (필요가 있다는 경우)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유치 및 경제통상 분야 ② 관광객 유치 분야
- ③ 역사 및 문화교류 분야 ④ 민간차원의 교류 분야
- ⑤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분야 ⑥ 기타

6. 2013년도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전체의 47%로 전국 평균의 26%보다 훨씬 높습니다. **충남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향후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낮아질 것이다. ② 계속 높아질 것이다.
- ③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Ⅲ 향후 대중국 교류협력 비전

1. 향후 5~10년에 중국이 충남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 ① 경제통상 등 모든 방면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② 경제통상 부분에서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
- ③ 관광객 방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 ④ 중국유학생 및 근로자 유입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 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⑥ 기타()

2. 귀하는 향후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을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 ① 줄일 필요가 있다. ② 현 상태 유지 ③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④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④ 잘 모르겠다.

2.1. 확대를 한다면 가장 우선 필요한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 ①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 ② 지자체 차원의 방문교류
③ 공공기관의 파견교육 및 연수 ④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체육교류
⑤ 학생들의 교류 ⑥ 역사교류 ⑦ 관광 ⑧ 기타

**2.2. 귀하는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는 어떤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통상 및 기업유치 ② 백제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역사교류
③ 항일독립운동을 활용한 역사교류 ④ 머드축제 등 이벤트를 활용한 문화교류
⑤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교류 ⑥ 중국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 ⑦ 기타

2.3. 충남도는 현재 허베이성·장쑤성·원난성 등 9개 지역과 자매 및 우호 관계에 있는데 향후 중국의 어느 지역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① 베이징 · 텐진 · 허베이성지역 ② 산둥성지역
③ 상하이 · 쑤저우 · 장쑤성지역 ④ 길림 · 랴오닝 · 흑룡강 등 동북
지역
⑤ 광둥 · 운남 · 사천성지역 ⑥ 기타()

3. 향후 충남도에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기지를 만든다면 어떤 분야가 가장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천안아산당진 등 산업수출기지 ② 당진·서산·보령 등 서해안 관광 및 물류기지
③ 태안 안면도의 생태관광기지 ④ 공주·부여 등 백제역사문화 교류기지
⑤ 천안·홍성·예산 등 항일운동기지 ⑥ 논산·청양·금산의 유교문화 및 농식품수출기지
⑦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중심기지 ⑧ 기타()

4. 귀하는 충남도 자체적으로 중국 및 국제교류협력을 전담하는 기관 혹은 단체의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예, 충남도국제교류재단, 충남도국제협력센터 등)

- ① 필요 없다. ②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4.1.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주요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남도청 ② 충남발전연구원 ③ 중국학과 관련 대학기관
④ 민간교류단체 ⑤ 충남도 시군협의체 ⑥ 기타_____

5. 끝으로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V **개인 현황**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30세 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직 ② 관리직 ③ 사무직 ④ 판매직
⑤ 서비스직 ⑥ 생산직 ⑦ 농어업 ⑧ 주부·학생 ⑨ 기타 _____
5.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1) 천안시 2) 공주시 3) 보령시 4) 아산시 5) 서산시 6) 논산시
7) 계룡시 8) 당진시 9) 금산군 10) 부여군 11) 서천군 12) 청양군

13) 홍성군 14) 예산군 15) 태안군

6.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느 권역에 속합니까?

- ① 서해안권역(당진, 서산, 태안, 보령) ② 북부권역(천안, 아산)
- ③ 내륙권역(홍성, 예산, 청양) ④ 남부권역(금산, 논산, 계룡)
- ⑤ 백제금강권역(공주, 부여, 서천)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경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강수현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14-09 ·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글쓴이 · 박경철, 강수현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4년 08월 31일 / 발행 · 2014년 8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01(농촌 · 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258-5 03350

<http://www.cdi.re.kr>

© 2014.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